



9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9호

(루계 455)



◆◆◆◆◆◆◆◆◆◆ 차 례 ◆◆◆◆◆◆◆◆◆◆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주체형의 시대적전형을 더 많이 창조하자	4
나의 조국은	6
당을 따라	7
내 마음	8
어머니 내 조국에	8
인민이 드리는 첫 인사	9
오솔길을 걸으며	10
빛나는 별 (외 1 편)	11
쌍무지개 비낀 나라	11
금강산의 메아리(외 1 편)	11
동석동에서	12
약 속	12
그날의 눈송이	13
찬란히 개화발전한 아동문학의 자랑찬 40 년	14
막장에 잇닿은 숨결	21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23
오늘도 살아계시다	24
행복한 주소	34
기 발	35
목장시초	41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	43
기적소리	43
하나의 시간	44
사랑의 수평선	44
백 암 령	45
기적소리를 들으며	53
신 념	55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격탐구를 위하여	58
풍어의 노래 (외 1 편)	64
날바다 만선의 기쁨일세	64
곧추가자	65
검은금	67
창조의 숨결속에	73
별무리 흐르는 밤	74
졸업사진	76
성격론리의 생활적타당성에 대한 생각	77
출장길에서	79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주체형의 시대적전형을 더 많이 창조하자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고 력사의 이정표마다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온 우리 혁명의 진군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길우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고 고난에 찬 가시덤불길을 헤쳐왔다. 떠나온 길 간고하여도 오늘의 높은 언덕에 올라서고보니 달려온 길이 끝없이 보람차다.

그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우리 조국이 광복의 새봄을 맞이한지도 어언 40년, 우리 당이 창건된지 또한 40년... 험난한 그 길우에 우리는 승리의 자욱을 찬연히 수놓아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도 머물러있을수 없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하여 주체의 진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찬란한 공산주의봄언덕을 향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 길은 순풍에 돛단듯이 달려갈 향로도, 홍타령을 부르며 걸어갈 탄탄대로도 아니다.

그 길은 달려온 길 못지않게 멀고도 험난할것이다. 거기에 사뭇치는 강물도, 험악한 진펄길도 있을것이다. 하기에 오늘의 우리 시대는 고무배가 없어도 사뭇치는 강을 넘고 고무장화가 없으면 맨발로라도 험한 진펄길을 걷는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나서 력사의 진군길을 따라 시대정신을 빛나게 구현해온 우리의 주체문학은 마땅히 이러한 시대정신에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찾고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주체형의 시대적전형을 더 많이 창조해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오늘의 이 벅찬 현실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높은 사상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할 영웅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

하며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만이 참다운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원래 문학작품의 사상적가치는 시대정신을 얼마나 투철하게 구현하였는가에 달려있으며 그 예술적생명력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간성격을 얼마나 생동하게 그렸는가에 달려있다. 동서고금의 문학사를 보아도 그 시대의 대표작은 레외없이 당대의 시대정신을 빛나게 구현한 작품이며 력사의 한계를 넘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작품들은 모두다 매혹적인 성격을 가진 주인공들의 이름과 함께 후세에 길이 전하여지고있다.

우리의 주체문학도 지난 시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시대정신을 빛나게 구현해오는 과정에 수많은 시대적전형들을 창조해왔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 다양하게 창조되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빛나는 성격들과 최근시기에 창조된 《뜨거운 심장》의 신철민, 《령마루》의 현우림, 《대지의 아침》의 강대우, 《녀당원》의 주용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전형적성격들이 이를 단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시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는 하루가 멀다하게 변모되어가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처럼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작가들에게 제공하고있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언제나 충성의 한마음으로 수류탄을 생산하고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날의 맹세를 지켜 대형양수기와 대형굴착기를 만들어 고결한 삶을 빛내여온 락원의 로동계급들은 오늘 또다시 현대적인 대형산소분리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80년대의 영웅사시를 새롭게 창조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룡성의 로동계급들도 전후 재더미속에서 8메터, 암반을 만들던 그 기세로 계속 혁신의 혁명정신으로, 3천톤프레스와 6천톤프레스를 만들던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오늘은 세계적으로 몇대 안되는 1만톤프레스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고있다. 남포갑문 건설장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으며 김철과 무산

에서도, 천리어장과 농장벌마다에서도, 지하막장과 벌목장에서도 날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들끓고 전체 인민이 치열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이 벅찬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80년대의 시대정신을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물고 불굴의 혁명정신을 더욱더 투철하게 체현한 주체형의 새 인간전형들을 더 많이 창조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시대적전형들을 어떻게 창조할것인가.

그것은 결코 우리 혁명의 진군길을 가로막는 온갖 난관과 애로, 시련의 고비들을 주인공들의 앞길에 겹쳐놓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외적인 투쟁과정을 생경하게 보여주라고 하는것은 아니다.

불굴의 혁명정신이란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표면화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전형적인간들의 깊은 내면세계에서 용암처럼 끓고있는 혁명적인 사상정신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수령관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다시말하여 불굴의 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 때 극복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자기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심을 가졌을 때만이 발현되는 고귀한 혁명정신이다. 바로 이 혁명정신이 있음으로써 하여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혁명의 초행길을 드림없이 열어나갈수 있었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강과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을 웃으며 뚫고 나갈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시기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근로자들은 그 불굴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모두 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구호밑에 불타는 강도 넘고 험한 진펄길도 헤쳐나갈 기세로 높이 《80년대속도》로 달려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바탕과 성격적핵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불굴의 혁명정신의 근본바탕을 이루는 혁명적수령관을 그 어떤 론리적개념으로가 아니라 인간성격 발전과 생활자체의 필연적요구로, 인간들의 운명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그리는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할 숭고한 사상감정이 성격적으로 체질화되었을 때만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응심깊게 그려낼수 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꽃피우는 길에서 자신의 운명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철석같은 신념의 세계를 잘 그려야 한다.

소설문학에서는 긍정적주인공의 대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생동한 세부형상으로 성격을 더욱 개성화하여야 하며 시문학에서는 시대의 주도적감정과 혁명적인 서정을 더욱 응심깊게 구현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동문학에서는 새세대들의 고유한 정서를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형상해야 하며 희곡문학에서는 시대적 전형이 체현하고있는 강렬한 극성을 잘 살리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평론은 또한 80년대의 시대적성격 창조와 작가의 미학적리상을 높이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선도적 및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임으로써 문학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주체문학이 70년대의 전성기를 이어받아 새로운 일대 창작적양양기를 맞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작가들자신부터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창작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작가들로 하여금 준엄한 시기 포화속을 뚫고 폐허를 헤치며 불타는 강과 진펄길을 걸어갔던것처럼 언제나 그런 정신으로 창작하며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들은 바로 이 불굴의 정신, 맨발로 진펄을 헤쳐가던 정신을 자신의 심장으로 체득할 때만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주체형의 시대적전형을 생동하게 창조해낼수 있다. 또한 작가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생활과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창작적 사색과 탐구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잠시도 멈출수 없는것이 작가의 창작적 사색과 탐구과정이며 한생을 중단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야 하는것이 작가의 창작생활이다.

우리 작가들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자신의 생활과 작품창작에서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을 더욱 활짝 꽃피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나의 조국은

동기춘

1

너의 땅은
옛날에도 곡식을 자라왔다
허나 파리한 내 몸은
풀잎과 나무껍질을 삭이며
늘 허기져있었다

너의 하늘은
예전에도 푸르고 해와 별이 있었다
허나 풀벌레 서럽게 울어대는 산머리에서
꼴머슴이 쳐다보는 캄캄한 하늘엔
해도 별도 없었다

어머니의 헌 옷고름이
터진 발가락을 건사해주지 못하고
욕질하며 삼아주는 아버지의 땀신이
굵긴 발을 몇날몇달 감싸주지 못하던 때

죽지 못해 산다고들 했더라
죽는 일이 그리 품들것도 아니지만
분해서 입술을 깨물고 걷던 세상

누구든 자유를 부르짖으면
형틀에 뼈가 끼이고
고역을 묵묵히 참으면
짐승같이 채찍을 받았으니
인민을 위한 세월은 한치도 흐르지 않았다

조국이여 그대가 없어
빼앗긴 땅에 태어난 목숨
나는 유년시절을 빼앗겼고
모두는 사람의 값을 빼앗겼고
민족은 나라를 빼앗겼다

조국을 잃으니
아아, 사는 땅은 땅이 아니더라
피의 바다...
비애의 바다...
눈물의 바다...

2

낮이면 환희로히 끓어 좋고
밤이면 은근하여 그도 좋은 내 나라
걸어보자 어데든
설레는 들꽃에 입맞추며

산이라 들이라 가슴이 젖어서 걸으면

흘러간 옛시절 먼지낀 발등에
말없이 눈물얼룩을 지우던
아, 땅의 이슬이 생각나
은혜로운 땅을 오늘에 오히려 신 신고 걸음이
그것이 남몰래 송구한 이 마음

내 가느스름 눈을 조프리고
해빛의 가닥가닥을 아기처럼 물면
밀려오는 파도 즐거이 손벽치는 소리
그런 때면 내 못춘 유년의 춤을 추어
어머니조국을 기쁘게 해주고싶구나

머리들면 나를 위해
푸른 하늘이 있어
해와 별이 웃고
고개숙이면 내 몸을
젖가슴같은 흙이 안아주네

조국아, 정다운 하늘아 들어
수난의 날은 길었어도
아버이수령님 저 백두산에서
조국을 한품에 안고계셨더라

우리 어깨를 파고드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려
민족의 운명을 두어깨에 떠메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리라!
주체의 조국을 안고오신 위대한 수령님

고달픈 산자락에서 그리던
푸른 하늘 밝은 해빛 빛나는 별을
머리위에 얹어주시고
아, 그 모두들 기발에 새기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이름 우리에게 길이 주시였네

그 하늘 그 해빛 그 별밑에서
나는 유년의 삶을 되찾고
모두는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겨레는 조국을 되찾았네

고마워라 나의 조국이여
내 사는 땅은 언제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행복의 바다...

당을 따라

김기호

가시덤불 헤치고
눈비를 맞으며
멀리도 왔어라

당을 따라 천만리 걸어온 길
그 길에
나무배가 없으면
도끼로 폐목을 무어
불타는 강물을 헤쳤고

그 길에
군화가 닳으면
나무껍질을 동여매고
눈내리는 태백산도 넘어온 우리

총포탄이 모자라면
바위돌에 보병삽을 갈아
결전으로 나아갔고
토굴집 작은 피창으로
폐허의 재가루가 날아들 때에도
우리 눈빛 흐린적 없었다

굴함을 몰랐다
종파놈들이 뭐라고 해도
한마음 수령님만을 따라
준엄한 언덕을 넘어온 길이어

자기의 걸음으로
시련의 폭풍을 맞받아
전진하고 비약하는것은
불속에서 버려지고
빈터에서 나래친 우리의 정신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뀐다고
어찌 그 정신 흐려질것이나
끝나지 않은 백두의 행군길을 두고
우리 어찌 날라리를 부리며
안식의 보금자리에
발편잠을 잘것이나

우리 가는 행군길은
멀고도 험한 길
맨발로 진펄을 걸어가도
그 누가 가져다줄 장화를 바라지 않으리
피흐르는 강물을 헤쳐가도
그 누가 선사할 고무배를 원하지 않으리

그 길에서
우리 어찌
한순간이라도 남을 쳐다보랴
한걸음이라도 늦잡으랴

잊지 않는다
난파도에 겁을 먹고
준령앞에 뒤걸음친자들은
력사의 추물이 되어
류성처럼 가차없이
치욕의 나락에 떨어졌음을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길
용기백배 나아가면
천만산악도 물러서는
우리의 행군길

심장이여 뿜어라 !
열정이여 솟구치라 !
땅을 구르고
하늘을 떨치며 가는 그 길에
찬란한 미래
노을비끼지 평선이 마중오리니

열백번 쓰러져도
우리 가리라
맨발로 진펄을 헤쳐온 정신
설피 신고 홀웃 입고
백두설령 넘어온 불굴의 그 정신으로
영원히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한길을 따라

내 마음

리종섭

날마다
동트는 새날의 첫 기슭에서
싱싱한 아침노을 바라볼 때면
내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기곤하노라

티없이 깨끗한 그 마음 없이
당을 받들어 설자리가 없으니
덧지 말자
덧지 말자 한생을

굽이 많은 혁명의 길
머나먼 그 길에
진펄길을 걸어도
눈비속을 헤쳐도
먹은 마음 다잡고 가야 하건만

물속의 차돌도 때가 앓거늘
제 마음 닥달함을 게을리해
내 만약 남모르는 사이
사리와 공명 안일과 해이...
어느것 하나에도 물젖는다면

하얀 천에 먹물을 엮지른듯
물들기는 쉬워도
씻어내기 어려워
덧어진 마음은 치욕을 낳거니

자기자신을 속이며
물위에 뜬 부평초처럼

가사

당앞을 걸돌면서
진심이 녹슨 입발린 만세로
자신을 감추며 돌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당이 펼친
시대의 행복을 절취한
배신자의 삶 !

내 만약 그런 인생이라면
백년을 살아도
꽃밭에서 자란 독버섯
세월따라 머리에 백발을 엮어도
손자의 맑은 눈동자속에
어둑귀신처럼 비끼려니

티가 있다면
옥이래도 나는 싫어 !
흙집이 있다면
그런 꽃 백만송이에도
내 마음 아니 비끼리

아, 나는 살리라
누구도 한번 손대본적 없고
세월의 때 한번 낀적 없는
아침노을처럼 아침노을처럼
덧지 않는 마음으로 한생을 살리라
수령님을 받들어 !
당중앙을 따라서 !

어머니 내 조국에

조금철

별빛밝은 저 하늘이 조국의 품이라면
그 품속에 반짝이는 나는 작은 별
내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준다면
어머니조국은 더욱 빛나리

넓고넓은 저 바다가 조국의 품이라면
흘러가는 대하의 나는 물방울

내 작은 한방울도 더해준다면
어머니조국은 더욱 억세리

안겨사는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품
그 품속에 피어난 나는 꽃송이
내 한송이 어디서나 곱게 피어서
내 조국을 꽃으로 수를 놓으리

인민이 드리는 첫 인사

김봉운

1

적탄이 우박치고
군복은 찢어지고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며
찬 눈가루로 타는 목 추기며
그 몇날 몇달
시련의 준령은 얼마나 넘었던가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사선의 고비, 준엄한 고비를 헤치며
전사는 달려왔다
눈앞에 우렛이 안겨오는 백두산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서...

붉은 기발 높이 휘날리는 백두산밀영
전사는 전령병의 손목 잡기전에
사령부 창가를 우리러
승엄히 첫 인사를 드리였어라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예.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아, 장군님의 건강
그것은 전사의 기쁨이며
끝없는 행복
인민의 념원이며
혁명승리의 담보

하기에 전사는
사령부로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하며
눈보라 만리길도 웃으며 헤쳐왔고
오매불망 그리던
장군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길 수 있었거니

전사의 가슴에 고인
충성의 신념과 함께
승고한 마음속에 새긴 숙망
아, 영원한 축복의 첫 인사여

2

적후의 밤
작열하는 총포탄소리
백두의 눈보라 불바다를 헤쳐온
항일의 혁명전사

오늘의 장령은
그 밤 조용히 천막가에 나섰더라

그 몇날 몇밤을
이렇게 지새웠던가
복으로 향한 마음
그리움에 깊어지는 생각
《최고사령부는 무사한지?》

적후의 밤
숲이 설레인다
우수수 락엽이 떨어진다
희미한 별빛아래
급히 달려오는 그림자
습격떠났던 중대장인가
정찰소대장인가

천막가에 가까이 다가서는
최고사령부의 연락군관
그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복념하늘 우리러
장령은 정중히 첫 인사를 드리였어라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건강하십니다.》

아,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
그것은 장령의 가슴에도
전사들의 가슴마다에도
무적의 힘이 솟구치게 하는
승리의 원천
그것은 우리의 조국
우리 인민의 안전을 확신케 하는
믿음의 담보

하기에 장령은
백두의 눈보라 헤치던
그날의 그 투지로
적들의 첩첩 포위망도 뚫었고
피의 강 락동강도 태백의 준령도
만세의 함성 드높이
적후천리를 누벼왔거니

혁명의 한길에서
장령이 새겨안은 영원한 진리
삶의 신조로 삼고있는
아, 영원한 축복의 첫 인사여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조국을 떠나 그 몇주일
허나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운듯
그리움에 젖어드는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

항일의 싸움길에
수령님을 모시고 걸어온
머리 흰 장령
적후의 준엄한 나날에도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바라며
잠못 들던 그 마음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도착한 그날에도
비행기승강대를 내리며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기전에
장령은 삼가 첫 인사를 드리여라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예.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아. 수령님의 건강

그것은 장령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의 필생의 소원
수령님의 건강
그것은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

진정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주체시대의 위대한 력사가 열리고
이 땅에 광복의 새봄은 오고
이 땅에 인민의 요람
사회주의락원은 펼쳐졌나니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초소에 가면 초소의 전사들이
공장과 농촌을 찾으면 로동자 농민들이
외국의 벼들도
크고작은 나라 국가의 수반들도
언제나 한마음 진정을 담아
인사를 드리여라

끝없는 념원을 담아
평생의 소원을 담아
경건한 자세로 첫 인사를 드리여라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오솔길을 걸으며

성만실

이 길로 가시였으리
지금은 길옆에서 한창 익어가는
산딸기냄새
산꽃의 향기도 그윽한
은하리 오솔길이어

여기로 내 걸음 옮기노니
오늘도 아침이슬을 터시며
수령님 앞서 가시는것만 같아
걸음마다 마음앞서는 이 길

산촌의 이슬길에 발목을 잡그시던
그날의 뜨거움을
내 걸음걸음 새겨안노라

이 굽이에 서시여선
저 등판을 방목지로 꾸리자시더니

저 굽이에 이르시여선
목장을 만들자고
옮기시는 자욱자욱 펼쳐지던
그 은정이 가슴뜨거워

길은 한줄기 오솔길이어도
벌써 이 길에서 안으셨구나
황금열매 쌓이는 소리
젖소떼의 풍만한 바다
꿀벌치는 로인들의 흐뭇한 저 미소

오. 은하리 오솔길이어
수령님 앞서 가신 자욱을 따라
내 오르고 올라도
인민을 위한 이 길의
그 한끝은 보이지 않는구나

빛나는 별 외 1편

실베쓰 드레발

빛나는 별
조선에 솟아 인류의 앞길 밝히며
만민의 가슴에 밝은 빛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빛나는 별
인류의 념원을 한품에 안으시고
전 조선을 빛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분
인류가 받들어모신 세계에 빛나는 별
하나의 길 하나의 사상을
시대와 인류 앞에 펼쳐주시였어라

이 세상 수천만 갈림길에서
제각기 다른 생각 안고 걷는
모든 발걸음을
주체의 사상으로 인도하시나니
위대한 지도자의 손길에 의하여
수천만 인민은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되었어라

폭풍우속에서도
진주와 같이 빛을 뿌리는 새별의 품을 찾아
만민이 그이께 장래운명을 의탁하여라

만민의 신뢰를 받고계시는 이 별
주체사상의 원리로
우리들을 기존사상에서 벗어나
새 지평선에 잇닿은 길을 걷게 하시였어라
사랑과 정의가 있는 길로

오늘의 전취물
래일도 영원하리라
끝없는 열정으로 새 세계를 건설하여
행복을 꽃피우리라

력사와 인류를 위해
바치시는 **김정일** 동지의 업적
그 이름과 함께 영원하리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쌍무지개 비낀 나라

주체로 빛나는 조선에
아름다운 쌍무지개 비졌네
조선의 영광을 그대로 담았는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여
만경대에 태양이 솟아
네 모습 아름다운 무지개로 되었느냐

백두산에 향도의 별 솟아
조선이여 네 모습 그리도 젊어졌구나
주체의 영웅조선에
신비로워라 쌍무지개 비졌네

만경대의 무지개 백두산의 무지개
이 나라의 영광을 축복하는가

세계가 우러르는 조선에
찬란하여라 쌍무지개 비졌네
밝은 앞길에 빛을 뿌리며
만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리라
주체의 한길에 빛을 뿌리며
화창한 봄날에 쌍무지개 비껴
온 조선땅 꽃으로 덮으리

(필자는 뽀르뚜갈 시인임)

금강산의 메아리 외 1편

송명근

구름 층층 딛고 오르면
아슬한 봉이우에 메아리
무지개 한끝을 찾아가면
장엄한 폭포가에도 메아리
아-아-오-오-

봉이봉이 만이천봉
절벽마다 다 두드리고 돌아오네
굽이굽이 천만골안
끝마다 다 울리고 돌아오네
아-아-오-오-

층계층계 넓어진 돌층계를 딛고서라
 나래치며 솟아오른 정각을 안아보라
 걸음걸음 가는곳마다
 인민의 휴양지 꽃피워주시려
 줄사다리 험한 절벽 먼저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엄한 자욱
 그 사랑 비끼여
 세월따라 빛나는 금강

황홀하여 올라서는 아름다움의 상상봉우에
 취하여 올라서는 행복의 절정우에
 터치지 않고는 못참아
 사람마다 내여뿔는 격정이어!
 울려가는 메아리여!

그 누가 자연은 말을 못한다 하였더냐
 가꿔주신 금강에 온 나라를 부르시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덕 안고
 목메이는 웨침에
 말없던 골들도 입을 여네
 무심한 천년바위도
 들먹이며 받아외네

천만년 세월이 알지 못했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은정
 산천에도 길이길이 새겨주고싶어
 천만 가슴가슴 흔들어주고싶어...

일만골안 다 울리고도
 쉬이 사라지지 못하네
 일만련봉 다 에돌고도
 쉬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네
 아아, 금강의 메아리!

동석동에서

푸른 솔밭 나서니 그 어인 물소리나
 숲사이로 꼬리를 드러내는 옥계수
 예로구나 동석동,
 너럭우의 저 바위도 움직인다는곳

슬쩍 손만 대어도 흔들흔들
 건들바람 지나도 흔들흔들

신묘한 저 바위 둘레둘레 안고돌며
 젊은이들 춤판은 흥에 겨워 멋이로다
 청춘남녀 어깨맞춰 쌍쌍이 도니
 환선포 집선봉도 빙그르 도네

참을길 없는듯 저 바위도 들먹들먹
 뛰어들고싶어서 이 마음도 들먹들먹

동석동, 동석동
 그 옛날 집선봉에 채운 서리면
 하늘의 선녀들 여기 내리고
 선녀내린 그날엔 풍악소리에
 흔들흔들
 저 바위도 춤을 추었다더니

봄이라 여름이라 단풍의 가을이라
 이 땅의 선남 선녀 끊임없이 찾고찾아
 당의 품에 넘치는 행복 노래하고 춤추니
 동석바위야
 너 그 어느 하루인들 멈추어설 날 있으랴!

말못하는 바위라도 너무 좋아 들먹들먹
 좋은 세월 나날이 명절이라 들먹들먹

약 속

오실 때면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사랑을 행복을 더해주시고

가실 때면
 크나큰 믿음
 희망의 나라를 펼쳐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열간에서 뿔간으로 흐르는
 불관을 따라 자욱자욱 이으시다
 불쇠를 다루는 압연공의 이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나니
 쇠물인양 뜨거움이 가슴 치밀어
 목이 메이고

붉게 타는 용해공의 얼굴에서
 충성의 결의를 헤아리시고
 탄광에 광산에 더 많이 보내야 할

최장수

무쇠기둥 대들보를 그려보시는듯

압연공의 열정에 넘친 눈빛에서
쏟아져내릴 철판을 헤아리시고
눈부신 석도금판 흐름선에서
인민의 식생활을 그려보시는가

아,
창조와 혁신의 불꽃튀는곳마다
더많은 철강재를 부른다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자신계신 걸린 고리 풀어주시는것으로
우리들에게는
설비의 만부하 만가동으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으로
약속, 약속하자 하시였거늘

사랑이면
이보다 뜨거운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크나큰 믿음
우리는 아직 모르거니
마음속에 잊을수도 지울수도 없는

심장에 간직된 약속-

그것은 더없이 소중한
믿음과 신임
신용의 담보
우려려따르는 로동계급에게
위대한 당이 안겨준
승엄한 언약이거늘

가슴가슴에
위대한 사랑의 대하로
김철은 불도가니

진정 그 높으신 뜻
압연공의 뜨거운 맹세로 불타고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철의 흐름 영원함이어

온 나라 일터와 건설장에
압연공의 마음은 잇닿아있거니
지키리라 위대한 약속
다하리라 충성의 맹세

그날의 눈송이

신국봉

멀리 유격근거지를 떠난 대원들에겐
집도 없던 그날밤
무정한 하늘은 찬눈을 내렸어도
정깊은 어머니는 두손으로 받으셨구나
눈숨을 보내준다고 웃으시며...

눈물나누나
어머님의 어린시절 연자방아에 매여
얼어드는 손발도 녹일 사이 없으셨던
그 겨울의 눈바람은 그리도 차거웠건만

행군의 먼길 가고가야 할
대원들의 몸엔 찬눈을 엿을수 없어
그날의 눈송이
숨이 되길 그리도 바라셨는가

묻지 말자
겨울 찬줄 알면 봄 귀한줄 알거니
어머님은 아시였구나

그날의 눈송이 차거운줄 모르고
눈숨으로 받으실줄...

장군님의 해빛따라 가야 할 먼길
그 길을 앞에 두신 김정숙어머님
밤에도 해빛을 안고
조국광복의 봄을 그리는 마음
못견디게 뿜어올라 소리높이 부르셨구나
아, 눈숨!

그날의 눈송이 걸은 차도 속은 뜨거워
대원들의 가슴가슴에 후덥게 내렸는가
한송이도 천송이, 천송이도 한송이
오늘도 내리누나

그날의 눈송이, 오늘의 눈송이 가슴에 안고
울어도 목이 메여 울어야 할 일이구나
뜨거운 사랑 뜨거운줄 모르면
어머님을 모르고 살리

찬란히 개화발전한 아동문학의 자랑찬 40 년

리동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아동문학은 영광스러운 40년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항일혁명아동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민주건설의 새 터전우에서 옹터자라 가렬한 전화의 포연과 복국건설의 우렁찬 노래속에 오늘에로 줄기찬 진군을 다그쳐온 우리의 아동문학은 사상적내용에서뿐만아니라 동심적정서를 구현하기 위한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후대들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새세대육성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으며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을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후대교육교양에서 아동문학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아동문학이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나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그를 핵으로 하는 아동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된것으로 하여 우리는 그를 본보기로 하여 주체적아동문학의 면모를 갖춘 공산주의 새 인간학 창조의 자랑찬 길을 걸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시여 후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고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동문

학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시였으며 작품창작에서 성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로동당시대 아동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정서를 옹게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아동문학작품들을 대담하게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우리 아동문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새형의 공산주의 적후비대육성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지난 40년간 아동문학이 걸은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르조아적인 《순수》 아동문학과 아동문학의 고유한 성격을 무시하고 성인화의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도식적인 경향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아동문학의 전투적기치와 사상예술적풍격을 고수하여온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였다.

(1)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마련하신 아동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의 역센 뿌리에서 솟아난 해방후 아동문학은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새 조국 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새 나라 어린이들의 슬기로운 모습과 양양한 미래를 밝고 환희롭고 랑만적인 화폭속에서 생신하게 형상하는것으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새시대의 참신한 아동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날 일제식민지문화통치가 남긴 후과와 부르조아아동문학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날카로운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동요, 동시, 소설, 동화, 아동극을 비롯한 아동문학의 여러 종류들이 폭넓게 개척되였다. 그리하여 민주조국창건의 벽찬 현실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주제, 새로운 주인공, 새로운 형식이 전면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아동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제반민주주의적개혁에 의하여 날로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모습과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어린이들의 보람찬 생활을 형상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신과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불타는 충성심을 감동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장군님을 맞는 날》(강훈)을 비롯하여 동요, 동시들인 《현물세가 들어온다, 애국미가 들어온다》(강승한), 《우리 집》(윤동향), 《한글학교 가자우요》(박세영), 가사 《소년단행진곡》(김련호), 동화 《큰 고간에서 생긴 일》(리원우)등은 이 시기 아동문학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국초기에 일어난 역사적사변들과 몰라보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새로운 모습에 대하여 생동하게 묘사하고있으며 민주조국건설의 벽한 나날속에 미래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자라나는 어린 주인공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모습을 참신한 동심적화풍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동요 《현물세가 들어온다, 애국미가 들어온다》는 이 시기 아동문학앞에 제기된 시대적과업을 아이들의 고유한 정서적특성에 맞게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시인은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째 농사를 잘 지어 풍악소리 울리고 오색기를 날리며 방방곡곡에서 현물세와 충성의 애국미를 나라에 바치려 가는 격동적인 모습을 동심적정서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이렇듯 이 시기 아동문학은 하나의 짙막한 동요 형식속에서도 토지개혁의 은덕으로 온 강산이 들끓던 벽한 시대적정서를 동심적으로 소화하여 참신하게 노래함으로써 아동문학에서도 거대한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주제분야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이 분열된 조건에서 민족분단의 고통과 평화재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아동문학앞에 나선 중요 주제분야의 하나이다.

단편소설 《순철이는 죽지 않았다》(신영길), 동화 《지지와 배배》(강훈)는 바로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좋은 작품들이다.

동화 《지지와 배배》는 북과남의 판이한 두 현실에 대한 대비형상을 통하여 북반부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남반부현실의 부패상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으며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이들의 처지와 미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어린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미제를 증오하고 놈들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교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아동문학은 전시 아동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예리한 무기로서 전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시 아동문학의 중심주제는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일떠선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 슬기롭고 용감한 어린이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반영하며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는것이였다. 이러한 주제내용의 바탕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견결한 투쟁정신을 사상적기백으로 하는 시대정신이 줄기차게 관통되고있었다.

종합시집 《영웅나라 아이들》을 비롯하여 동요 《영팔이의 따발총》(김신복), 단편소설들인 《땅크놀음》(황민)과 《학일은 자랍니다》(리진화) 등은 전시문학의 긍정적주인공-소년영웅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단편소설 《땅크놀음》은 슬기롭고 용감한 전시 어린이들의 정신적특질을 동심적으로 특색있게 형상한 대표작의 하나이다.

사랑하는 조국땅을 침범한 미제침략자를 일격에 물리치며 비호같이 남으로 내달리던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영웅주의적특질은 자라나는 전시아동들의 정신적지향속에 그대로 구현되였다.

땅크놀음에 여념이 없는 어린 령남이가 《적진》으로 육박하는 행동의 밑바탕에는 어머니를 학살한 미제원썹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견결한 투쟁정신이 굵이치고있다.

작가는 유년기 어린이들의 동심에 깊이 침투하여 일당백영웅전사들을 끝없이 동경하며 그들처럼 살며 싸워가려는 슬기로운 모습을 유희적정황속에서 매혹적인 성격으로 형상함으로써 전시 아동문학이 창조하여야 할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적모습을 빛나게 해결하고있다.

동요 동시 작품들인 《아이쿠 총》(리원우), 《미국놈병정 겁쟁이병정》(윤복진)을 비롯하여 강훈의 《양촌》, 김신복의 《쫓》과 같은 단편소설들은 전시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세계의 일단을 생동적으로 참신하게 형상하였다.

전시문학은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용감히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의 애국적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의 국제주의정신, 전쟁승리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바쳐 싸운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높은 학습열의를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전시 어린이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동요 《어디라도 와봐라》(박세영), 《소문난 누나》(정서촌), 《버난가리》(김우철), 《군마와 룡이》(김련호), 《책가방》(송봉렬) 등은 전시 어린이들속에서 널리 보급되어 큰 힘을 안겨주었다. 이 시기 동화작품도 활발히 창작되였다.

강효순의 동화 《행복의 열쇠》는 구전동화적인 소재를 전투적인 전시환경과 아동교양목적에 맞게

만든것으로서 정의로운 싸움에 나선 긍정적주인공의 애국적성격을 동화적으로 훌륭히 부각시켰다.

전후시기에 들어와 아동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어린이들을 준비시키며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치열한 계급투쟁에 적은 힘이나마 조직동원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우리의 아동문학은 아동교양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무기로 되었다.

이 시기 아동문학작가들은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벽찬 격동과 환희,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 자본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활발하게 창작하였다.

종합시집들인 《승리의 꽃다발》, 《당의 기발따라》 등을 비롯한 여러 시집들이 활발히 출판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작품들이 련이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된것은 이 시기 문학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 《나는 다시 강을 건너간다》(송영)를 비롯하여 《떠들던 귀속노래》(리원우) 등 동요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사적과 거대한 영향력을 동심적시점에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동시 《협동조합이다》(김복원), 동요들인 《누나와 뽕뽕이네》(운동향), 《시내물》(운복진), 중편소설 《새들이 버들골에 깃든다》(리진화), 단편소설 《송아지》(남웅손) 등은 폐허를 헤치고 일떠서는 조국의 모습과 사회주의농촌의 새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으며 동시 《조국이여 너는 참 좋다》(리맥), 《고운 새 노래》(리원우), 아동극 《영웅을 따르는 소년들》(최복선) 등은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어린 주인공들의 긍정의 기백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하고있으며 락후와 침체를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며 대담하게 전진하는 천리마정신을 인상깊게 그리고있다.

동요 《시내물》은 폐허속에서 일떠서는 조국의 모습을 경이의 눈길로 뜨겁게 감수하는 어린 주인공의 감격적인 체험을 아름다운 동요적운물로 노래하고있다.

시내물이 졸졸

노래하며 흘러가네
푸른 하늘 아래로
노래하며 흘러가네

한굽이를 돌아드니
불탄산에 새봄 왔네
잔디풀은 다시 돋고
진달래가 방긋 웃네

...

굽이굽이 돌고돌아
대동강에 들어서니
새 공장은 우뚝우뚝
우리 평양 일떠서네

전쟁의 포화가 멎은 산과 들에 진달래를 피우며 찾아온 새봄과 함께 재더미만 남았던 폐허우에 영웅적인민들의 고귀한 땀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창조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조국땅을 새로운 모습으로 장식한다.

새로 생긴 양목장, 물방아 돌던곳에 새로 앓은 전기방아, 우뚝 솟은 새 학교, 트랙토르의 힘찬 동음, 모든것이 새롭고 놀라운 전경이다.

시인은 웅장하게 일떠서는 수도평양의 모습과 수령님의 령도밑에 살아 고동치는 조국의 힘찬 맥박, 나날이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노래하고있다.

동요는 함축된 구성과 동심적물동미, 동요적형상의 독특한 정서로 하여 특별히 이채를 띠고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내용으로 한 동시 《나는 두 아이를 보았다》(정서춘), 서사시 《소년 빨찌산 서강령》(김학연) 등이 창작됨으로써 아동문학의 계급적성격과 전투적기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전후시기에 들어와 동화, 우화와 같은 아동문학의 고유한 형태들이 더욱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전후시기 동화문학은 사상적내용에서 계급적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현실주체령역을 새롭게 개척하여나갔으며 형상수법과 예술적기교도 더욱 세련시켰다.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적투쟁을 반영한 중편동화 《도끼장군》(리원우)을 비롯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새시대 어린이들의 고상한 성격적 풍모를 형상한 동화 《빨난 너구리》(강효순), 《제일 큰힘》(김도빈), 《빨간 구두》(박인범), 《감자는 바다》(황민) 등은 이 시기 동화문학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동화들은 주제내용에서 다양할뿐아니라 동화

적형상수법도 이채로우며 특히 구전적인 소재에 때
달려 구래의연한 내용을 답습하던 지난날의 테두리
에서 벗어나 벽한 생활속에서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우화작품도 활발히 창작되었다.

낡은 사상과 뒤떨어진 생활관습을 비판하고 새
시대의 생활관습과 시대정신을 소유할데 대한 문제
를 풍자적으로 형상한 우화들인 《큰 주머니와 작
은 주머니》(리원우), 《사방으로 난 대문》(우봉
준) 등은 풍자의 예리성과 강한 비판정신으로 하여
어린이들을 사회주의의식과 공산주의사상으로 무
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아동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소설, 시, 동
극, 동화, 우화, 동화시 등 다양한 형태들이 활발히
창작된것과 함께 장중편소설들과 중편동화, 서사시
와 같은 큰 형식의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된것이
다.

이것은 이 시기 아동문학이 내용적으로 심화되고
형상수준에서 일보 전진하였으며 형식도 다채로와
지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시사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아동문학
은 내용에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특성이 뚜렷해졌
으며 계급적성격이 강화되고 동심적정서가 원만히
구현된 다양하고 특색있는 형상으로 더욱 풍부화되
였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도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

우리의 아동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께서 문학예술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신 때
로부터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문학
예술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면서 특히 혁
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아동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그리하여 아동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
도와 관심속에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동문학 작가들은 당의 지도밑에 수백만 어린이
들의 사상정신생활을 책임진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창조적열정과 활기에 넘쳐
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아
동문학이 주체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사상예술적풍
격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는데서 불후의 고전적 명
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
한 수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우리 시

대 아동문학의 여러 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
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
기를 장편소설과 동화로 옮긴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 《미련한 꿈》, 《이마 벗어진 앵무새》,
《나비와 수탉》, 《황금덩이와 강낭떡》, 《놀고
먹던 꿀꿀이》, 《두 장군 이야기》, 《날개달린 룡
마》 등 수많은 명작들이 나오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
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본받아 아동문학의
본보기명작들을 몸소 친필히시여 우리의 아동문학
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고무하여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노래》, 《우리 교
실》, 《조국의 품》, 《나의 어머니》와 《패전장
군의 말로》, 《보천보의 화불》 등 연극작품 그리
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비
롯한 일련의 명작들은 래일의 공산주의적아동문학
의 면모를 특징지어주는 불후의 본보기로서 아동문
학 작가들의 창작열의를 힘있게 북돋아주었다.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개인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니다

바다위에 등실 솟는 아침해인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서는 이처럼
정든 집-고향은 어머니조국의 품이며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핵으로 심
고 밝고 아름다운 서정과 동심이 넘치는 발랄하고
참신한 시어으로써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
심과 뜨거운 경모의 감정을 감명깊게 표현하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필하신 불후
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의 아동문학이 경애하는 수
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를 어떤 자세와 립장
에서 어떤 높이에서 심오하게 그리고 생동하게 형
상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이 시
기 아동문학이 거둔 가장 귀중한 성과는 위대한 수

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하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환이 이룩됨으로써 아동문학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세워지게 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첫째가는 원칙적요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최상의 수준에서 격조높이 형상하는것은 당적인 아동문학의 본성과 혁명적사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며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아동문학 창조를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아동문학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서사시적화폭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한것이다.

장편소설 《만경대》(황민), 《배움의 천리길》(강효순), 《동트는 압록강》(문희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어린시절의 영광의 력사를 형상하는데 비쳐지고있다.

소설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는 과정과 배움의 천리로정을 거쳐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포평나루를 건느시기까지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년대기적구성속에 보여 주면서 어린신 원수님의 가슴속에서 계급의식과 혁명의식, 공산주의적신념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나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위대한 혁명가의 고매한 기질과 공신주의적풍모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감명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만경대》는 1910년대 후반기를 력사적 배경으로 하여 만경대와 봉화리에서 부모님의 혁명적영향밑에 자라시던 원수님의 어린신 시절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어린신 원수님께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과 일제강점하의 암담한 조국현실에서 받으신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점차 혁명의식을 싹틔워가시는 과정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만경대》의 속편이라고 할수 있는 장편소설 《동트는 압록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강진과 립강, 팔도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때로부터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시기까지의 생활과정을 보여주면서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폭넓은 안광으로 당대현실을 체험하시며 성장해나가신 의의있는 시기를 형상하고있다.

1920년대 전반기의 암담한 조국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도탄에 든 민족의 비운을 더욱 심각하게 체험하시며 투쟁의 진로를 독자적으로 탐구해나가신 위대한 로정을 감명깊은 화폭으로 형상한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주체적인 방도를 탐색하시며 기어이 해방의 서광을 안아오실 결심을 뜨겁게 다지시는 불타는 신념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만경대》, 《동트는 압록강》,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위대한 주체의 진리와 탁월한 혁명가의 고매한 풍모가 형상되는 바탕을 다양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준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서 아동문학 발전력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서사시적화폭속에서 집대성한 이 혁명적대작들이 나옴으로써 아동문학분야에서는 전례없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그것은 이 대작창작을 계기로 하여 아동문학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적인 대가 확고히 서고 혁명적내용과 동심적정서로 충만한 아동문학의 사상예술적풍격이 뚜렷이 갖추어지기 시작한것과 관련되고있다.

또한 이 대작창작을 계기로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바로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심도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된 때문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아동문학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는 또한 소설, 동요, 동시, 가사, 서사시를 비롯한 아동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고매한 풍모를 다양한 계기와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풍부하게 형상한것이다.

아버이수령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나온 서사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집제작)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한 우리 나라 전체 어린이들의 흠모의 감정을 절절하게 송축한 송가작품으로서 혁명적아동시가문학이 이룩한 또하나의 자랑찬 성과로 된다.

모두 4장과 맺음시로 구성되고있는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60성상에 걸치는 기나긴 나날 혁명의 후비대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신임과 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경모의 정으로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서사시는 감동적인 생활을 담은 서사적인 요소와 서정을 인상깊게 깔면서 송축적정서를 진실하게

펼친것으로 하여 혁명적수령관 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형상한 작품들은 후대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충실성교양, 은덕교양이 심화되는것과 함께 더욱 왕성하게 그리고 더욱 높은 수준에서 창작되었다.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창작된 소설 《장군님을 맞는 날》(강훈)로부터 시작하여 단편소설들인 《일요일》(김정), 《아버지》(박춘삼), 《뉘시터의 불빛》(최병황), 《붉은넥타이》(박현), 《대동강변의 아침》(리준길), 《날개》(전기영), 동요동시작품들인 《보고싶은 원수님》(박세영), 《버들피리》(윤복진), 《원수님의 망원경》(황민), 《영광의 나루터》(김경태), 《어느날 저녁》(민병준), 《원수님 천리길 오신 날 밤에》(정덕철), 《진달래 핀 언덕에》(문희서) 등은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받들고 따르는 아동문학작가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뜨거운 흠모의 열정이 기울어진 우수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감명깊은 화폭속에서 형상하면서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없이 고매한 은정의 세계를 절절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아버지수령님의 따사로온 품이야말로 그 사랑의 열도와 크기에 있어서 태양도 대신할수 없는 그렇듯 위대하고 숭고한것이다.

작품들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계기와 감동적인 소재를 선택하여 이 나라 전체 어린이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고귀한 은정을 폭넓고 웅심깊게 보여줌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과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공산주의적품모를 빛나게 부각하고있다.

이와 함께 최근년간 우리 아동문학은 단편소설집 《아침노을》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감명깊은 형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였으며 단편소설 《참된 모습》(신종봉)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아동들의 충실성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람찬 창조의 나날을 이어오는 전로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정중히 형상하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즐기게 관철하여온 결과 오늘 아동문학은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고 공산주의적도덕품모를 원만히 갖춘 새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 하는 핵

이 있고 중심이 뚜렷한 아동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아동문학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공산주의적세대대의 사상정신적지향에 맞는 새로운 풍격을 갖추고 자랑찬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이 시기 아동문학이 거둔 귀중한 성과는 또한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고 지덕체를 겸비한 긍정적 주인공-공산주의적세대대의 전형적형상을 빛나게 창조한것이다.

《총소리》(문희준), 《달뜰무렵》(리진화), 《영웅의 아들》(박춘호), 《10점》(신종봉) 등은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의 참신한 모습을 창조한 대표작들이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강한 투지를 지닌 주체형의 세대대의 전형들이다.

작품들에서는 우리 시대의 전형인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세계관형성의 견지에서 생활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고있으며 성격의 도식화, 류형화를 극복하고 매 인물의 형상을 독자적인 성격으로 개성화하고있다.

아동시가문학이 창조한 서정적주인공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

서사시 《사랑의 노래》(림금단), 서정서사시 《감자꽃》(송봉렬), 동시 《한줌의 흙》(황민), 《우리는 평양의 하늘아래 자랍니다》(민병준), 《해 뜨는 아침》(마운룡), 《구름우의 내 고향》(림철삼), 《웃는 밤동산》(김영수), 《만경대고향집》(정덕철), 《학슬터에서》(윤복진), 《사랑의 무지개》(림금단), 《봉화산의 애기별》(허광순), 《만경대의 총소리》(김영십), 《무죄황소》(송봉렬), 《고향집의 농쟁기》(강운룡) 등도 마찬가지로 혁명의 세대대로 성장하는 서정적주인공-어린이의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이 시기 아동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창작에서 성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생신하고 발랄한 아동들의 고유한 동심적정서를 생동하게 형상하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지난날 창작에서는 기성의 틀에 매달려 어른들의 사상감정을 아이들의 성격속에 도해하거나 어른들의 유식한 말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되풀이시켜 어린이웃을 입은 《어른》들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편향이 없지 않았다.

성인화의 경향은 성격창조에서뿐아니라 작품의 구성과 줄거리조직에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 아동들의 고유한 정서심리적특성을 무시하고 성

인화하는 부족점을 여러차례 지적하시고 수령님에 대한 노래도 아이들의 심정을 노래한것이 다르고 어른들이 흥미의 정을 담아 부르는것이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작품일수록 더 깊은 탐구가 요구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체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아동문학작가들은 아이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진지한 탐구와 체험을 쌓는 과정에 아이들의 동심적정서를 풍부하게 담은 침신한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아동문학이 거둔 귀중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동화, 우화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것이다.

지난 시기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동화, 우화가 비과학적인 내용을 취급하고있다는것을 구실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극단적인 편향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창작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 창작에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지침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교시에서 동화, 우화의 내용과 형상수법에 대한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으며 동화, 우화야말로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가장 힘있는 교양수단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동화, 우화는 묘사방식과 표현수단에서 다른 종류의 문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그로하여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하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구현하시어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동화, 우화 창작에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화, 우화 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에 대하여 심오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동화, 우화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창작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동화, 우화 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사상적내용이 깊어짐으로써 동화, 우화 문학의 혁명적풍격이 확고히 보장된것이다.

이 시기 동화, 우화 문학은 그 주제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현실주체의 생신한 동화들이 새롭게 개척되었으며 사상적심도와 계급적선이 철저히 보장되면서도 흥미있게 꾸러지게 되었다.

동화 《다람쥐네 고간》(원도홍), 《귀가 큰 토끼》(배풍), 《이상한 귀속말》(김신복), 《물방울》(김우경), 《떠돌아다니던 물음표》(허원길), 《그림토끼의 운동회》(최낙서), 《파도왕의 편

지》(김재원) 등은 문제의 참신성과 형상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현실주체동화의 새 출발과 탐구정신을 력력히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특히 큰 형식의 동화작품들인 중편동화 《보물의 분수》(원도홍)와 최근에 나온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김청일) 등은 흥미진진한 구성속에서 풍부한 동화적환상을 특색있게 펼친 성과작들이다.

또한 우화 《빠기던 바위》(김신복), 《자본가놈을 물리친 마차군》(김선) 등은 이 시기 우화문학을 특징지어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리하여 계급적선이 흐리터분한 《범벽》동화를 만들어내던 유해로운 창작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동화, 우화 문학의 혁명적풍격과 형상적면모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었다.

이 시기 동화, 우화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또한 동화적형상창조의 질적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동화, 우화에 등장하는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은 인간의 개성적인 산 모습을 대변하며 그 특징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지난날 일부 동화, 우화 작품들은 인식적의의를 추구하는 《사건》동화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묘사대상의 성격적특징을 동화적으로 재현하지 못함으로써 교양적의의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 동화, 우화는 대담하고 기발한 형상수단과 흥미진진한 동화적화폭을 통하여 개성화된 산 인간을 보여주는 인간학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환상과 의인화, 과장과 비유, 풍자, 해학의 수법 등 다양한 형상수법을 널리 도입하고 독창적인 형상구성과 생신하고 풍부한 동화적언어를 탐구하는 과정에 생활을 여러모로 진실하게 형상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항일혁명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 주체시대의 봉우리에 높이 솟아오른 아동문학은 지난 4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찬란한 개화를 이룩하였다.

아동문학은 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올바른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혁명적세계관 수립에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아동문학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필전사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상예술성이 높고 동심에 맞는 혁명적작품을 더 좋게,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아동문학을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창조적열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막장에 잇닿은 숨결

안병모

우리가 현대적인 채취설비생산기지의 하나인 5월 10일공장을 찾은것은 9월 초순이었다.

당창건 40돐을 눈앞에 둔 공장은 약동하는 새 기상을 안고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혁신적소식을 알리는 큼직한 속보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안주탄광에 보낼 종합채탄기 시운전을 방금 성과적으로 끝냈다는 희한한 소식이며 주장직장, 주물직장 노동자들이 대담하고 통이 큰 주조방법을 창안하고 받아들여 무산광산에 보낼 마광기소재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였다는 소식...

오늘 이 땅에 창조되는 모든 기적과 혁신이 그러하듯 여기 5월 10일공장에서도 이룩되고있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도 바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고있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해 5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두번째로 공장을 실무지도하여주시고 크나큰 은정과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는것이였다.

채탄기직장에 생산지도를 나왔다가 마침 우리와 만나게 된 공장지배인 김동철동무는 자진해서 공장안내를 맡아주었다.

검은 눈썹아래 리지적인 눈이 인상적인 그는 큰 공장지배인치고는 비교적 젊은축에 속하는 경험있고 패기있는 일군이였다.

《여기가 채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직장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에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이 직장부터 돌아보셨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뽀 지배인동무는 크고작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이 줄지어늘어선 사이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공장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채탄기직장, 권양기직장, 사슬콘베아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과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고 이곳 당원들

과 노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인 채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그들의 로력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석탄공업에서 5월 10일공장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능률높은 채탄설비를 많이 생산하여 채취공업부문에 보내줌으로써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다그치며 석탄생산을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보다싶이 우리 공장은 오늘 나라의 석탄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는 공장으로 되였지요.》

기대들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난 지배인동무는 공장이 걸어진 로정에 대하여 들려주는것이였다.

5월 10일공장은 전후 그 어려운 나날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탄부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공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차례 이 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공장을 현대적인 채취설비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였다.

최근 년간에 와서 공장앞에는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의 채취공업의 요구에 맞게 능률높은 채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설비들을 더욱 완비하며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합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느라고 애를 썼지만 당면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공장의 전망을 열어나간다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채취공업발전전망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환히 꿰뚫어보시고 5월 10일공장을 보다 현대적이고 위력한 채취설비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지배인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채탄기직장 대형경간에 이르렀을 때였다.

대형보링반앞에서 한 기대공이 방금 천정기중기가 물고온 육중한 종합채탄기본체소재를 기대에 설치하고있었다.

소재를 물리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의 작업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던 우리는 《수고합니다. 이거 기대가 이만저만 좋은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건넸었다.

그러니 그는 《이름데 있습니까. 여기 렬지어선이 보링반들과 대형연마반이며 저편에 치차연마반, 수직연마반, 원추치차가공반, 측정설비들과 선반들... 이 모든 기대들은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기대들이랍니다. 보시다싶이 기대공들이 이렇게 제품을 척 물려만 놓으면 제혼자 돌아가며 기대공이 마음먹은대로 깎아내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좋은 기대들을 보내주시고 이 기대앞에서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몸소 저희들리 일터를 찾아주시었지요...》라고 하면서 질 좋은 채탄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교야말 자기들의 트림없는 결의를 이야기했다.

알고보니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공훈기계제작공으로 자라난 정기래동무였다.

혁신의 한길로 억세게 줄달음칠 드높은 결의를 다지고있는것이 어찌 정기래동무뿐이라.

과랄게 달아오른 절삭바들을 떨구며 크고작은 채탄기부속들을 깎아내는 운전공, 기대공들의 마음도 다름바 없었다.

바로 이들이 지난해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실무지도에 무한히 고무되어 이 설비들로 종합채탄기와 보습채탄기만 하여도 수십대나 만들어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북부지구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렸던것이다.

이 공장 기대공들은 지난 한해남짓한 사이에 무려 수백종에 달하는 공구지구들을 창안제작하여 채탄기부속가공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생산능률을 일약 몇배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혁신은 기대공들뿐아니라 수개월이나 걸려야 할 설계작업량을 앞당겨 해제진 설계원들, 소재생산을 맡은 주물, 주강직장의 용해공들과 주형공들 그리고 보충완비설비생산을 맡은 기계화직장, 제관직장의 용접공, 제관공들 속에서도 일어났다.

이 혁신의 나날에 공장에서는 채탄기생산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굵개생산을 위한 400톤 귀따기프레스와 40톤마주치기합마를 비롯한 새로운 설비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여졌다.

채탄기생산자들속에서 련이어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과 혁신, 이것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들의 심장에 지퍼주신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안겨왔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 사이에도 은빛으로 번쩍이는 수많은 부속품들이 가공완성되어 조립장으로 련이 이 운반되고있었다.

우리는 그 제품들을 따라 조립장에 이르렀다.

조립장에 이르니 조립공들은 새형의 종합채탄기를 조립하고있었다. 한편에서는 유압원동기를 비롯한 정밀한 유압설비들을 조립하느라고 복잡한 부속들을 하나하나 맞추어나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육중한 채탄기본체에다 부분품들을 붙이느라고 천정기중기운전공과 협동하에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이윽고 본체의 중간조립이 끝나고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스위치를 넣자 날카로운 절삭바이트가 수십개씩 달린 라선형원통이 기운차게 돌아갔다. 볼수록 장관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장기술지도를 하느라고 나와있는 공장기술부기사장 최관준동무를 만났다.

지난해 5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관준동무를 비롯한 이곳 기술일꾼들이 새로운 형의 능률높은 채탄기를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발휘한 헌신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을 애국자들이라고 불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로운 형의 채탄기를 빨리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이 공장로동계급이 불과 1년남짓한 사이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우리가 놀라움을 표시하자 최관준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새로운 형의 채탄기를 빨리 만들라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는 하루빨리 석탄을 더 많이 캐내어 발전하는 나라의 석탄수요를 충족시키시려는 뜻과 함께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일하고 있는 탄부들을 아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은정이 깃들어있습니다. 탄전은 여기서 수천리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우리들은 언제나 탄부가 된 심정으로 채탄기를 만들고있답니다. 여기 우리 공장의 높뛰는 혁신의 숨결은 막장에 언제나 닿아있지요...》

막장에 잇닿은 뜨거운 숨결 ! 뜻깊은 그의 이야기를 가슴에 안으며 집체같은 종합채탄기를 바라보느라니 이 채탄기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탄부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의 산물이며 우리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충성심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는 확신이 마음속깊이 새겨졌다.

우리의 눈앞에는 이 채탄기들을 받아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목매이며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석탄산을 높이높이 쌓아갈 탄부들의

기쁨어린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조립장에서 지배인동무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기술부기사장동무를 따라 다음 생산공정을 돌아보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민첩한 걸음걸이로 우리앞을 걸어가는 기술부기사장 최관준동무는 몸매가 체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채탄기생산기술에 들어서는 두번째라고 하면 섭섭해할만큼 고집도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들에게 강력사슬콘베아직장과 벨트콘베아직장, 사슬직장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실로 그 어느곳에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실무지도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 공장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작업상 벽체에 나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실무지도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라는 힘있는 글발은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마음을 그대로 보

여주는듯싶었다.

우리는 작업장을 나와 말끔히 포장한 드넓은 구내길에 나섰다.

공장은 얼마나 웅장하고 알뜰하게 꾸러졌는가.

우리 나라의 탄광조건에 맞는 크고작은 채취설비들을 마음만 먹으면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채취설비생산기지로 꾸러진 5월 10일공장 !

오늘은 새 기상을 안고 비약의 나래 활짝 펼친 여기서 바로 탄부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이 꽃피어 탄광작업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어가고있다고 생각하니 구내를 흔들며 울려퍼지는 우람찬 기계의 동음도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끝없이 울려퍼지는 그 기계의 동음은 나라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비약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길이 전하며 더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소식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을 받들고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문제성있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당창건 40돛에 올리려는 불타는 심정을 안고 작가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창작의욕으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모두 준엄한 시기 총포탄속에서 강을 건느고 맨발로 진펄길을 걸어가던 그 정신으로 말은바 창작과제를 앞당겨 더 훌륭히 완성하겠다고 결의하고있다.

작가 김수경은 밤에 낮을 이어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의 마지막 창작전투를 이악스레 벌려나가고있다. 작가 허춘식이 쓴 로동계급을 형상한 장편소설 《야금기지》와 작가 김리돈이 쓴 장편소설 《철의 신념》 그리고 혁명전통주체의 장중편소설들인 《동트는 강산》(백보흠), 《생명》(고병삼), 석탄전선의 로동계급을 형상한 중편소설 《법칙》(정창윤)도 바야흐로 완성되어가고있다.

이밖에도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승할데 대한 단편소설 창작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작가 김동욱, 김성관, 류정옥 등은 이미 초고집필을 끝내었다. 작가 김삼복, 김명익도 새로운 중편소설창작을 위하여 현지체험의 길에 올랐다.

시인 윤두만, 한기운, 김휘조, 권태여, 김영근, 장창영 등은 북부철길건설장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진

설자들을 찾아가 선동사업과 창작활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들먹이게 하는 우수한 시편들을 많이 창작하여 가지고 지난 7월 6일에 돌아왔다. 우산장창작실에서는 시인 오필천, 백의선의 당창건40돛에 올릴 장시 창작 마지막전투가 끝났으며 시인 정문향의 서사시 《눈보라》와 시인 안창만의 서사시 《삼도만의 봄》 창작사업도 끝나가고있다.

평론가들은 당의 지시를 받들고 현재 창작되고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론사업을 널리 벌리고있다.

평론가 리수립이 쓰고있는 평론 《소설창작에서 종자탐구와 철학적심도문제》는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해명하고있으며 강진의 평론 《장중편소설에서 새롭고 특색있는 구성의 탐구》는 금후 장중편소설창작에서 일정한 기여를 할것이다.

이밖에도 완성되고있는 《소설창작과 작가의 개성》(오승련), 《주체형의 인간전형과 주인공의 매력》(김성우), 《단편소설의 특성과 기교》(박용학),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장편소설의 혁신적면모》(김홍섭) 등 평론도 주체문학의 개화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오늘도 살아계시다

신진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장군님 사시는 댁을 모르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평양 초입에 들어서자부터 물어가는것을, 그만하면 아마도 평양바닥을 모조리 헤맨것만 같은데도 장군님 사시는데를 안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채 날이 저물었다.

하늘에는 노을마저 사라지고 미구에 어둠이 실리겠는데 어쩔것인가.

홍분이 앞서서 아침식사도 설때리고 집을 나와 점심도 굶은 복실 어미는 머리에 고이 받쳐인 마대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서 몸이 땅에 잦아들것단 같아졌다.

(사람들두 무심하지 ! 평양에 살면서 어쩌면 장군님 댁두 몰라 !)

속으로 나무라며 복실 어미는 천근무게로 변환, 그러나 특별히 귀중한 마대를 정성을 다 들어 고이 내려 깨끗한 돌우에 고여놓고 자신은 길섶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

모든것이 특별한 시절이었다. 특별히 행복하고 특별히 즐겁고 특별히 의의깊고 무엇이냐 특별히 잘되는 해.

작년봄까지도 진정 오라번네들은 타작마당에서 빈손 털고 물러앉아서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색거리 장리로 빌어낸 썩은 곡식과 초근목피로 연명해오던것이, 왜놈이 망하자 걷어들인 벼를 열섬에 석섬푼수로만 주인집에 바치고 일곱십푼수를 차지하게 되어 갑자기 줄부가 되는듯만싶더니 새해에 들어서자 그 땅을 그대로 다 거저 받아 제땅의 입자가 되었고 자기네는 한생 제살림을 차려보리라고는 바라보지도 못했던 안팎머순이 주인집 땅을 받고 집을 받고 어엿이 나았으리라고 꿈엔들 생각했는가. 정말이지 모든것이 너무도 특별히 좋은 시절이었다.

땅도 이전의 그 땅이 아닌듯 터지게 여문 봄보리, 밀도 이전의것이 아닌듯만싶는데 제땅에 처음으로 심어본 오이밭에 오이들이 매칠하게 한물 잘 커가고있다.

온몸에 행복의 불꽃이 반짝반짝 튀는것만 같은 복실 어미는 가물이 든것도 아닌데 사랑스런 오이포기에 물을 주다가 문득 든 생각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야들야들한 이 첫물오이를 어찌 제입에 먼저 넣으랴 하는 생각이었다.

고마우신 장군님은 온 천지가 가득하게 그들의

행복과 함께 언제나 계셨다. 대지의 기쁨속에 파사로운 해발속에 싱그러운 바람속에 그 어디나 장군님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따주기를 기다리는 첫 오이들을 앞에 놓고 복실 어미는 처음으로 그 고맙고 그리운 장군님을 구체적으로 생활속에다 그려보면서 어리둥절해졌다.

(장군님께서두 땅을 받으셨을가? 안받으셨을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다. 장군님께서 보통 사람들처럼 땅을 받고 어찌고 하실것 같지가 않았던것이다.

(땅이 없으실텐데 어디서 이런 첫 오이를 잡썰보시겠는가 !)

복실 어미가 꼭 알맞추 곱게 큰 보물같은 오이들을 차례차례 잘 따 모으니 한팡주리가 실하였다.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감추어놓고 남편과만 평양에 다녀오겠노라 말을 떴었다. 사연을 들은 남편은 만류하였다. 그까짓 오이가 뭐라구 장군님께 오이가 귀하시겠는가 하는 의견이었다.

《그래두 그렇잖아요. 새땅에서 딴 첫 오이 안요. 이렇게두 맛있어보이게 곱게 큰걸 난 차마 우리 입에 먼저 넣을수가 없수다!》

비취보다도 더 곱게 푸르고 고르른 오이들 따끔 따끔 돌아난 소름 하나 다칠세라 살살 마대에 넣으며 복실 어미는 우겼다.

《장군님 댁이 어딘지나 알면서 그래?》

남편은 미타해서 물었다.

《아 설마하니 평양가른 장군님 댁 모르는 사람이 있을라구 !》

복실 어미는 남편에게 편잔주었다. 남편의 생각에도 희귀한 첫농사의 첫수확을 장군님께 올릴수만 있다면야 오죽 좋으랴싶어서 극성쟁이 안해를 믿는 마음에서 마대를 곱게 잘 묶다가 무춤 일손을 멈추었다.

《아니, 기운 마대에다...》

단별 마대인것은 그자신이 더잘 안다. 가마니는 새것이 있지만 어쩔것인가 망설이는데 복실 어미는 단언했다.

《일없수다. 깨끗이 빨아뒀더랬잖소, 마대야 되가 저울건데 메라우.》

《웃주제가 그래가지구 가갔나?》

안해를 근심스럽게 훑어보며 하는 말이였다.

《설마 뒹인걸 입구 갈가.》

큰소리는 찻지만 방에 들어가 갈아입고 나온것이

빨아두었던 무명적삼이었다. 등판을 넓죽하게 기워붙인 것이었지만 복실 어머니는 곱게 기운 것이 자랑이었다. 치마는 광목에 들인 검정물감이 낱아서 불그데데해진 몽당치마가 단벌이니 그것을 갈아 입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부터 않았다.

남편은 그러한 안해를 미타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평양까지 70리길을 한 절반 넘게 오이마대를 져다주었다. 복실 어머니는 짜증까지 내면서 남편을 돌려보내고서는 오이마대를 소중히 이고 드디어 평양 시내에 들어섰던 것이다. ...

《평양 살면서 장군님 사시는 댁두 몰라!》

놀랍도록 무심한 평양사람들을 입밖에 내어 나무라며 복실 어머니는 이제는 날마저 저물었으니 뽕때골에 사는 동생네 집에나 찾아가서 하루밤 자고 보자고 일어서려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진작 동생네 집에 먼저 가서 알아보면 될걸 공연히 헛고생을 했군!)

아침에 탄 오이를 당일로 올리고싶은 열정으로 하여 무거운 줄도 몰랐던 오이마대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듯 느끼면서 그러나 그는 부지런히 걸었다. 뽕때골 동생네 집까지 가자면 꽤 초간한 먼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다.

장을 대고 찾아가던 동생은 누이를 보며 웃고 핀잔했다.

《누이두 주책이요. 아 장군님께 여직껏 했오이 대접 못했을가봐 그걸 이구와요? 했오이 난지가 언제라구.》

동생의 이 말 한마디로 해서 그리도 곱고 희한하게 생각되었던 첫오이의 빛이 바래고만 느낌으로 복실 어머니는 두어깨가 처지고말았다. 동생집 부엌에도 했오이가 한소랭이 수북이 담겨있다. 물론 자기 오이처럼 좋지는 못했지만 누렇게 늙은것조차 있으니 평양오이는 도대체 어떻게 그다지도 일찍 되었을가? ! 그러니 장군님께 대접할 오이야 얼마나 특별히 좋은것을 가져다드렸겠는가 !

락심은 부끄러움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책》이라는 동생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때렸다.

복실 어머니는 한밤을 거의나 뜬눈으로 보냈다. 자기의 《주책》이 한없이 부끄러우면서도 가슴속에 깊이 숨어있어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었다. 무엇인가 해드리고싶은 소원, 자기의 논밭을 갖게 된 꿈같은 행복속에서 기막히게 고운 첫오이를 앞에 놓고 그의 가슴을 채웠던것은 이 모든것을 주신 한없이 고마우신 장군님께 자기도 무엇인가 보답을 드리고싶은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자기 같은 인간이 감히 다달을수 없는 먼곳에 아물거리는 환상, 간절할수록 다달을수 없는 환상이었던 것이다.

풀이 폭 죽은 복실 어머니는 날이 밝자 하는수없이 그 소중하던 오이마대를, 이제는 하루를 묵여서 더욱 가치가 줄어든 오이마대를 다시 이고 동생네 집을 나섰다. 이왕 평양까지 가져온 것이니 요긴하게

써야 하겠다는 생각만은 떠나지 않았다.

동생도 출근길에 오이마대를 큰길까지 메여다주며 말했다.

《도로 가져다가 무엇에겐 생색있게 쓰라요.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쓰란말요.》

그 말이 더 힘든 요구였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겠는지. 자기따위가 알 재간이 있는가 !

오이마대에다 동생댁네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꾸레미까지 랑손에 들고 복실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큰길을 급히 걷는데 갑자기 검정 승용차 한대가 옆에 와 멎었다.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내다보며 친절히 말을 걸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복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해서 한참 대답을 못하다가 《어디로 가시는길예요?》 하고 다시 물어서야 신작로 끝을 눈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대안까지 갑네다.》

그 여자는 말없이 차에서 내리더니 복실 어머니의 랑손에 들려있는 보따리를 자기가 받아 빈자리에 올려놓으며 권했다.

《타세요. 나두 거기까지 갑니다.》

어느틈에 내려온 운전사가 먼저 복실 어머니 머리에서 오이마대를 번쩍 들어내리더니 자동차뒤를 열고 마대를 집어넣고는 덜컥 덮개를 내려놓는 것이었다. 영문을 모르는대로 이끌려 복실 어머니는 자동차에 그 여인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차는 그가 채 바로 앉기도전에 뿜소리를 내며 내달렸다.

그런 차를 처음 타보는 그는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그 어딘가 모르게 생김새도 차림새도 다르게 느껴지는 그 여자가 말을 걸었다.

《대안에서 무얼하십니까?》

《...》

물음의 뜻을 몰라 얼굴을 든 복실 어머니는 자기를 유심히 여겨보고있는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인광이 어찌도 강한 빛발을 뿜는지 복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의 시선이 동생네 집 조각보를 거쳐 자기의 빛 날은 검정 광목치마자락에 기워붙인 천조각에 이르자 복실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 주제를 해가지구 장군님 댁엘 가겠는가 하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하루 늦더라도 치마를 누구하구 바꿔입구 올걸 !)

부끄러워 어쩔줄 모르던 복실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의 시선이 흠살이 굳어진 맨발에 걸친 짚신을 지나 악매디가 지고 거칠대로 거칠어진 두손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두손을 슬그머니 등뒤로 숨기려 들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북두갈구리같은 복실 어머니의 손을 잡아 자기 무릎에 올려놓으며 다시 친절히 물었다.

《땅을 받았습니까?》

《네 !》

복실 어머니는 허겁지겁 대답했다.

《농사가… 잘됐습니까?》

《그러므로 !》

대답이 너무도 열렬하여 돌아다보는 너인의 눈에 미소가 담뿍 담겼다. 그 눈길과 마주친 순간 복실 어미는 가슴이 뭉클하도록 그렇게 강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아까부터 혼자 자동차를 타고 대안으로 간다는 이 너인이 도대체 누구일가 하는 생각에 골똘했었다. 자기를 향한 그렇게도 아름답게 빛발치는 어글어글한 눈동자에 담긴 너무도 친근한 감정으로 하여 복실 어미는 온몸이 날아오르는듯 느끼며 무조건적인 신뢰와 동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었다.

《대안에, 어릴 가지나요?-대안에 흑…》 누구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물으려다가 그는 그만 두었다. 대안에 이런 특별한분하구 친척간이거나 친한 사이인 집이 있을것 같지가 않았던것이다.

복실 어미는 참으로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있었다. 아무리 보아야 화장지도 없는 소박한 용모였다. 수수한 조선옷차림, 소탈한 몸가짐에 이처럼 친절한분인데 왜 그런지 보통사람같지 않았다.

그분의 그 검고 큰 눈동자에 다시 미소가 담기며 꽃잎처럼 입술이 방실히 새하얗게 빛나는 이들이 꼭 진주처럼 반짝였다.

《불일이 좀 있어서요.》

짧은 대답을 하고나서 그 너인은 복실 어미에게 물었다.

《대안에 사십니까?》

《예.》

《어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이구…》

다정한 목소리와 자기를 지켜보는 그 특별히 검고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얼마나 깊은 인정이 스며있었던것일까! 그 눈에 담겨있는 따뜻한 인정을 느끼는 순간 복실 어미는 더 참지 못하고 사정을 털어놓았다.

《평양서는 오이를 그렇게 일찍 판다는것두 모르구 ! 하지만 평양사람들이 무심두해요. 그걸 이구 온종일 평양바닥을 헤맸잖나요 !》

복실 어미는 그가 바로 김정숙동지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남편이 하던 걱정의 말까지 다 쏟아놓았다.

《장군님 댁을 찾았더면 얼마나 망신할번했나요! 오이나부엌이나 이구 가서말예요! 이 주체를 해가지구 누덕누덕 기운 마대에다가말예요. 아마 문전에두 못들어섰을테지요.》

《그건 무슨 소린가요.》

강한 빛을 뿜는 눈과 마주친 복실 어미는 놀랐다.

《장군님께서선 잘입은 사람이나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복실 어미가 무안해하는것을 느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하셨다는것,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구 로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치시듯 쉬운 말로 설명하시는것이였다.

《건 알아요. 그저 부끄러우니까 하는 소리데요.》 하고는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복실 어미는 물었다.

《장군님을 뵈은 일이 있나요?》

그분의 얼굴에 또다시 웃음이 꽃피였다.

《뵈기만 했겠어요. 우린 모두 장군님의 전사들입니다.》

말귀를 못알아듣고 멍청하니 쳐다보는 복실 어미에게 그분께서는 설명을 하시였다.

《장군님 모시구 우리 녀성들두 왜놈들과 싸웠지요.》

《아하!》

복실 어미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럼 김정숙동지두 아시겠군요.》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아세요?》

《알긴요. 그저 얻어들은 소리뿐이디요.》

《내가 김정숙입니다.》

복실 어미의 두눈이 동글해졌다.

《에그 ! … 이를 어찌나 ! 내래 아무것두 모르구… 이를 어찌나 !》

몸둘바를 몰라하는 복실 어미를 그분께서는 부드럽게 위무하시는것이였다.

《뭘 그러십니까, 원.》

복실 어미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다시 사죄하였다.

《버릇없이 굴어서… 절… 꾸지람하시랴요 !》

《원 ! 뭘 자주 그러시나요 !》

진정으로 나무람하시는 태도에 차라리 마음이 안정되어 복실 어미는 새삼스럽게 그 《젊은나인》을 우러러 살피게 되는것이였다.

이분이 바로 김정숙동지시라고 알고나니 바로 그분의 차를 함께 타고 집으로 간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이름을 물으시자 그는

《복실 어미》 라고 습관대로 답변올렸다.

《아니, 이름말이지요. 성하구 이름하구.》

《리만옥이예요.》

자기 입에도 서투른 성명을 대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리동무》라 부르시는바람에 그는 황급히 대답올렸다.

《예 !》

어쩐지 자기가 그 어떤 어엿한 판사람이 된듯 느껴지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식구들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농사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시고나서 온 마을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금년농사를 마을이 생겨난후 제일 잘된 농사가 되게 해보자고 하시였다.

《에구! 난 일루 가야...!》

리만옥의 놀란 목소리에 차가 우뚝 뒀었다.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몰라서 문을 열려고 헤엄치는 만옥을 김정숙동지께서 친절히 말리시는데 차는 돌아서서 지나쳐온 갈릴길로 들어섰다.

《택이 어디쯤 됩니까. 저어기 저 마을인가요!》

《거기까진 안가요. 인젠 내려서 걸어도 돼요.》

황송하여 어쩔줄 모르는 만옥을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어이 옛지주의 집이었던 그의 집 대문앞에까지 태워다주시었다.

차소리에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눈이 휘둥그래서 서있는 아이들앞에서 그는 차를 내렸다. 운전사가 내려와서 차 콩무리를 열고 마대를 내려서 대문안에 세워주고는 다시 차를 몰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실 때 들리겠다고 하시며 손을 흔드시었다. 만옥은 조각보보통이를 랑손에 쥔채 우두커니 서서 되돌아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왔다.

...대안 어디를 가시는가...?...

《엄마, 차타구 왔나?》

《엄마, 어디 갔다와?》

차마쪽에 매달려 물어대는 어린것들 목소리에 그는 정신이 들었다. 가시는길에 들리시겠다던 말씀이 확 되살아나면서 만옥은 당황해났다.

오이마대를 소중히 들어다가 마루우에 올려놓고는 두팔을 걸어붙이고 집안을 거두기 시작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니까 집안에 거둘것이 너무도 적었다. 논김을 매려나갔을 남편을 불러들이기로 결심을 내리고 아이들을 보냈다. 막상 거두려 마음 먹으니 간사리 넓은 집안에 구석마다 먼지 검불이었다.

만옥이 열이 나서 걸레질을 하고있는데 남편이 아니라 바로 김정숙동지께서 문안에 들어서시는 것이었다.

(애개나! 이를 어쩌나!)

속으로 비명을 울리며 만옥은 뛰어들었다.

《에구, 벌써 오시네.》

자기도 모르게 나간말이다. 우선 집을 거두고 대접할것을 마련하려던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빨리 오잖구 이인 뭘하누!)

의지없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어 남편만 기다려지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시었다.

《집이 좋군요.》

좋은 집을 거두지도 않고 사는것이 송구스러워서 만옥은 어쩔지를 몰라하는데 그분께서는 만옥이 방금 내던진 걸레를 집어드시더니 말릴사이도 없이 마루를 순식간에 손수 닦으시고 마루끝에 앉으시었다. 재빠르고 알뜰하신 솜씨에 어안이 뱅뱅해서 만옥은 엉거주춤 서있는데 집안을 찬찬히 살피시던 그분의 눈길이 마루끝에 놓인 오이마대에 머물렀다.

《이걸 어떻게 써야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음한구석에 줄곧 서려있는 근심이 입밖으로 새어나왔다.

《울리지 못한 대신말예요.》

골똥한 그의 눈길을 한참 마주보시다가 그분은 일어서시어 손수 오이마대를 푸시었다. 만옥이 급히 팡주리를 가져다냈다. 그분께서는 오이들을 살랑살랑 옮겨담으시며 다시 나무랍하시었다.

《이걸 평양까지 이고 오시다니! 다시는 이런거 들고다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팡주리에 담겨가는 오이를 보시며 감탄하는 것이었다.

《오이들이 똑 고르게 곱게 생겼군요! 오이 첫 농사를 참 잘 지었어요.》

이 칭찬의 말씀으로하여 복실 어미의 심정은 복잡해졌다. 그간의 정성과 수고가 천만배로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게 느끼는 반면 택에 갖다드리지 못하고 온것이 다시 아쉬워지는데 그분께서는 땅의 주인노릇을 잘하라 거듭 고무하시면서 오이를 정말 잘 거두었다고 다시금 칭찬하시었다. 마치도 어린 자식을 일리고 칭찬하며 공부 잘하라 타이르는 부모의 태도와도 같아 복실 어미는 자기가 나이가 더 들었다는것을 잊고 만다.

만옥은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다.

《제 동생이말예요. 이 오이를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생색있게 쓰라는데 어데다 쓰면 좋을가요.》

《장군님께서선 인민이 잘살고 기뻐하면 기뻐하십니다. 택에서 이걸 맛있게 해잡수면 제일 기뻐하세요. 나하구 함께 오이로 몇가지 찬을 만들어 봅시다.》

오이가 잘됐는데 아이들을 맛있게 해먹여야지요. 인제는 우리 아이들을 잘먹이구 잘 기르십시오.》

《인제는》이라는 말씀속에 담긴 뜻을 만옥이 어찌 다헤아릴것인가. 그분의 심장깊이에는 강도 일제의 잔혹한 칼부림속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울며 매달리던 엄마 잃은 어린 조카의 마지막 그 애절한 모습이 뼈아프게 사무쳤었던것이다. 왜놈들이 지른 불면지옥에서 어린것을 길러달라 한마디를 남기고 가신 형님의 그 참혹한 모습, 그 부탁이, 우는 어린것을 안고 마지막 돌아서신 오빠의 불구의 몸이, 그 얼굴이 영원히 피로 아로새겨져있는것이다.

《우리 아이들.》

그 옛날에는 험벗고 굶주리고 비참히 죽어간 그 모든 아이들이 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이었다. 오늘은 해방된 새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그분께는 다 《우리 아이들》인것이다. 천대속에 자라나 이름이 《아새끼들》이던 자기 아이들을 마치도 자신의 자녀들인듯 《우리 아이들》이라 하시는 그 몇마디 말씀에서 만옥은 자기네 아이들과 이 나라 모든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한없이 깊은 사랑이 이십전심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두소매를 걷으시고 나서시니 만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수가 없었다. 김정숙

동지께서 부엌으로 들어가시는바람에 만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부엌은 밀린 설것이를 겨우 끝냈을뿐 미처 거들사가 없었다.

《부엌은 어디 보다두 깨끗이 잘 거뒀어야 해요.》

그 말쯤에 만옥의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김정숙동지께서 부엌을 척척 정리하시며 만옥에게 이것저것 시키시었다. 부엌을 순식간에 탄 집처럼 가뿐히 정리되었을뿐아니라 편리하게 개조되고 널찍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제는 부엌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게 닦으라고 시키시며 부엌은 늘 이렇게 거두어야 하고 다른 집들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모범이 되라 이르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릇들을 이것저것 내놓으시더니 오이들을 소랭이와 나무함지에 나누어 쪼갬담으시는것이였다. 만옥은 하라시는대로 소금을 내놓고 물을 끓이며 바빠 돌아가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따로 골라놓은 한무지의 오이를 써시는데 손이 번개처럼 날으며 칼밑에서 갠쪽갠쪽 똑고르게 썰어진 오이쪽이 착착 늘어져간다.

(어찌든 일을 저렇게 잘하셔!)

재치있게 움직이는 김정숙동지의 손길을 지켜보며 만옥은 속으로 감탄한다.

탄탄하신 몸매에 기민하신 몸가짐과 걸음걸이, 빛을 뿜는 까맣고 어글어글하신 그 눈을 무어라 할지!

저 두손은 얼마나 재간많은 손이실까. 만옥은 참지 못하여 그 손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물었다.

《바느질두 잘하시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새하얀 이가 반짝하도록 방긋 웃으시었다.

《왜요?》

《무어나 잘하실것 같아서요.》

김정숙동지는 그저 웃으시었다. 그 아름다운 웃음에조차 인자함과 함께 얼마나 고결한 기품이 풍기고있는것이라!

김정숙동지께서 친동기간을 대하듯 인정스럽게 대해주시니 만옥은 어느듯 스스로움을 잊고 이것저것 일도 함께 거들고 궁금하던 일들도 물어보고 하는 사이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오이 손질을 끝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루에 걸터앉으시며 무슨 중대한 일을 의논하시려는듯 신중히 만옥을 부르시는 것이였다.

《리동무.》

《예.》

《앉으세요.》

그이께서는 만옥을 자기곁에 앉히시며 물으시었다.

《글을 아세요?》

만옥은 부끄러워 대답을 올리지 못하자 김정숙동

지께서는 부드럽게 위로해주시며 말씀하시었다.

《항일투쟁을 한 많은 동무들이 처음에 글을 몰랐어요. 하지만 왜놈들과 싸우는 짬짬에 글을 배웠지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혁명을 하구 나라를 건설하자면 글을 알아야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참으로 재미있고 알기쉽게 이야기해주시었다. 지난날의 자기들의 생활을 어찌면 그리도 자세히 잘 아시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였다. 자기들처럼 못살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처럼 왜놈들과 지주들과 그리도 잘 싸웠는지 리만옥은 너무도 놀랍고 훌륭하여 그 무슨 요란한 옛말을 듣는것만 같았다.

만옥은 주저주저 물어보았다.

《그럼 다른 녀자들두 다 총두 쏠줄 알아요?》

《싸우자구 나섰는데 녀자라구 총을 못쏘든 어찌겠나요.》

발톱까지 무장한놈들이 무시로 달려드는데 우린 총두 귀하구 총알두 귀하거던요. 총알 한방으루 한놈 잡는것두 아까운판이니까 모두 백발 쏘든 백발이 가서 한방 허실없이 그놈들을 다 잡아야 했어요.》 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투사들이 싸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었다.

(이런분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

만옥은 생각하는것이였다. 처음 뵈었을 때에는 첫눈에 그저 여느 녀성들과는 같지 않으시다 느꼈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느껴졌을뿐 어떻게 특이하신지 왜 그러신지를 몰랐고 지금도 다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리만옥뿐이겠는가. 그분이 겪으신 그 모든것을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특이한 아름다움, 그분의 특이한 기백, 열정, 의지, 특이한 깊은 사랑, 특이한 그 모든 재주, 그 모든 능력에 대하여 다는 리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빼앗긴 조국과 비참한 인민을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고 야수 일제와 정면으로 맞서서, 인간력사에 류례없는 피어린 간고한 험로를, 오직 순정을 불태워 싸워이किन 그 힘, 그 사랑, 그 정신 세계가 그분의 전선에서 빛발치고있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시었다.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가시는것을 만옥이 막아섰다.

《무얼 하시려나요. 내가 함께 말씀만 해주어요.》

만옥은 이 귀중하신분이 자꾸 부엌일을 하시게 두어둘수 없었다.

《오늘 하루 내가 이택 일쯤 거들면 일어나겠어요?》

통담으로 대답을 대신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썰어 절

구였던 오이를 지질러놓으시고 다시 이것저것 손질하시는것이였다.

말릴수 없음을 깨닫자 만옥은 차라리 점심대접할 준비라도 할 생각으로 허청에 무쳐있는 배추를 다

듣고있는데 노래소리가 조용히 울려왔다.

《가가 거겨 간악한 왜놈, 지주 쳐부시려
나냐 너너 너도나도 손잡고 일어나
다다 더더 다같이 조국해방 이룩하고
라라 러려 나팔불고 춤추며 새나라 세우자
마마 머머...》

김정숙동지의 깊으신 가슴속 구상을 짐작도 못하는 만옥은 단지 그 노래와 김정숙동지의 목소리에 마음이 끌려 조심히 여쭙어보았다.

《그게 무슨 노랫니까?》

《배우시겠어요?》

세상에 나서 노래라는것을 배워본 일이 없는 만옥은 귀바퀴까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답변을렸다.

《가가 뒤다리도 모르는게 어케 노랫 배우겠나요!》

《글을 그냥 외우기보다 노래로 익히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도 왜놈들과 싸우면서 글을 배우자니 이런 노래를 만들어 외우면서 행군길에서도 짹짹 익혀나갈수 있었던거예요. 이젠 왜놈도 없어졌는데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자면 글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두 외우고 김을 때면서두 외우고 불을 때면서두 외울수 있잖아요? 빨리 배워가지구 마을사람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가르쳐 유능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온 마을, 온 나라를 한덩이로 묶어세우는데서 핵심을 움게 잡는 문제는 중요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만옥에게서 새나라 새 인민의 적극성과 열정을 가려보신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만옥의 곁에 나란히 앉으시여 함께 배추를 다듬으시며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날 따라 해보세요.》

그러시고는 첫구절을 선창하시며 열정실린 그 아름다우신 눈길을 만옥에게 돌리시며 고개를 끄덕여어서 하라 재촉하시는것이였다.

만옥은 자기도 모르게 어린 아이같은 눈이 되어 그분의 입만 바라보며 열심히 따라 목소리를 내어보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만족해하시며 한구절씩 선창하시고는 만옥과 함께 다시한번 부르시고 하시였다.

함께 배추를 다듬던 일이 끝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어서시며 물으시였다.

《노래를 좋아하세요?》

《노래를요...》

만옥은 당황했다.

《언제 노래라는걸 해봤어야지요.》

《노래를 잘하시겠어요. 목소리두 좋구.》

《에구머니나!》

만옥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세상에 나서 육박에는 칭찬을 받아본 일이 없는 그였다. 더구나 노

래를 잘하다니!

《내 좋은 노래들을 배워드려요. 마을에서두 다들 배우게 해서 함께 부르세요. 곤난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면 새힘이 솟습니다.》

《먼저 가가거겨를 다 배워주세요. 그 노래만 다 배우면 글을 읽을수 있을가요?》

《그 노래두 다 배우구 글두 읽구 쓰게 합시다. 글을 모르구서는 혁명을 할수 없어요.》

만옥은 해방이 된후로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지만 그 명확한 개념이 부족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해하는데 그분께서는 계속하시는것이였다.

《혁명선렬들의 피눈물로 찾은 내 조국을 통일시키고 하루빨리 훌륭하게 건설해야 하잖겠어요?》

말씀하시며 자기의 눈속을 들여다보시는 그 특이한 눈, 그저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찬란하도록 빛을 뿜는 크고 새까만, 열렬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다정한 바로 그 눈동자속에 조국이 있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는듯 만옥은 리치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들고오신 손가방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시여 그우에 우리 글을 72부터 또박또박 줄을 맞추어 다 써주시고는 가행밀에 가가거겨 노래를, 나행밀에 나냐너너노래를 써서 노래를 부르면서 글자를 익혀나가기 좋게 만들어주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걸 어디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짤았을 때마다 연습하세요.》 하시며 그 종이를 만옥의 앞에 펼쳐놓으시고 설명해주시는것이였다.

열정과 사랑을 함께 기울이시여 지나간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시는동안 만옥은 이 뜻깊은 시간이 어느 사이에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저 흥분과 긴장속에서 동기간 같으신 친절에 안겨 안심스럽게 배우며 일을 거들었다.

아버지를 데리러 간 아이들이 저희들만 함께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버지 없어!》

《아버지가 왜 없어!》 하다가 《오, 정말.》 하며 만옥은 김정숙동지께 사죄하듯 설명올렸다.

《등성이 막바지에 오래된 묵발 한뼘기가 있는데 일쿠구 메밀을 뿌리겠다구 했었어요.》

《이젠 나쁜 땅두 묵이지 말구 옥토루 만들어야 해요. 다시 찾은 조국땅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노래를 반복하시며 오이채를 만드시였다. 아이들이 따라부르니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엄마와 함께 부르게 하시다가 틀리는데를 줄곧 반복시키는것이였다. 그사이 김정숙동지의 손은 채치있게 움직이시여 한마대 오이로 먼저 먹을것 후에 먹을것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보여주시며 설명하시는것이였다.

지주집 식모였던 만옥은 음식만드는데서는 제노

라했건만 오이볶음 맛에 그만 기가 질렸다. 다른 특별한 양념이 들어간게 하나도 없는데 이건 또 무슨 재간이신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먹지 못할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음식아닌 음식이나마 귀중한 동지들이 한술이라도 보다 맛있게 들게 하고싶은 일념, 그 뜨거우신 동지애가 빚어낸 김정숙동지의 음식솜씨를 만옥이 어찌 알것인가!

만옥은 요구하시는 양념들을 섞기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 그 순서와 량 등을 기억하려 애썼다. 김정숙동지의 음식솜씨도 배워서 마을에 퍼뜨려야 할게 아닌가.

《이걸 이구 평양까지 와서 온종일 해매셨으니 그 마음 그 수고만 해두 장군님께선 이 오이의 몇만 배루 귀중히 생각하십니다. 이걸 아이들두 어른들두 맛있게 잡순줄 아시면 장군님께선 더 기뻐하실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분께서는 떠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열정은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만옥의 심장속에 샘물처럼 흘러들었다. 그분은 만옥의 소박한 마음을 무지와 몽매에서 이끌어 내오시려는것뿐아니라 위대하신 수령님의 녀전사로 새 나라의 유능하고 열정에 끓는 일군으로 교양해내시려는것이였다.

만옥이 그분을 다는 리해하지 못했어도 그분의 곁에서 지낸 반나절, 그것은 그의 새로운 생애의 첫 발걸음을 떼여주시고 한생을 이끌어주신 시발점이였다.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사랑은 만옥이 지난날의 《복실 어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이렇게 이끌어주시었다. 그분께서는 깊은 사랑과 배려로 그를 새 시대의 열성농민, 녀성일군 리만옥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손잡아 걸음마를 태우시는것이였지만 이때 만옥은 그것을 다 리해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이 지난 첫 새벽에 그 검정차는 김정숙동지가 아니라 웬 젊은 아낙네를 태우고 만옥을 찾아왔다. 그 녀인은 자기를 《정동무》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보내신다고 하며 큰 두루말이를 하나 가지고 왔다. 먼저번에 써놓고 가신 우리글 자모들과 노래들을 더 크고 알아보기 쉽게 덕으로 써서 족자처럼 걸도록 해보내주신것이였다.

《꼭 글을 가르치실 생각이신데 빨리 배워야겠군.》

일을 나가려다가 말고 송구스럽게 문열에 섰던 남편이 곁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빨리 배워야 합니다. 주인님은 글을 아시는지, 아시거든 좀 방조해주시구 모르시면 함께 배우시랍니다.》

《알랙시 있나요, 나두 배워야디요.》

집주인은 머리를 굽적거리다가 지게를 질머지고 쉬어가라는 인사를 남기고서 나갔다.

《오늘 무슨 일을 하실래요. 함께 일을 해드리구 오라구 하셔요. 이 바쁜 때에 하루반이나 일을 못

하시게 하셨다구.》

《에구머니나! 별말씀을 다 하시네!

일없어요, 걱정 마시구 불일 보세요.》

그러나 정동무는 족자를 마루 정면에 잘 보이도록 걸어놓고나서 막무가내로 만옥을 따라나섰다. 김정숙동지께서 주신 과업이기때문에 자기는 꼭 그 대로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강냉이밭에 김이 서려 한시가 급한 때였다. 어찌먼 농사군의 이런 사정까지 알아주는것일가. 감격에 젖어 정동무와 함께 한참 김을 추어나가는데 정동무가 물었다.

《그 노래 얼마나 련습했어요?》

《에구! 내레 그 노래 배워내나라구 딸년한테까지 지칭굴받았수다.》

《같이 해볼가요?》

《할줄 알아요?》

만옥은 반색을 했다.

정동무는 조용조용 그 노래를 따라부르다가 틀리는데가서는 반복해서 익혀나아가도록 했다.

《다 외우셨군요! 빠른데요, 김정숙동지 말씀이 동무가 재주가 있구 열성이 있다구 아마 다 외웠을거라구 하시더니 정말이로군요.》

만옥은 칭찬의 말에 정수리가 더 무거워지는데 정동무는 말했다.

《그럼 이젠 새 노래 하나 더 배웁시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무산대중아

혁명의 결전에 달려나오라

…》

하며 정동무는 노래의 뜻을 먼저 설명해주는것이였다.

《이 노래를 날 배워주라구 하시던가요?》

만옥이 노래를 따라부르다 말고 물었다.

《네..》

가르치시는 노래 한절에도 그분의 의도가 있으시고 만옥을 위한 목적이 있으시였고 치밀하신 계획과 순차가 있었던것을 만옥은 알지 못했다. 그런대로 만옥은 후터워지는 가슴속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어쩔 그렇게 알뜰하시구 다정하실가요!》

그 녀인 역시 만옥의 곁에서 부지런히 호미질을 하며 흠없이 호응하는것이였다.

《알뜰하시구 다정하시다구 할가, 지내보면 지내 볼수록 어떻다구할지!》 하며 그는 자기도 모르케 큰숨을 내쉬었다.

《난 언제나 바빠 도시는 김정숙동지를 좀 도와드리려구 늘 생각은 하지만 도와드리기보다 배우는게 더 많구 여러가지 학습을 받아요.

우리를 다 혁명동지라구 보시는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 혁명가루 돼야 한다구 늘 말씀하시지요.》

《날 보구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글썽 나같은게 어케 혁명가루 되겠나요.》

이 말에 그 녀인은 신중히 대답했다.

《하지만 장군님을 모시기 싸운 투사들이 처음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였대요.》

하다가 그는 더 하려던 말을 그만두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가 어떤분이신지 들어봤나요?》

《어떤분이신지 ?...》

만옥은 물음의 뜻을 몰라 어리둥절 반문했다.

《글쎄 충을 남자들보다 더 잘 쏘신대요 ! 스키라는 걸 신으시구 눈덮인 산비탈을 바람같이 미끄러져 내리시면서 달아나는 산토끼를 권총으로 쏘아 맞추신다잖아요 !》

스키도 본 일이 없고 권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는 만옥이가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것을 보고 그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설명을 붙여가며 해주는것이였다. 만옥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광경들을 눈앞에 그려보려고 노력하였다. 충을 메고 힘든 행군을 하는 항일녀투사들속에 김정숙동지를 세워보는 만옥의 눈앞에는 군복차림의 그 독특하신 걸음새가 얼른 안겨왔다.

적과 맞다들려 그놈들을 백발백중으로 쏘아눕히는 그분, 젖은 나무로 불을 피워 식사보장을 하고 눈속에 풀뿌리를 캐려 누구도 모르게 산을 내려가다가 은밀히 밀려드는 적을 발견하여 접전을 벌리시는 장면, 앓아서 의식없는 동무와 함께 천고밀림속에 혼자 남는 그분, 원썬들의 습격을 물리치며 재봉침바늘끝을 갈아가며 런던 밤을 밝혀 전부대에 숨동복을 보강해내시는 그분, 싸우는 항일의 나날의 그분의 그 가슴뜨거운 모습들을 그려 가며 만옥은 그분의 첫 인상이 다시 떠올라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게 언뜻 보기에두 그렇게 특별하셨지 !》

그 녀인은 해가 설핏해져서야 김정숙동지께서 써주신 가사를 남겨두고 돌아갔다.

만옥은 손수 써주신 우리 글자와 노래를 눈에 뜨이는데 정성들이 붙여놓고는 들며날며 중얼거리고 흥얼거리며 열심히 익혀나갔다. 혼자만 그렇게 한것이 아니나 남편도 함께 시작하여 남편의 문맹도 기어이 퇴치하리라 마음먹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이르신대로 마을의 녀성들도 함께 일하며 가르쳐나가리라 다짐했다.

마을녀성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다녀가신 복실 어머니네 집을 영광의 집으로 여기고 복실 어미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그의 이야기를 몇번이고 다시 듣고 싶어들하였다.

그가 배워낸 노래들은 곧 마을녀성들속에 퍼지고 아이들까지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글자를 익히는 것만은 영 제대로 되지가 않아 누구를 가르칠 처지가 못되었다. 그러저럭 농사일 집안일에 바빠 돌아가노라고 어느덧 손수 써주신 글발에는 먼지가 덮히여갔다.

(글재주는 따루 있는게야 !)

이런 말로 만옥은 글배우기를 단념하고말았다.

하루는 그들 부부가 남새밭을 매고있는데 뜻밖에 또 김정숙동지께서 발머리에 서계신것이였다. 순간

제눈을 의심하며 복실 어머니는 호미를 놓았다.

《아니이 ... !》

《배추가 괜찮게 됐군요.》

남편도 호미를 놓고 일어섰다. 뵈옵지는 못했어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것이 있었던것이다.

남편을 인사시키고나서 만옥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마을로 들어가려는데 그분께서는 팔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밭고랑에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씨숙음을 내가 할테니 어서들 김을 매세요.》

《원 별말씀을 !》

남편이 놀라 웨쳤으나 김정숙동지는 벌써 호미 하나를 잡고 채지있게 씨숙음을 하시면서 김을 매가고계셨다. 어리둥절해서 서있던 남편이 할수없이 하나 남은 호미를 잡는것을 보고 복실 어머니가 빼앗아들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기 저 채꼭이나 좀 깎구려.》

그의 발밑에 낫이 있었다.

《아니 ! 농사일두 잘하시는구만요 !》

만옥은 그분의 결이랑을 잡으며 감탄했다.

《나두 농사꾼 아닌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물없이 미소하시며 농사형편을 다정히 물으시고 생활형편도 묻곤하시는데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녀성해방가를 부르는군요.》

김정숙동지께서 얼굴을 드시며 반가와하시는데 둔덕넘어 넓은 길로 처녀애들 둘이 큰소리로 다른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것이였다.

《신작로 넓어서 다니기 좋고

전기불 밝아서 일하기 좋다

동무야 어서 가자

나는야 옥토벌로

너는야 공장으로

전국의 노래하며 어서 가자 !》

일손을 놓고 듣고계신 김정숙동지를 힐끔 보는 만옥의 얼굴이 붉어졌다.

《에구 애들두 ! 걸 함께 뭐람 !》

《무슨 노랜가요? 곡조는 알겠는데.》

《에구 ! 노래가 무슨 노래갔소 !》

김정숙동지께서 더 무슨 말씀을 못하시게 손을 흔들여놓고 그는 변명을 하는것이였다.

《자꾸 뭘 배웠나 대달라구 해서요 배운 노래들을 대줬디요. 그리다가 우리두 노래를 하나 만들어보자구들 해서...》 하며 만옥은 어색한 웃음으로 끝을 얼버무리는것이였지만

《항일투쟁의 불길속에서 생겨난 노래들예요.》

하시던 말씀, 조국에 대한 사랑도 그리움도 슬픔도 기쁨도 피로움도, 원썬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 투쟁과 모든 희망들을 노래로 만들어불렀다고 하시면서

《투쟁속에서 태어난 이 노래들보다 우리한테 더 좋은 노래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시던 그 목소리 그 얼굴이 만옥의 심장깊이에 새겨져있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 얼굴에 기쁨이 함뿍 퍼졌다.

《저 신작로가 새로 났나요?》

아닌줄 아시면서 우정 물으시는 이 말씀에 만옥은 어색함을 극복하였다.

《그런 말이 안예요. 전엔 길을 뒤두구 에미네들은 무슨 죄라두 진것처럼, 암만 바빠두 뒤길을 찾아 에돌아다녀야 했잖나요. <녀성해방가>를 배워줬더니 이젠 우리 마을 녀성노래를 하나 새루 짓자구 해서...》

《그 노랫 나두 좀 배워주세요.》

《애구머니나 !》

만옥은 기겁을 해서 소리쳤다.

《별말씀 다하시네 ! 것두 뭐 노래라구.》

김정숙동지께서는 호미질을 계속하시며 칭찬하시였다.

《정말 노래가 좋아요. 그렇게 글재주가 있는줄 몰랐군요.》

난생처음 듣는 글재주 칭찬에 당황해하는 만옥에게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얼마나 잘된 노랜가요. 나라를 찾으니 녀성들도 옥토벌의 주인이 되구 공장의 주인이 되구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왔지요. 그 노랫 날 한장 배껴주세요.》 마지막 말씀 한마디에 만옥은 정말 당황하였다. 쓰기는커녕 아직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였다. 그는 서둘러 변명했다.

《낫놓구 기옥자두 모르다가 갑자기 글을 배울라니까 돼야ديو !》

기대와는 어긋났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내색하지 않으시였다.

《첫술에 배부르겠나요. 하루에 한글자씩두 못익히겠어요?》

만옥의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보시고 더욱 친절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노래를 배워줬는데 마을아낙네들한테 그걸 적어주면 더 좋겠군요.》

하시며 그분께서는 땅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자면 글을 알아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일깨우시는것 이였다.

남편이 두령풀을 다 깎고 다가와 안해에게 떠들떠들 권하였다.

《그민하구... 모시구 들어가디...》

만옥은 얼른 일어나 호미를 남편에게 넘겨주었다. 얼마 안남은것을 마저 매라는 뜻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매시던 이랑끝까지 와서야 일어서시였다. 만류할수 없음을 알고 마주 매여오던 만옥이 그분의 손을 받들어올리며 한숨으로 사과올렸다.

《우리 밭에서 김을 다 매시게 하구 이를 어찌나요 !》

김을 매시게 한것만 아니라 사실은 아침에 집을

거두지 못한것이 못지않게 걱정이 되는것이다. 그런 집으로 모시는것이 옳은지 그른지 진정을 못하는 그는 가만히 여쭈어보았다.

《우리 밭을 어떻게 아셨나요?》

이 먼데를 어떻게 오셨는지... 설마 우리한테 일부러 오셨겠는지...

《멀리서부터 알리더군요.》

미소하시며 그분께서는 친근하게 대답하시는것이였다.

《지나가던길에 소식이나 알자구 들렸어요.》

사실은 일부러 오신것이다. 한번 시작한 투쟁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중도반단하시는 일이 없으신 김정숙동지시다. 하물며 사람을 새시대 일군으로 혁명동지로 이끌어주시는 일을 소홀히 하실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인간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시였으며 가장 깊은 애착이시였다.

만옥이 그분의 그 깊은 뜻은 어찌 다 알랴만 소식을 알리고 오셨다는 말씀에 랑심이 찢리웠다. 글을 빨리 배워가지고 편지로 소식을 아뢰자 공상하지 않았던가 ! ...

자기 집 지붕이 보이기 바쁘게 그는 걸음을 다녔다. 먼저 들어가서 집안을 좀 거둘 생각인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날랜 걸음걸이로 나란히 오시는것이여서 할수없이 그는 자백하듯 중얼거렸다.

《아침 먹은것두 거두질 못하구 나와서...》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였다. 안팎머슴이였던 그들은 새벽에 아무거나 한술 끓여놓고 요기도 하는동마는등 막살이 칸을 나와서는 밤중에 돌아가 아이들곁에 무너지듯 쓰러져 톱아떨어지는것이 지난날의 생활이였다. 먹고난 그릇들은 다음날 새벽에 아이들이 하루 먹을것을 끓일 때 겨우 부시게 되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한마디 말을 놓치지 않으시였다.

《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린 이젠 논밭두 이전보다 더 잘 거뒀야 하구, 집두 이전보다 더 잘 거뒀야지요. 우린 이젠 땅의 주인이구 제집의 주인이구 나라의 주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웅색해졌던 만옥은 집안에 들어서자 마루우에 널린 그릇들을 재빨리 상우에 쫓아넣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만옥을 못본척하시고 밖에 나오시여 먼지를 뒤집어쓰고 벽에 붙어있는 가가거저노래와 글자들을 보고계셨다. 만옥이 깜짝 놀라 비를 집어드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시여 정히 티서더니 손가락속에서 돌돌 만 흰 종이 한장을 꺼내시여 그곁에 반듯이 붙이시는것이였다. 만옥이 급히 밭풀을 섬겨드리며 아이들 같은 호기심으로 올려다보는 앞에 우리 말 자모들이 펼쳐지는것이였다. 14개의 자음자모들을 가로 한줄 써놓으시고 10개의 모음자모들을 세로 한줄 써놓아 140개 글자들의 구성원리를 도해하시여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인식할수 있게 고안해주신것이였

다.

그것을 설명하시고 만옥이 그것을 혼자서 다 읽도록 익혀주시고나서 종이 한장을 또 꺼내드시며 망설이는 것이었다.

《이걸 마저 붙임… 한꺼번에 너무 힘이 들까? …내가 한번 더 오지!》

하시며 종이 두루말이를 되집어넣으시려는 것을 만옥이 급히 마주붙잡았다.

《마저 붙이십세다! 내가 다 배워낼테니 대주세요!》

글공부를 어떻게 했나 알아보시려 일부러 오셨구나! 내가 미쳤지! 내 글공부때문에 그 먼길을 또 오시게 해서 되겠는가!

그야말로 당황망조한 만옥을 신중히 바라보시다가 그분께서는 결심하신듯 종이 한장을 더 펼쳐드셨다. 반침들과 증모음표, 된 음 표식들을 질서정연히 써놓으신 것이었다. 만옥은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문전에 가볼 생각도 못했던 어미 애비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새 나라에서 지주네 집을 쓰며 살고, 자식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는 공부를 잘 하라고 호통치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들처럼 공부하라 욕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들여 글공부할 것을 만들어 주시었고 새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먼길을 오시었는데 자기가 철없는 아이들만도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루 한두자씩이라도 꾸준히 익혀나가노라면 문리가 터서 쉽게 다 알게 돼요. 글자가 많다고 걱정할게 없어요.》라고 고무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번 되풀이 하여 설명하시고 따라읽게 하시었다. 남편이 참외를 한아름 따안고 희색이 만면하여 들어섰다.

《여러개 맺힌게 아까와 뒤흔더랬더니 이렇게 익었습네다례!》

만옥이 달려들어 빼앗듯이 참외를 받아안고 수도 앞으로 내려섰다.

《참외두 때를 알아봤구나!》

만옥은 씻은 참외를 큼지막한 바가지에 담고 식칼을 얹어가지고 퇴지에 올라서며 김정숙동지께어서 올라가시자 권하였다. 그는 바가지를 남편에게 내밀며 일렀다.

《날래 모시구 올라가 대절하랴요. 내 얼뜬 더운 밥 한술 할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디 급히 가시던 길이라하시며 굳이 권하는 참외를 하나 받아드신채 나가시는 것이었다. 그들이 황황히 따라서니 노박덩굴이 뒤엉킨 아카시아 덤불뒤에 검정 승용차가 멎어서 있었다. 이제는 낮이 익은 그 운전사였다. 그들은 승용차문이 열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작별인사를 하시자 내미신 손에 만옥이 매달렸다.

《예구! 이렇게 가시나요!》

그분께서는 농사 잘 짓고 공부 잘하라고 거듭 부

탁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글을 몰라가지구는 나라의 주인노릇을 못해요.》

그분의 눈길이 만옥의 남편에게 머물자 만옥의 남편은 얼굴이 귀뿌리까지 새빨개졌다. 나라의 주인은 커녕 제집의 주인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남편과 이야기하시는 동안 만옥은 참외를 문이 열린 자동차속에 냉큼 쏟아넣고는 애절하였다.

《가져가시랴요! 내가 보낸다구 얘기들 주시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고맙다 인사하시고 달리는 차안에서 다시 오시겠노라하시며 인사하시는 것이었다. …승용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랑주는 그자리에 주저물려앉았다.

《걱정이 돼서 오셨구려!》

《점심준비락두 미리 좀 할노릇이지!》

어이없이 앉아있던 만옥은 가볍게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럴새가 있은줄 알우? 아침상은 벌려논채로디 흥!》

멍청하니 한참 앉아있다가 그는 중얼거렸다.

《내레 간이 룡알만했다니까…! 당장 또 걸레락두 집어드실것 같아서… 요전처럼말요!》

어지러워진 집안을 차레차레 여겨보시는 눈길이 그러하시었던 것이다.

《그러게 집안을 좀 거뒀.》

《남의 말 하듯하네!》

만옥은 벌떡 일어났다.

《하루 한글자가 아니라 열글자씩 익혀야디! 또 오시게 해서 되갔소? 만나뵈는건 좋지만서두.

당신두 배워야 해요. 남자안요.》

그 말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를 마주보시던 그 눈길이 눈앞에 떠올라 부지런히 앞장서 걸었다.

(글을 빨리 배워내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만옥부부의 형클어지려는 발걸음을 다시 부추겨 곧바로 세워주시었다. 이들은 석달이 지나 세상에 나서 처음 쓰는 첫 편지를 김정숙동지께 올렸다.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남녀평등권법령발표 1주년에는 열정에 넘치는 감사편지를 제손으로 훌륭히 써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릴수 있었다.

온 리를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수범하신 항일투사들의 방식으로 묶어세운 만옥은 리녀맹위원장으로 선거되었으며 공화국의 첫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대안에서는 오늘도 마을에서 들판에서 그날에 김정숙동지께서 만옥에게 가르치신 노래들이 씩씩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만옥이 항일의 녀투사들의 본을 받아 해방된 녀성들의 보람찬 생활과 기쁨을 제손으로 지어부른 노래가 옥토벌로 공장으로 일러가는 새시대 녀성들의 발구름소리와 함께 울려 퍼

지고있다.

《항일투쟁의 불길속에서 생겨난 노래들예요. 우리한테 투쟁속에서 태어난 이 노래들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시던 그날의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그 노래들과 함께 그들의 귀에는 오늘날도 쟁쟁히 남아있다.

김정숙동지는 진정 특이한분이시였다. 그이를 한번 만나뵈온 사람들은 그 특이한 풍모를 한생을 잊을수 없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걸어오신 짧으나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다시 반복될수 없는 그 고귀한 생애가, 사랑과 열정과 그 무엇으로도 굽힐수 없었던 그 의지, 그 충성, 그 빛나는 예지가 그 눈동자에서 그 음성, 그 말씀 그 행동에서 빛발치고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정숙동지를 잠깐이라도 만나뵈온 모든 사람들속에 김정숙동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계시다.

행복한 주소

김영일

멀고 가까운곳의 벗들이
기쁜 소식 날려올 때면
어디에 가있느냐
편지 한장 없는 네가 야속해
그리운 마음 애타더니

기쁘다, 나의 벗아!
이제 정말 너란말이지
당보에 실린 이 장한 모습-
몇백통의 편지보다 더 반갑구나

박수갈채속에 번진 졸업논문이건만
아직은 그 변론 끝나지 않은듯
화려한 거리 불빛은 연구소뒤에 두고
주소도 알리지 않고 가버렸던
네가 아니냐

어디에 꾸렸는지
알길 없던 너의 보금자리
오늘에야 찾았구나
먼 개발지의 광산합숙
너의 호실 너의 그 주소를

유치원 꽃댕기시절부터
학교도 한학급, 집도 한마을
너와 나 쌍둥이처럼 함께 자랐기에
내 너의 꿈 잘 안다 했건만
몰랐구나 정녕
너의 간절한 소원이 깃든
그 마음의 주소를

아, 수령님 그리도 마음쓰시던
광산골짜기 흐릿한 미광물
수정같은 물이 되어 흐르게 하자고
말없이 바친 너의 그 마음속에
내 찾던 그 숨은 주소가 있었구나

수령님 다시 모시고픈
광산천 푸른 기슭의 향기론 꽃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라고
이름모를 풀잎에 맺힌 이슬
진주구슬이 되라고
너는 바쳤구나, 꿈도 사랑도 청춘시절도

땅속깊이 숨은 보석인양
남몰래 흘린 눈물 옥같은 샘이 되라고
철쭉꽃 곱게 비긴 물가에
산천어 버들치 떼지어 꼬리치라고-
우리 수령님 기쁘시여
보내시는 그 미소로
이 강산 더더욱 밝아지라고!

창가림 화려한 도시의 우리 집만이
부럼없는 삶의 주소가 아니었구나
외진고장 먼곳에 소문없이 살아도
아버이수령님께 기쁨 드릴 때
친애하는 그이 가장 가까운곳에
행복한 주소를 가질수 있었구나

이제는 정말로 변론하였구나 너는
교단앞이 아닌 시대앞에서
당이 바라는곳에
먼저 주소를 정하는 사람만이
당의 품에 참답게 살줄아는 혁명가임을!

기쁘다, 나의 벗아
너는 소식 한번 보내오지 않았어도
소꿉동무들도 우편통신원도
너의 주소를 알길 없었어도
이제는 온 나라가 노래하누나
조국을 빛내인 숨은 영웅의 주소는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다고
우리 지도자동지 알려주신다고

기 발

서봉두

준공식을 앞둔 지부사무소는 온통 꽃과 오색테프에 물든듯하였다.

총련결성 30돐을 맞으며 사지부관하 동포들이 새로 덩실하게 일떠세운 건물이었다.

지부사무소의 옥상우에서는 한쪽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새벽바람을 안고 기운차게 펄럭이고있었다.

그 기발은 사무소가 자리잡고있는 언덕아래에 펼쳐진 번잡한 도시의 그 어느 골목에서도 쉬임없이 항구로 드나드는 여러 나라 짐배들과 려객선들에서도 뵈히 바라보였다.

지부사무소가 탑처럼 우뚝 서있는 등성이우로 70고령의 동포 하나가 나어린 손자의 팔에 이끌리며 천천히 오르고있었다. 새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로인은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앉았는데 알릴듯말듯 한쪽 다리를 걸고있었다.

《야! 우리 나라 기발, 할아버지, 저기서도 공화국기가 휘날려요.》

로인의 손끝에서 재롱을 피우던 손자가 기뻐서 짱충짱충 뛰어올랐다. 손에 들고있던 공화국기를 머리위로 휘저으며 등성이우로 달음질쳤다.

손자의 귀여운 모습을 쫓고있던 로인의 눈길이 푸른 하늘가에서 만사람의 시선을 모으고있는 공화국기발에 가서 멎더니 점차 발걸음이 떠지였다.

갖은 풍상에 씻긴 흰머리 몇오리가 주름간 이마에 드리운채 까딱 움직일줄 몰랐다. 70고개를 넘은 늙은이들에게 고유한 명상적이고 온화한 눈빛은 갑자기 심광처럼 번쩍거렸다. 회억의 눈물이 눈굽에 평하니 감돌았다.

...

1948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봉기는 항구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나이가 서른 두셋쯤 되어보이는 키가 격두룩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사나이였다. 차거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항구에는 미국군함 세척이 뚝뚝한 배때기를 불이고 우중충하게 늘어서있었는데 하늘가로 쭉 내뻗친 포신들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 육중한 포신아래로 일본의 항구도시가 숨 곁어진 뱀처럼 거무스레하게 누워있었다.

해풍에 삭고 비에 젖어 얼룩덜룩해진 창고벽체들 사이로 얼마쯤 가니 좁고 어둡시근한 골목이 나졌다.

유곽, 술집, 판스홀, 음식점, 빠짱꼬, 가게방들이 골목 양쪽에 어깨를 비비며 끼여서있었다. 저마다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조잡하게 장식한 간판들을 떠이고 아귀다툼을 하고있었다. 도깨리눈깔 같이 빨강고 파란 색등들이 번뜩거리고있는 판스홀안에서는 해병복을 입은 미군놈들과 어깨를 드러낸 일본 기생들이 서로 맞붙들고 돌아가며 춤판을 벌리고있었다. 이따금 짐승이 울부짖는것 같은 광기어린 웨침소리가 그안에서 울려나왔다. 그 웨침소리는 음침한 골목안에 살벌한 기운을 끼얹곤하였다.

썩은 물이 즐벌하게 고인 도랑에서는 비바람에 찢어진 광고조박들과 먹다버린 미국제통줄임통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미역을 감고있었다.

모든것이 썩고 병든것 같았다. 역하고 징그러운것이 금시 덮쳐들것 같은 아짜아짜한 생각이 들었다.

진종일 맞은 비에 옷이 폭 젖은 봉기는 으스스 어깨를 떨더니 얼굴을 찌프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길, 무슨놈의 비가 그친줄을 모르구 종일 쫓아다니면서 성화를 먹어.》

비바람을 등지고 돌아서서 젖은 앞자락을 헤집고 가슴속을 더듬어보았다. 따스한 체온속에 지름종이에 싼 부근부근한것이 손끝에 알리였다.

봉기가 이웃 동포부락을 며칠간 돌아다니면서 힘들어 구해오는 공화국기발이었다. 며칠후에 있게되는 공화국창건경축대회때에 날릴 기발을 만들려고 가져가는것이였다. 이따금 몸을 웅송그린 일부 사람들이 계다짜으로 금강 콘크리트바닥을 딸그락 딸그락 울리며 지나갔다. 그들을 흘끔 결눈질해보던 봉기는 가슴을 더 썩 버그리고 골목이 좁다하게 네활개를 치며 걸었다. 인젠 땅만 내려다보며 걷던 이전의 봉기는 아닌것이다.

이윽고 뽕안 비발속으로 나지막한 등성이에 자리잡고있는 동포부락이 바라보였다.

해방후에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이 바다기슭에 모여들었던 동포들이 주저앉은 마을이었다. 아직은 생활터전이 빈약하고 모두가 구차한 살림에 쪼들리고있었지만 그곳으로부터는 이름할수 없는 따듯한것이 풍겨왔다. 우리 나라 기발을 만든다면서 며칠전부터 서두르던 안해며 동리사람들의 정다운 얼굴들이 얼씬거리였다.

(내가 공화국기발을 가지고오기를 눈이 빠지게들 기다리고있을테지.)

봉기는 빙긋이 웃더니 기발이 들어있는 가슴앞자락을 꼭꼭 눌러보며 더욱 걸음을 다우쳤다.

그러던 봉기가 등성이에 채못미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산산 무슨 산 높이 솟은 백두산,
강강 무슨 강 굽어치는 압록강…》

동포아이들의 랑랑한 글읽는 소리가 들렸던것이다.

봉기는 불편으로 줄줄 흐르는 비물을 성가신듯 뺨 그어던지고는 고철장사를 하는 성만이가 흰 쇠불이를 모아두군하는 창고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당쪽으로 난 좁은 피창에 다가붙어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이영짬으로 습새여든 비물이 첫둥첫둥 떨어지는 창고안 흙바닥에 스무나문명의 동포아이들이 책을 퍼들고 짹을 지어 앉아있었다. 조선아이들의 림시 교실인셈이다.

널쪽 세일을 무어만든 밥상만한 칠판앞에는 몸집이 작고 오돌차게 생긴 근호가 서있었다. 칠판에 백묵으로 써놓은 글자들을 가느다란 막대기로 짚어가며 선창을 먹이였다.

그러면 눈알을 포릿포릿 굴리며 칠판을 바라보던 아이들이 서로 목청을 뽑으며 받아외웠다.

다시 선창을 먹이려던 근호가 피창에서 기웃거리러는 봉기를 보고 켜길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기발을 가져왔나?》 하고 물었다.

《응, 가져왔네.》

《어디 좀 보자구!》

봉기는 처마밑으로 바투 들어서며 품안에서 유지로 차곡차곡 싼 공화국기발을 꺼내 근호에게 내보였다. 근호는 기발에 눈그루를 박고 얼마동안 묵묵히 있더니 누가 붙잡을새도 없이 뿌르르 교실로 들어갔다.

봉기가 《와!》 하는 아이들의 환성소리에 다시 피창으로 교실안을 들여다보니 근호가 칠판에 공화국기발을 옮겨그리고있었다. 아이들의 학습장에도 공화국기발이 그대로 옮겨지고있었다. 순진하고 깨끗한 가슴들에 조국이 안겨지는 순간이었다. 봉기는 마음이 똥똥 뚫었다.

그는 흐뭇함을 어찌지 못해 서성대다가 기율사해 보이는 《조선학교》라고 쓴 널패쪽을 좀더 바로 잡아놓느라고 공연히 애를 썼다.

봉기가 자기 집에 들어서자 바느질도구를 벌려놓고 한창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동리아낙네들이 황급히 자리를 비켜앉았다.

《아이, 인제야 오시네.》

《기발을 가져왔을가요?》

《저걸 어찌나 옷이 폭 젖어서.》

서로 소곤거리며 궁금한 눈길로 봉기를 올려다보는 너인들의 얼굴에는 우리 나라 기발을 보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어려있었다.

안해가 머리에 쓰고있던 수건을 벗겨주며 물었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가져왔어.》

봉기는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쓱쓱 비비며 대답하고는 품속에서 공화국기발을 조심히 꺼내놓았다. 옷목에 비켜앉았던 아낙네들이 무릎걸음을 치며 기발앞으로 다가앉았다.

《아이, 이것이 우리 나라 기발인가요!》

《참, 굵기도 하네.》

저마다 감탄하며 한마디씩 하였다.

봉기는 기발에 눈길을 모으고있는 동리너인들에게 기발에 담겨져있는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너인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존경과 믿음이 어린 눈으로 봉기를 바라보았다. 봉기는 자기 목소리가 전에없이 무게있고 정중하게 울리는데 스스로 놀라면서 기발에 담긴 뜻을 력설하였다.

그는 너인들이 기발마름질을 시작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다른 수상한 기미가 없는가 접근처를 돌아보려는것이였다. 비는 여전히 줄금줄금 내렸다.

《여보…》

안해가 따라나서며 나직이 불렀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집은듯 웃는다.

《안예요. 뻘어요…》

《?》

《저 어쩐지 오늘은 당신이 판사람처럼 보여서…
참 보는이처럼.》

《건 또 무슨 소리요?》

《당신은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한것 같아요. 무언가 높아보이구…》

《별소리 다하는군, 이 봉기야 여전히 봉기지.》

곽봉기는 떠오르는 웃음을 감추며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동리를 한바퀴 돌아보고 집으로 오니 방안이 그득하게 붉은천, 흰천, 푸른천을 말구어서 퍼놓은것이 제법 기발이 다 된것 같았다. 그사이 아낙네들의 수효도 몇이 더 불었다.

《아주버니, 이만하면 되겠나요?》

성미가 팔팔한 성만이처가 봉기를 쳐다보며 물었다. 봉기는 천장에 꼭 닿게 번치고 서서 한참 기발의 크기를 가늠해보았다.

새 민주조선의 방방곡곡에 펼쳐지고있는 꿈같은 생활이 그 기발속에 보이는것 같았다.

《뭘직하웁니다.》

봉기는 이렇게 결론은 하였지만 기발을 좀더 크게 만들지 못하는것이 마음에 걸렸다. 생각같아서는 방안이 아니라 온 마당이 그들먹하게 아니 온 천하가 그들먹하게 공화국기발을 만들고싶었다.

봉기는 옷방으로 올라가 대회장에 내걸 구호를 쓸 차비를 하였다. 근호가 학교일을 마친다음 봉기네 집으로 오도록 이미 약속이 되었던것이다.

근호와 함께 한참 구호를 써나가는데 기발을 만

드는 아래방녀인들속에서는 철사이없이 소곤거리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주시었다는 이야기, 고향에 가서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싣것 지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이야기, 공화국에선 남녀평등권이 되어 녀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기를 펴고 살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

이야기는 끝이 없이 번져갔다. 녀인들은 이야기에 팔려 옷방에 있는 봉기네를 까맣게 잊고있는것 같았다. 소곤거리던 말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새애기네 집에서 우리 나라 기발을 만든다면 서?》

칠순이 다 된 영아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에그, 감기들리면 어쩔려구요, 차거운 비를 맞으면서 …》

봉기 안해가 늙은이를 맞아들이는것 같았다.

이 일을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나무람쓰는 할머니의 말소리에 뒤이어 《이것이 우리 나라 기발인가?》 하고 묻는 소리가 났다.

기발에 대해 설명해주는 봉기안해의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 응, 그렇구만, … 후유, 제나라가 섰으니 이 제사 버림받던 우리도 살구났구만, 엉…》

늙은이는 갑자기 껍껍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녀인들이 꺼묻혀서 쿨쩍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이야기는 다시 활기를 띠며 이어졌다. 나라가 제일 귀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영아할머니의 과거지사도 간간히 끼여들곤하였다.

《…한밤중에 시체무지를 헤집으며 반정신이 나가서 돌아가는데 〈경방단〉의 쇠몽치에 골이 깨지고 죽창에 아래배를 찢리운 우리 령감이 글썽 개바닥 한쪽에 숨을 거두고 누워있는게 아닝기요.

눈앞이 아득하더구마.

나라가 없어서 이 지경을 당했구나 생각하니 너무도 원통해서 가슴이 터질것 같구,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소할곳이 없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앞일만 걱정되더랑이.

담박에 목숨을 버리자는 생각이 왜 안들었겠능기요. 그러재도 남의 집에 맡겨둔 어린 자식들이 걱정돼서 그러지두 못하겠구, 그저 날이 흰하게 밝을 때까지 새까맣게 타는 가슴을 안구 숨 끊어진 령감결에 앉아있더라이, 그런데 영아아비를 맡겨둔 집 늙은이가 나를 찾아 강가로 나왔더구마. …

참 기막힌 세상이였지.

내사 오늘 우리 나라 기발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구 오늘 처음으로 기분이 떠서 이렇게 왔당이 …》

봉기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알을 스쳤다. 그렇다. 그것은 목숨이 붙어있어도 생이 아니었다.

…봉기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응석둥이 외아들로 뼈아픈 고생을 그닥 모르고 자랐었다. 그러던 그가 열세살에 잡혀들던 어느해 이른봄날이었다. 이날 봉기는 혼자 들에 나갔다가 갑작스레 달려드는 낮모를 사람들에게 붙들리었다.

인부모집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방방곡곡을 짜다니며 사람잡이를 일삼던 왜놈들이었다.

봉기는 그길로 화물차에 실린 다음에는 어머니에게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일본의 어느 구석진 탄광으로 끌려왔었다.

그때부터 봉기는 어깨를 파고드는 무거운 석탄짐을 지고 무덤고 비좁은 굴간을 무릎이 닳도록 기여다녀야 하였다. 어린 등어리에 찍하면 감독놈의 채찍이 휘감기곤하였다.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를 무서운 고역이었다. 그 모든 고통가운데서도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은 배고픔이었다. 돌을 먹어도 삭인다는 한창 나이에 매일 16시간씩 강요되는 탄광일은 밥을 함지로 먹어도 해내기 어려웠지만 봉기에게 차례지는것이란 하루 세공기의 대두박섞인 좁쌀밥과 다꾸앙 서너쪽 소금물뿐이었다.

밥이 그림고 숟가락을 놓기가 아쉬울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환한 달처럼 떠오르곤하였다. 봉기가 밥이 적은 눈치를 보일 때마다 자기 몫을 덜어주며 배고프겠다고 걱정해주던 어머니가 더 그리워났다. 봉기는 일을 하다가도 참을수 없이 배가 고플 때면 석탄덩이를 집어들고 굴간 돌벽에다 《엄마 배고파》라고 써보곤하였다. 그것은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는 철부지소년의 애라는 울부짖음이었으며 저주로운 세상에 대한 끝없는 원망과 반항이었다.

그때 봉기는 눈물이 헤렸다. 배가 고파도 울고 힘이 들어도 울고 어머니가 그리워서도 울었다.

함바의 누대기이불밑에서 쿨쩍거리다가 동료들의 지청구를 듣는 때도 많았다.

허나 점차 커가면서 봉기는 눈물을 몰랐다. 철이 들면서는 일본놈들에게 수모받는 마음고생을 알게 되었고 그 아픔이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가슴을 찢는 아픔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10대로부터 20대를 넘어 30대를 바라보게 되자 봉기는 모습도 성격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연약하고 울음 많던 철부지소년이 쇠알처럼 땅땀한 힘살이 박힌 허우대 큰 체구에 울컥하면 건잡기 힘든 성미를 가진 사나이로 변했다.

그 성미때문에 봉기는 땅개처럼 키가 작은 세모눈이 일본감독놈과 다툰적도 여러번 있었다. 남보다 채찍맛을 더 많이 보게 된것도 그래서였다.

그러나 봉기는 채찍따위에는 아랑곳도 않고 더 뻗뻗이 굴었다.

그럴수록 톡토프르하 배때기에 악만 가득찬 감독놈은 봉기를 어찌지 못해 이를 박박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탄광에서는 몇명의 조선인

로동자들이 불시에 종적을 감춘 사건이 생겼다.
 이때라고 생각한 감독놈은 봉기에게 그들의 탈출을 협력하였다는 《죄》를 넘겨씌우고 로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기를 고문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가는 철사로 심지를 해꿨은 가죽채찍으로, 다음엔 격검채로, 나중에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사정없이 치고 지치고 하였다. 봉기의 이마에서 터진 선지피가 부릅뜬 눈등으로 줄기를 그으며 흘렀다. 생살타는 냄새가 로동자들에게까지 끼쳐왔다. 그러나 봉기의 딱 다문 입에서는 신음소리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았다.

로동자들의 직의에 찬 눈길에 피잡박이 된 봉기 앞에서 패재를 부르는 감독놈에게 쏘였다.

로동자들은 파업을 일으켰다. 일본경찰이 탄광을 봉쇄하고 밤포를 하며 사람사냥을 시작했다. 류혈참극이 벌어졌다. 파업에 앞장섰던 봉기는 쇠고랑에 묶여 차디찬 감방속에 갇히었다. 가슴이 빠개질 듯 터져오르는 울분과 하소연을 쏟아놓고싶었다.

봉기는 수갑이 죄여드는 두팔을 들고 감방벽으로 다가갔다.

《엄마 배고파.》

어릴적의 설음이 새겨졌던 갱벽의 글발이 눈앞에 떠올랐다.

봉기는 무언가를 새기려고 쳐들었던 수갑의 예리한 모서리를 천천히 내리웠다.

그렇다, 가슴속의 상처를 부드러운 손길로 쓸어주고 하소연을 알아줄 어머니는 이미 무주고혼이 된 것이었다. 봉기의 괴팍한 원한을 풀어주고 힘을 줄 그리운 품이 그에게는 없었다.

봉기는 거치른 감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사나이의 울음을 터뜨렸다. 애잔하고 가엾은 철부지의 눈물과는 영영 결별한듯싶은 그였다. 창자가 끊어질 듯 터지는 통곡소리는 차디찬 감방벽에 부딪쳐 산산이 흩어지고말았다. ...

쓰라린 추억에서 깨어난 봉기는 후우 긴숨을 내쉬었다. 그는 래일을 생각하며 빙긋 웃었다.

그렇다. 그는 이제 웃을수 있었다. 겨드랑이엔 불시에 나래가 돋친듯했다. 시커먼 나락에서 날아나온것만 같다. 오늘은 갑자기 거인이 된것 같은 심정이었다.

공화국창건경축대회날이 박두해움에 따라 봉기는 대회장을 꾸릴때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소식을 전해줄래 잠시도 눈코뜰사이가 없었다. 학생들은 경축연예회준비사업을 도와달라고 봉기를 찾았고 경축운동회를 앞두고 그 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마을청년들은 씨름연습에 나오라고 성화를 먹였다.

어느날 봉기는 경축대회장으로 정한 학교앞 공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술문을 세우느라고 한창 법시대고있었다. 그런데 근호가 어디에 갔다가 씨근덕거리며 달려왔다.

《여보게 봉기, 어서 내려오라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봉기를 찾았다.

《왜 그리 덤벼치나.》

근호의 덤비는 성미를 아는 봉기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뜨직이 말했다.

《소식 들었나?》

봉기가 득장을 부리는게 안타까와서 근호는 쩡쩡한 음성으로 쏘아붙이듯이 물었다.

《소식은 무슨 소식?》

《아, 미군정에서 포고문을 낸것말이야.》

《뭘, 포고문?!》

그때야 봉기는 새로 골라들었던 술가지를 휘 던지고 덕대우에서 닝큼 뛰어내렸다.

《차, 그것두 모르구 여기서 득장만 부리다니...》

근호는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푸념부터 앞세웠다.

《좀 덤비지 말구 차근차근 말하게나.》

한창 성수가 나서 돌아치던 청년들이 근호옆으로 모여들었다.

근호는 바지뒤주머니에서 네귀가 찢어진 종이장을 서둘러 끄집어내가지고 읽기 시작하였다.

《...복조선국기 또는 그를 표시하는 삐라는 일체 게시하는것을 금지...》

근호가 읽고있는 포고문을 봉기가 와락 나꿔채들더니 떠들거리며 마저 읽었다.

《...위반할 때에는 미점령군의 군사재판에 걸여 엄중히 처벌한다. ... 개새끼덜.》

봉기는 악마디진 손으로 포고문을 와락와락 구겨서 발치에 던져버렸다.

청년들이 분을 삭이지 못해서 씨근덕거렸다.

《도대체 미국놈들이 뭘길래 우리 일에 간참이야.》

《그럼 경축대회때에 공화국기발을 못거는게 아니야요?!》

《못걸기는 왜 못걸어! 자기 나라 기발을 못건다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어.》

《흥, 죽일놈들, 우리 공화국기발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

황소숨을 쉬던 봉기가 툭 내쏘고는 다시 일손을 잡았다.

드디어 경축대회날이 왔다.

우리 동포집들이 밀집되어있는 등성이밀 공지로는 이른아침부터 사람들이 하얗게 밀려들었다.

백리가 넘는 먼 산골에서 외파로 살다가 점심밥을 싸가지고 오는 동포들도 있었다.

만세소리, 북소리, 징소리, 쩡파리소리가 천지를 진감하였다. 여기저기서 출판들이 벌어졌다.

남너로소가 한데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가는 가운데는 빈석유초롱을 두들기며 어깨춤을 추고있는 사람도 보였다.

해안을 끼고있는탓에 늘 끈적끈적한 안개에 휩싸여있으면서 어느 하루도 번듯하게 해가 나는 날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하늘이 말끔히 개여 구름 한점 없었다.

술문우에 꽃아놓은 오색기가 파아란 하늘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붕기네 집에서 쓴 구호가 주석단 량옆에 길게 드리워져있었다.

동터오는 새벽빛속에서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 《영광스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쓴 글발이 우렁이 안겨왔다. 동포들의 마음처럼 희고 깨끗한 광목필우에서 금방 튀어나올듯이 용을 쓰는 이 글발은 공화국기발아래 새로 태어난 재일동포들의 씩씩한 웨침이었다.

붕기는 대회장을 분주히 돌아치며 날과람있어보이는 청년들에게 무어라고 수군수군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부리부리한 눈을 굴리며 낯선 사람들을 미심쩍게 훑어보기도 하였다.

간밤에 붕기는 반동들의 준동으로부터 대회장을 보위할 책임을 맡은것이였다.

아침 해가 등식 솟아올랐다.

사회자가 연단에 나서서 개회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학생취주악대가 애국가의 주악을 울리고 대회장가운데 세운 국기계양대로는 붕기네가 만든 공화국기발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주위에는 폭풍같은 환성이 울렸다. 바다기슭의 물새들이 무리를 지어 창공을 날았다.

동포들은 하늘높이 오르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뜨거운 눈언저리를 팔굽으로 훑치었다.

붕기는 불몽치가 목구멍에 걸린듯 껍적하며 강영히 눈물을 삼켰다.

공화국기발은 장대끝에 닿자 해안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창건경축대회 보고가 있었고 지역대표, 청년대표, 녀맹대표, 학생소년대표가 토론을 하였다.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위주신 새민주조선을 튼튼히 지켜나가자고 우리 동포들, 우리 청년들, 우리 녀성들, 우리 소년들이 공화국의 룡성발전에 헌신분투해나서자고 열변을 토했다.

이때 주위를 살피던 붕기의 눈길에 갑자기 굳어졌다. 마을둔덕우에서 까마귀나래같이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 몇놈이 얼씬거리더니 뒤미처 일본경찰놈들이 시꺼멓게 무리를 지어 언덕밑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경찰놈들이 온다 !》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다. 대회장은 물끓듯 요란해졌다.

경찰놈들이 대회장을 둘러쌌다.

청장년들, 부녀자들, 늙은이들, 어린 소년들이 공화국기발이 휘날리고있는 장대주위로 밀려들었다. 무기로 침묵속에서 팔들을 결고 성벽처럼 경찰놈들

을 막아섰다. 붕기는 청년들과 어깨를 결고 맨앞에 똑 뻗치고 서서 기발주위에 밀집해 서있는 동포들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안해, 근호, 성만이, 영아, 영아 할머니 그리고 또 누구누구... 낯익은 얼굴들이 그속에 있었다.

코허리가 시큰하면서 가슴이 확 뜨거워났다.

그들과 같이라면 죽음도 무섭지 않을것 같았다.

얼마동안 침묵이 흘렀다. 량편이 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 노려보기만하였다.

경찰놈들 뒤로 돌아치던 우두머리인듯싶은놈이 한발 나서서 《기발을 내려라 !》 하고 껍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놈은 눈에 피기를 울리며 누가 기발을 걸었는가고 다시금 새된 소리를 질렀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왜, 우리 기발 걸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맞대꾸질을 시작하였다.

《미군정포고문 못봤어 ?》

《봤다. 그런데 너흰 웬 간참이야, 미군정의 삽살개냐?》

말문이 막힌놈은 한동안 어리뻑해 서있었다.

대꾸질을 하던 사람이 호방스럽게 꺾꺾 웃었다. 몇몇 청년들도 따라웃었다. 그 웃음은 통쾌함을 이기지 못해하는 여유있는 웃음이었다.

당황해진놈은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내들더니 빼-엑 빼-엑 불어대었다. 하더니 서장놈은 경찰놈들에게 기발을 내리우라고 호통을 뽑았다. 체놈들의 손으로라도 기어코 기발을 내리우려는것이였다. 경찰놈들이 욱 달려들었다.

힘꼴이나 쓰는 청년들이 히힃 코방귀를 꺾며 놈들이 뿔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체소한 경찰 한놈이 곤봉을 휘두르며 붕기에게 달려들었다.

《이놈이 엇다 감히 손을 댈려구.》

붕기는 놈의 덜미를 움켜쥐고 가볍게 내던져버렸다. 밀치락뒤치락 한동안 격투가 계속되였다.

자욱한 먼지구름속에서 영아 할머니의 모습이 피곳 보였다.

동포들의 한복판에 백발을 날리며 거연히 서있는 할머니는 자기를 의식한 새 인간의 거룩한 모습이였다.

《우리 가발을 지키자 !》

여기저기서 웨침소리, 신음소리가 들렸다.

경찰우두머리놈이 권총을 뽑아들고 격반기를 절격거리였다.

피비린내를 예고하는 섬찍한 정적이 한순간 물결쳐갔다.

《기발을 내 리우라 !》

경찰놈의 살기띤 목소리였다.

붕기는 자기를 겨누는 총구에서 노란 총알을 보는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주춤하던 두발을 든

히 번디었다.

한발자국 뒤에는 지금껏 애타게 찾던 소중한 래일이, 새삶의 전부가 있었다. 조국의 기발이 있었다 ! 한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잃는다면 이전의 암흑세계로 되돌아갈것이다. 새로 얻은 생은 그것으로 파멸이다 ! ...

《공화국기발은 내리울수 없다 ! 백번 죽여봐라...》

봉기의 목에는 피줄이 뻗쳐올랐다.

봉기는 숯불처럼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적들을 노려보며 주저없이 한걸음 내디었다.

협상국게 쩡그린 원수의 상통들이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살기차게 번뜩거리던 검은 총구에서 솟음치같은것이 폴썩 일어나는것이 보이다가 점차 희미해졌다.

《안된다... 어렵도 없다...》

비칠거리며 중얼거리던 봉기가 몇발자국만에 폭-쓰러졌다.

《우리 동포가 총에 맞았다 !》

동포들은 성난 파도처럼 울부짖으며 경찰놈들에게 덮쳐들었다.

《기발을... 저 기발을...》

봉기는 자기를 부축하는 근호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공화국기발은 여전히 창공높이 휘날리고있었다...

봉기는 두런두런하는 말소리를 꿈결에서처럼 들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을음이 앉은 꺼먼 천정을 배경으로 안해의 얼굴이 뿌잇하게 떠올랐다.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누만.》

《요행 뼈를 다치지 않았으니 인차 회복될거웨다.》

봉기는 소리나는쪽을 돌아보았다. 근호, 성만이 그리고 위생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둘러앉은것이 보였다.

봉기는 한쪽 허벅다리가 뜨끔거리 얼굴을 찌프렸다.

《몹시 아픈가?》

근호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봉기는 힘겹게 머리를 저었다. 안해가 꿀물을 두어술갈 입에 떠넣어주었다.

《기발은 어떻게 됐나?》

《다 잘됐네, 끝끝내 지켜냈지 ! 하루종일 띄웠네. 온 세상이 바라하구...》

근호가 눈을 습벅이며 말했다.

안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버들고리작밧에서 차곡차곡 접이 간수했던 공화국기발을 꺼내가지고 왔다. 기발을 봉기의 가슴에 조심히 안겨주었다.

봉기네 집에서 녀인들이 만든 기발이었다. 경축대회장 높이 휘날리면서 동포들에게 조국의 녀름을 안겨주던 그 기발이었다.

봉기는 피로써 지켜낸 공화국기발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쓸었다.

눈물이 그렇게서 그것을 바라보던 근호가 봉기옆으로 다가앉으며 말하였다.

《어제저녁에 평양방송국에서는 우리 재일동포들의 국기계양투쟁을 지지성원하는 방송을 하였네. 조국에서는 우리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면서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칠것을 호소하였네 ...》

봉기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있는듯싶었다.

《...평양방송은 미일반동들이 아무러한 리유와 근거도 없이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아 나서고있는것을 준렬히 규탄하였다네. 특히 탄압에 동원된 일본경찰이 총을 란사하여 우리 동포들을 부상시킨 만행을 세계면전에 날날이 폭로하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것을 일본당국에 엄중히 경고하였네...》

봉기는 후들거리리는 손으로 가슴에 안겨진 기폭을 감싸안았다. 따스한 온기가 온몸에 느껴졌다. 그는 목메여 부르며 찾던 그품에 안긴것이였다. 위대한 어머니의 후더운 온기가 억센 사나이의 심장에 찌르르 흘러들었다.

봉기는 난생처음으로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앞에 떳떳이 웃음지울수 있는 아들만이 맛볼수 있는 그런 감정이였다. 그는 눈굽이 따끔거리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물은 막을길이 없었다.

그렇다. 광봉기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공화국기발과 함께 새로 태어난 자기를 키친것이였다.

...

《할아버지, 빨리 가자요. 준공식이 시작되겠어요.》

손자녀석이 손을 잡아끌며 재촉하는바람에 봉기 로인은 회상에서 깨어나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손자녀석이 문득 손을 늦추며 의아한 눈으로 뵈히 올려다보았다. 입술을 실룩거리며 울상을 짓더니 물었다.

《할아버지두 우나요?》

그때야 자기의 눈귀가 착착한것을 느낀 로인은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찍었다.

《허허, 녀석두, 기쁜일을 당하면 할아버지도 울군한다.》

손자녀석은 안심이 가는듯 썰쭉 웃더니 로인의 손을 더 힘껏 언덕쪽으로 내끌었다.

어린 아이의 작은 손에는 공화국기가 꼭 쥐여져 바람에 나뭇기고있었다.

목장시초

구희철

못잇을 그 밤

정말 뜻박이었어요
눈보라치던 겨울
아버이수령님께서 깊은 밤에
우리 목장 찾아오실 줄

글쎄 날더러
지배인도 기사장도 없으니
내가 이 목장의 밤주인이라
웃으시며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나에게 착유량을
하나하나 묻기도 하시고
수원들과 의논도 하시고
때로는 종이우에 계산도 해보시며

창밖엔 눈보라소리
창가엔 하얗게 불린 성에
그래서 수원들은
승용차의 담요로 창을 덧가리고...

진달래망울을 발가우리 터치던
그 봄날에 나는 다 알았어요
그 추운 겨울밤

수령님 오셨던 그 사연을

하얀 버들개지 꺾어 들고
학교에서 돌아온 내 동생이
기쁨에 겨워 말하지 않겠어요
-누나야 우린 오늘부터
학교에서 우유를 먹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 휘저어놓을 줄이야
찬 겨울밤 나에게 물으시고
오래도록 계산하신 것이
온 나라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량이었음을

나는 생각했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우리 수령님 큰일하시는데
보탬으로 된다는 것을...

아, 언제나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눈보라치는 찬 겨울밤같이
간고하고 남모르는 그런 시각에
늘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해 저물녘

젓소들 긴 그림자 목장길에 앞세우고
방목갔다 돌아오던 해질무렵
노을어린 목장길 어귀에서
놀라 벗어섰네 멈추어섰네

방목지에서 돌아오는
젓소들의 먼 영각소리를 들으신 수령님
차소리를 들으면 젓소들이 놀란다고
방목공 우리를 기다려주실 줄이야

어느 풀판에서 오는지 모르실 텐데
언제 들어설 줄도 모르실 텐데

방목공 우리를 만나보고 가자고
떠나자던 차까지 세우실 줄이야

긴 꼬리로 휘휘 바람일구며
영각소리 앞세우고 들어서는
배부른 젓소무리 대견해하시며
우리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실 줄이야

아, 꿈같은 일이어서 꿈만 같아서
젓소들은 목장으로 멈춤없이 가도
우리의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네
수령님 가시는 길 오래오래 바라보며...

《한심하대요》

방목공 젊은이 젓소 몰고 방목갈 때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만하여도
착유공 처녀는 나무라면서
젓소들이 놀란다고 《한심하대요》

젓소등을 윤이 나게 손질해줄 때
조금만 힘을 주어 쓸어주어도
착유공 처녀는 웃음지으며
일숨씨가 거칠다고 《한심하대요》

젓소꼬리 동여놓고 우유를 짤 때
신이 나서 휘파람 불기만해도

더우면 밖에 나가 어서 불라고
등을 밀어보내며 《한심하대요》

베여논 청사로 한아름 안고갈 때
욕심많은 처녀라고 한마디만 해도
착유공 처녀는 눈을 살짝 흘기며
어디 가나 성화라고 《한심하대요》

해저물녘 나란히 집으로 갈 때
마음속에 감춘 말 한마디 했더니
착유공 처녀는 랑를 붉히며
롱말을 또 한다고 《한심하대요》

처녀들이 날아온다

먼 들끝으로 사라진 길우에
새무리인듯 까만점들이 움직이더니
웃음소리를 앞세우고
축산학교 갓 졸업한 처녀들이 온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이맘 때면
새싹이 움트고 꽃이 필 때면
희망에 부푼 마음안은 단발머리들
날개처럼 옷자락 날리며 찾아온다

목장사무실은 주인없이 비였는데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전화종소리
처마가에 집짓느라 분주한 제비들만
주인인듯 맞다가 놀라서 날아가네

어서 전화를 받으렴
이제는 너희들이 주인이 될텐데
제비들도 너희들이 낫설어
저렇게 날아나는게지

낮선고장, 낯선 사람이라도
그 나이 땐 한참이면 사귄
들랑날랑 날으는 제비들처럼
너희들 발길에 밟아야 할 목장문턱이다
오, 제비들은 한두칠 살다 떠나고
제비들은 제살던곳 버리고 가지만
너희들 마음 깃들일곳은 예 아니냐
영원한 삶의 새 보금자리가...

정

빛다른 음식이 있으면
먼곳의 자식을 먼저 생각해
그 친아버이 정이
늘 닿아있어

새 영화가 나와도 먼저
좋은 착유기를 만들어도 먼저
랭동차가 생겨도 먼저
제일먼저 무엇이나 와닿는 목장

어제는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시고
오늘은 친애하는 그이 다녀가신 길
길은 사랑에 이어져오고
마음은 그 길따라 충성이 되어가고

아, 그래서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그 사랑은 먼곳이 따로 없나보다
그 은정은 먼 사람이 따로 없나보다.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합평회를 많이 조직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합평회에는 로동자, 농민, 학생들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본 편집부에서는 얼마전에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서평양기관차대에 나가 독자모임을 진행하였다. 독자모임에는 영웅기관사 림영호동무를 비롯하여 기관사들과 기관조사들 그리고 로동통신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잡지 **《조선문학》**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되였다.

특히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이곳 수송전사들속에서는 앞으로 철도부문일군들의 투쟁을 형상한 소설과 시를 비롯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해 줄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춘의 열정을 안고 전시수송에 펼쳐나섰던 기관사 한광희동무는 전쟁시기 한목숨 다바쳐 싸운 철도부문일군들의 영웅적위훈을 그린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한다면 수송전사들의 가슴속에 크나큰 힘과 고무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전선과 잇닿은 두줄기 궤도우에 청춘도 생명의 다바쳐 싸운 철도일군들의 전신투쟁을 그린 작품들은 불타는 강도 건너고 진펄도 헤쳐나갈 만만한 투지를 안고 오늘도 수송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수송전사들에게 있어서 투쟁의 교과서로, 무기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5.18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에 펼쳐나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기관사 김영도동무와 기관조사 김정철동무는 충성의 궤도우에 청춘의 희망을 꽃피워가는 수송전사들의 자랑스런 로력투쟁을 형상한 소설과 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고대하고있다 고 하였다.

설비점검을 잘하여 군대의 무기처럼 기관차를 노동자와 같이 다루는 정신과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배우고 경험을 부단히 축적하기 위해 애쓰는 기풍, 헌량의 집이라도 더 끌기 위하여 애쓰는 숨은 노력 등을 작품에 형상한다면 생활의 좋은 길동무가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이곳 수송전사들속에서 일어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작품창작에 구현함으로써 혁명적작품들을 더 활발히 편집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본 편집부에서는 독자모임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작하여 전시수송에 펼쳐나섰던 철도부문 일군들이 영웅적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세워나가는 수송전사들의 창조적로동을 형상한 소설, 시 작품들을 비롯하여 수필, 실화문학 등 다양한 종류의 산문들을 편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포연을 뿜고 전선에 탄약을 나르던 전화의 날에 용솟음치던 그 기백으로 오늘도 나라의 동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수송전사들의 창조적투쟁을 고무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기대한다.

편집부

기적소리

자다가도 한 밤중 기적소리에
집집의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린다

꿈같은 상봉에 울고 웃는것은
오랜날 그리움에 가슴 타던
이웃집 모녀뿐이라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기다리던 집이 왔다고
온 마을을 소리쳐 부르는
저 소리

공연히 내 가슴
설레이지 않았네
날에 날마다 기쁨을 더해주며
아름찬 행복이 마주오기에

그래서 집집마다
렐차시간표가 있고
잠시도 비운적없는
정거장의 기다림칸이던가

이 마음이 그대로
침묵이 되고

황승명

철길이 되어 떠받든
행복의 꽃수레

아, 우리 수령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당의 믿음으로 언제나
선행관으로 앞서 달리는

렬차의 기적소리여

지금도 가슴뜨겁게
메아리쳐오누나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의 선창처럼
기쁨의 환성처럼

하나의 시간

백의선

달리는 기관차우에서
내 때없이 새겨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손수 시간을 맞춰주신
귀중한 회중시계

그이께서 이 시각도 나를 굽어보시며
가락맞는 차바퀴소리 듣고계시는듯
철길위에 흐르는 모든 시간을
그이께서 순간마다 재여보시는듯

세기를 재며 역사를 이끄는
그이의 거창한 시간이
나의 마음도 나의 무쇠철마도
앞으로 앞으로 이끌어가나니

아,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 이어졌다
흘러가는 초침속에 높이 뛰는
나의 작은 심장의 맥박이
줄줄이 뻗은 조국의 동맥이

푸른 신호등 저기 빛난다
나는 엄숙히 시계를 본다
나의 시간은 정시!
그이의 크나큰 시간과 언제나 하나의 시간!

기관차여 앞으로
나의 삶이여 앞으로
시계는 한초한초 드림없이 재여간다
당중앙에 바치는
내 심장 얼마나 뜨겁게 뛰는가를

사랑의 수평선

리소영

네 끝은 어드메나
해가 솟고 별이 내리는
수평선 수평선
저 멀리-
갈매기 날아에는곳
풍랑헤쳐 달려온 예가
수평선인가 했더니
수평선 수평선은
또다시 저 멀리 아득해지니
네 끝을 두고
생각도 많은 이런 때면
해병의 이 가슴 한없이 부풀어
달려가는 품이 있나니

검푸른 파도우에
폭풍이 휘몰아올 때면
다심한 어머니의 목소리인양

사랑의 전파날려 배길을 열어주고
용맹을 주고 슬기를 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으로

아, 정녕 끝을 몰라라
천리를 가면
천리 배길우에 펼쳐지고
만리를 가면
만리 배길우에 다시 펼쳐지는
그 사랑의 수평선은

파도 일렁이는 수평선아
네 끝은 어드메나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의 수평선은
네 끝에서도 다시 시작되는것이니
아, 그 끝은 정녕 어드메나

백 압 령

강대정

내가 장선동무를 알게 된것은 이곳 백무선의 협궤철길우에서였다.

남설령밑의 마지막 마을에서 떠나 눈에 묻힌 70리 령길을 걸어넘어서 서두수골짜기에 내려서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그였던것이다. 온종일 령길에서 사람그림자도 보지 못하다가 협궤철길에서 일하고있는 그를 보자 무작정 반가웠다. 더구나 나는 이 남설령이 처음인데다 길동무마저 없다보니 사람이 무척 그리웠던것이다.

마침 그가 피워놓은 모닥불이 철길옆에 있었다. 나는 모닥불가에 쌓아놓은 예비침목우에 앉았다. 그도 역시 혼자 철길작업을 하던 참이어서 그랬던지 지나가던 길손을 반기며 일손을 멈추었다. 나는 수부룩한 잉철불에 손을 녹인 다음 그한테 담배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권하는 물주리담배를 부디 사양하며 써레기엿초가 불룩한 씹지끈을 푸는것이였다. 함박눈이 내리는 석양녘의 모닥불가에 막담배를 피우는 구수한 냄새가 떠돌았다. 나는 이번에 백압령의 한 철길원에 대한 취재를 목적으로 길을 떠났던것만큼 이렇게 그를 만난것이 다행스러웠다. 나는 그한테 철길원이란 직업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는 이윽히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자나깨나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게 우리 철길원들이랍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말은 이 철길우로 렬차들이 무사히 지나가는것을 보면…》

그의 얼굴에 공지에 넘친 웃음이 비끼였다.

《철길원으로 일한지 몇해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올해까지 스물다섯해가 됩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마흔이 갓넘었을가 한 나이인데 스물다섯해라니… 그러면 일을 시작하자부터 내내 철길원으로 일했다는 말이 아닌가. 나는 마음이 당겼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곳이긴 해도 내가 찾아가는 백압령의 그 철길원과 면목이 있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로 오기전엔 어데 있었습니까. 혹시 백압령 쪽에서 근무한 일은 없었습니까?》

그는 도리머리를 했다.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자 내내 여기 한구간에서 옮겨본적이 없었습니다.》

긴장되었던 나의 마음이 풀어졌다. 그렇다면 물

어보나마나 내가 찾아가는 백압령의 그 나이 많은 철길원을 장선은 알지 못할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철길소대 휴계실까지 갔다. 철길소대 휴계실은 뜨끈뜨끈한 온돌방이였다. 나는 몸을 녹이며 차시간이 될 때까지 그한테서 퍼그나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과묵한 사람이였다. 그리면서도 그는 나를 자기네 집으로 끄는것이였다. 나는 난처했다. 그의 신세를 지느니보다 온돌방에서 휴식을 하다가 계획대로 취재길을 곧장 가고싶었다. 하지만 그가 하도 진심으로 권하는바람에 나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 대한추위가 올해엔 제맛을 내는군…》

캄캄한 어둠속에서 눈보라가 울부짖고있었다.

나는 문밖에 첫발을 내어놓기가 바쁘게 서둘러 털모자의 귀덮개를 내려놓았다. 그때 무산방향에서 협궤기관차의 새된 기적소리가 얼어붙은 대기를 깨뜨리며 들려왔다. 《응, 너냐?》

결에 서있던 장선이가 누구에겐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는 말에 나는 날려드는 눈가루를 손으로 막으며 그쪽을 얼핏 바라보았다. 방금 도착한 백압행 화물렬차의 차장인듯싶은 사람이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으나 련속 날려드는 눈가루때문에 더는 분간해낼수가 없었다.

《…복계수굽이에 눈이 쌓였겠는데요?》

무척 긴장함을 암시하는듯한 다급한 물음이 있으나 나는 방울을 굴리는듯한 녀자의 목소리에 더 관심이 쏠렸다. 어디선가 나는 저렇게 맑은 목소리를 무척 인상깊게 들은 기억이 있었던것이다.

때마침 렬차의 안쪽으로부터 거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되겠소. 운전지휘원동무, 사령을 불러주시오. 복계수굽이에 눈이 쌓였을것은 뻔한것인데 여기서다 렬차를 대피시킬수밖에 없겠소.》

기관사가 분명했다. 그러나 이때 그 맑은 녀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그들앞에서 울리였다.

《안돼요. 렬차를 대피시키다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만한 눈보라에… 철길원들을 믿어야 해요. 자, 빨리 떠나자요.》

문제는 순식간에 뒤집혀진것 같았다.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 같은 녀자의 목소리에 그 거센 음성 이 단번에 풀이 죽어서 두덜거렸다.

맑은 목소리처럼 시원하게 트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듯도 한 눈이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순간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가 바로 《백무선차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옥이었던것이다.

내가 그를 만나본것은 지난해였다. 그렇게도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말이 적은데다가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것을 즐겨하는 처녀였다.

《아이… 작가선생님이 아니십니까 !》

그도 나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나는 정말 반가웠다. 그를 이 눈보라속에서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것이다.

《잘 있었소? 여전히 수고가 많구만…》

수옥은 얼굴을 활짝 붉혔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

수옥이와 함께 이 통나무열차의 차장차에 탄다면 오늘밤에 려객열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것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수옥이와 이야기도 나누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나도 백암으로 가려던 참이요. 차장차를 함께 타볼가?》 자기 집으로 기어이 끝던 장선철길원의 낮빛이 실망으로 일그러지는것도 무릅쓰고 나는 《백무선차장》에게 말했다.

《대한추위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고생할수 있습니다.》 수옥이가 나를 넘려하는 말이였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나는 장선동무가 옷자락이라도 거머쥐며 놓아주지 않을것 같아 마음이 조였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먼저 차장차에로 걸음을 옮기었다. 장선이와 수옥이만 남은 흠에서 무엇인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가는것 같았지만 눈보라가 그 말소리들을 짱그리 삼켜버렸다.

이윽히 지나서야 나는 수옥이와 함께 차장차에 7다가 온 장선동무에게 다시 꼭 만나자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때마침 열차가 움쭉하더니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X

백무선에서 화물열차 차장을 하려면 난로피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던 수옥의 말을 되새기게 되었다.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추위속에서 달리는 화물열차의 차장칸에 난로마저 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자그마한 난로는 수옥의 세심한 솜씨를 자랑하는듯 빨갛게 달아올라서 방금 쇠물로 되어 차장차에 와락 흘러내리고말것같았다. 그래도 차장차는 밖으로부터 얼어드는 추위를 다는 막아내지 못했다. 나는 잔등이 얼음장처럼 얼어들었지만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대신 난로와 가까운쪽의 무릎과 불은 데어버릴듯 뜨거워 났다.

나는 취재길이 간고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다.

왜냐 하면 수옥이가 눈부시도록 자기의 익숙된 차장생활로 나를 감동시켰던것이다. 그는 저쪽 난로 옆에 조용히 앉은채 카바이드등불을 밝혀 놓고 차장일지를 차곡차곡 정리하여 써나가는데 차가 끊임없이 들추어대는데도 제법 글들을 끝게 써나가는것이였다. 나도 무엇인가 쓰고싶어서 수첩과 연필을 내들었지만 어림도 없었다. 나는 슬그머니 수첩과 연필을 가방속에 집어넣었다. 나는 느닷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한평생 글을 써오면서 언제나 맛보곤 하는 고뇌였지만 지난해에 수옥이에 대하여 쓴 실화문학 역시 이 순간에 나를 괴롭히며 후회를 자아내게 했다. 청장년남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기 힘들어한다는 여기 백무선에서 나어린 처녀로 화물열차 차장을 시작한지 근 10년 가깝도록 사고 한번 없이 매해 수송계획을 제일 선참 해내곤하는 그의 생활은 실화문학으로 서 특색이 있는 글감이였었다. 편집부에서도 물론 좋은 평을 받았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생활을 너무도 모르고 그 실화를 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수옥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늦었지만… 선생님, 그때 그러실줄 알았더라면 아무 말슴도 드리지 말았어야 했을걸 그랬어요. …너무도 한일이 없는 저를 그렇게 잡지에까지 소개하면… 전 어떻게 합니까.》

《아니오. 그땐 〈백무선차장〉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썼소.》

《선생님, 자랑하기보다 언제든지 소중하게 간직하고있는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도 남들처럼 깊은 공지를 가지고…》

수옥의 얼굴은 난로불빛때문인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눈빛을 이윽히 들여다보고있노라니 나의 머리에는 이 백암령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30년전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는 일이였다. 소위였던 나는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동해안 지구의 어느 철도복구대에서 토목기수로 얼마간 복무한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복무하기 시작하여 한달도 못되는데 나에겐 뜻밖의 임무가 차례졌다. 백암령을 넘어 백두밀림속에 있는 한 립산사업소에 가서 철다리복구에 필요한 원목을 접수하여 호송해오라는 임무였다. 그것도 3일간의 기일밖에 주지 않았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여 립산로동자들과 철도로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다섯차량의 원목을 실은 열차를 호송해가지고 백암령에 이르렀을 때였다. 열차가 방금 백암령의 내리막길에 들어섰는데 미국놈들의 쌍발기 편대가 날아왔다. 때마침 열차는 백암령의 긴 차굴에 대피했으므로 놈들의 눈먼 폭격을 무사히 피할수가 있었다.2

폭격이 끝난 뒤 열차가 차굴밖으로 나가려는 찰나에 나는 소스라쳐 놀래었다. 차굴밖의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철길우에 서서 먼 물체가 두 철길을 가로타고 길게 넘어져있었던것이다. 시한탄이었다. 차굴입구의 콘크리트벽체에 명중한 시한탄은 그대로 철길우에 굴러떨어져 덩군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번도 시한탄을 해제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저으기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시한탄은 300키로 짜리였다.

나는 시한탄의 한쪽 모서리에다 어깨를 대고 힘껏 떠밀었다. 그러나 시한탄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시한탄은 어느 시각에 폭발할지 알수 없었다. 그것이 폭발하는 날엔 차굴 입구가 날아나게 될것이고 오늘밤까지 가닿아야 할 통나무는 언제까지든 차굴속에 처박혀있어야 할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젖먹던 때의 힘까지 다 짜내어 시한탄을 힘껏 떠밀었는데 그 찰나에 그만 철길의 침목우에 부상당했던 어깨를 짓찧으며 어푸러졌다. 누군가 지레대로 시한탄을 떠서 저만큼이나 단번에 밀어 내쳤던것이다. 나는 금시 숨이 넘어갈듯한 어깨의 동통을 느꼈지만 급기야 뒤를 돌아보았다. 철도제복을 입은 중년의 사나이가 손에 지레대를 쳐들고 서있었다. 《어디 다쳤소?》

나는 머리를 저으며 파편이 박혔던 자리가 터진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르더니 나를 다시한번 돌아보고는 지레대를 쏘아들고 시한탄이 있는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지레대로 시한탄을 연방 떠서 겹겹이 철길우로 밀어뜨리었다. 나는 피가 내배인 어깨를 바른손으로 눌러쥐고 아픔을 참으며 그뒤를 따라 달려가는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흠칫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보며 무엇이라고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쳤는데 나는 그 말을 미처 알아듣지 못했던것이다. 내가 잠시 서있는동안에 그는 벌써 시한탄을 떠밀어가지고 철길의 한쪽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저앞까지 가있었다. 그때에야 나는 온몸에서 진땀이 솟고있음을 느꼈었다. 눈깜짝할 사이에 그는 그 육중한것을 철길옆의 낭떠러지에 굴러버린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마주친 그의 이글거리는듯한 눈길에서 나는 문득 고향에 있는 만형을 생각했다.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번했을 때마다 형은 나를 저런 눈으로 바라보곤했었다. 그는 나의 군복을 젖히더니 허를 찼다. 금방 아물었던 상처자리가 손가락넓이만큼이나 찢어있었던것이다. 그때 나의 호주머니에는 마침 봉대가 있었다. 그는 철길쪽옆에 무성하게 자라난 《가마뽕경》아이라고 하는 약초를 한웅큼이나 뜯어다가 나의 상처에 대고 봉대를 감아주었다.

바로 그때 나는 공중으로 들썩 떠올랐다가 간신히 땅우에 떨어졌것 같은감을 주는 폭음에 얼떨떨해졌다. 시한탄이 터진것이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랑곳없이 나의 어깨에 봉대를 세심히 감아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위로하느라고 병긋 웃기까지 하는것이었다.

《여섯번째로군... 점점 빨리 튀군한단말이야. 놈들이 더 발악을 한단말이야...》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려었다.

나는 그 사람의 등어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물속에 뛰어들었던 사람처럼 그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때마침 차굴속에 대피하고있던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져나왔다. 출발하려는것이었다. 나는 그와 미처 통성도 못한채 통나무화차에 뛰어들었다. 나는 승강대손잡이를 잡고 몸을 뒤로 젖히며 그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한쪽어깨를 귀바퀴밑까지 유별나게 추켜올린채 시한탄을 굴리던 그 지레대를 보병총처럼 받들어올리고 체식으로 열차를 바래고있었다. 나는 열차가 산굽이를 돌아설 때까지 작아지는 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나의 눈에서 날린 눈물방울들이 허공으로 뿌려졌다. 그후 나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전선으로 나갔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이 자주 눈앞에 떠오르곤했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의 이름이며 주소를 알지 못한것이 후회되어 가슴이 쓰리곤했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나는 30여년간을 평양에서 살았다. 그동안 나는 세번이나 백암령에 자리잡고 있는 그곳 철도분국에다 편지를 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백암령엔 없다는 꼭같은 편지가 날아오곤했었다. 그러다가 몇해전부터 나의 창작자가 백무고원과 여기 개마고원일대로 옮겨지자 나는 백암령을 넘나드는 일이 잦아졌다. 백암령을 넘어가고 넘어올 때마다 나는 그 철도제복을 입었던 사람에 대한 추억이 간절해지곤했었다. 그러던 지난해 나는 평양에서 내려오던길에 일부러 백암역에서 내렸다. 내가 찾아간 철도분국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철길대에선 그런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망하고말았다. 시한탄을 제거한다는것이 사실은 목숨을 내대는 일이어서 보통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만큼 하나도 아니고 여섯개씩이나 파헤친 사람을 어찌서 지금까지 모르고있겠는가.

내가 하도 안타까와하자 그 일군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우에 널려있던 문건들을 간중그러서 한옆으로 밀어놓았다.

《일시적전략적후퇴시기에 백암령으로 기여들던 미국놈들의 한개 중대가 철길우에서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몽땅 전멸당했더랬습니다.》

원래 백암령으로 오르는 남쪽 골짜기에는 철길밖에 다른 길이란 없지 않습니다. 제법 기동차를 앞세우고 철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서 올라오던놈들이 차굴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그때 우로부터 무섭게 바람을 내며 굴러내려온 화차가 있었는데 그 화차가 바로 놈들을 죽탕이 되도록 철길우에다 깔아뭉개놓았지요. 앞에 섰던 기동차가 부스러진 채 화차에 가로 걸려있었는데 그것이 차굴벽에 붙어선놈들마저 모조리 굶어서 짓뭉개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 일군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우리는 그 화차를 굴린 사람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몇해전에 중학교에서 글짓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작문짓기를 했는데 한 녀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막내딸이…》

일군은 담배에 불을 달았다.

《…리하웅이라구. 철길원인데… 그러지않아도 우리는 그한테 국가수훈을 추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어놓고도 그는 소문없이 큰일들을 수두룩히 했으니까요.》

그가 하는 이야기인즉 〈전쟁때에야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인데 그제 무슨 큰일이라구 내놓구 의문단말이오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다우쳐 물었다.

《그 리하웅이라는 아با이를 한번 만나볼수 없겠습니까.》

설사 내가 찾는 그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나는 리하웅아با이를 꼭 만나보고싶었다.

그는 꽤히 동의했다.

《만나보십시오. 그렇지만 며칠만 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리하웅아바이는 지금 평양에 올라가 있습니다. 철도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했지요…》

나는 또 실망했다. 편집부와 약속한 원고가 있어서 며칠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기다릴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또 일년이나 지나간 지금에야 이렇게 백무고원의 대흥단지구에서부터 떠나 남설령을 넘어 리하웅아바이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추억에서 깨어난 나는 다시금 수옥을 바라보았다.

오래동안 명상에 잠길만한 시간이 그에겐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불안스럽게 차창밖을 살펴보고 있었다. 차창에 불린 성예를 입김으로 녹인자리가 안경알처럼 동그랗게 나있었다.

아닌게아니라 기세좋게 달리던 렬차가 멈추기 시작했다. 수옥은 나를 쳐다보았다.

《일없습니다. 선생님… 헤쳐나갈수 있을겁니다.》

여기가 제일 자주 눈사태에 묻히곤하는 복계수굽이랍니다.》

수옥은 벌써 차장차의 출입문을 열었다. 순간 눈보라를 안은 통바람이 날아들어 빨강게 달아오른 난로에 부딪치더니 요란스럽게 증기를 뿜어올렸다. 나는 수옥이가 문을 열던 그쪽을 내다보았지만 그쪽에서는 벌써 아무 기척도 없었다. 나는 눈보라와 어둠이 소요하는 미궁같은 나락으로 수옥이가 훌쩍 뛰어내렸다는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나는 그때 벌써 렬차가 벗어선 다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손더듬으로 겨우 승강대까지 나갈수가 있었다.

×

눈보라는 때아니게 벗어선 통나무렬차를 향하여 기승스럽게 달려들었다. 사나운 평음을 지르며 백암령의 눈보라는 어둠속에서 무섭게 광란하고있었다.

어딘가 앞쪽에서 그 소리사이로 수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나에게 내리지 말고 차장가에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다. 지도에 대한 나의 지식이 틀림없다면 이 복계수가 해발 천칠백계선일것이다. 나는 손잡이에 의지하여 간신히 철길뚝이라고 짐작되는 눈무지우에 내려선 다음 수옥이가 달려갔을 렬차의 앞쪽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올라오는 눈속을 헤치며 한동안 걸어가던 나는 문득 멈추어섰다. 얼핏 지나치는 그 무슨 소리를 들은것만 같았기때문이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틀림없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어둠속에 보이는것은 눈보라에 밀려온 눈무지뿐 사람이 의지해있을만한 자리조차 없었다.

《누구요 ?》

이렇게 불러본 나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여기 눈무지를… 여기…》

나는 정신이 팔쩍 들었다.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과 판가리를 하는것 같은 목소리여서 나의 마음은 은연중 다급해졌다. 나는 무작정 눈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수옥이나?》

나는 와들하고 놀래었다. 바로 지척에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묻는것이 아닌가. 그것도 수옥의 이름을 부르는데는 더욱 아연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애, 이걸… 빨리…》

그 목소리의 입자가 장선동무였기때문이었다.

나는 요지경속에라도 빠져든것처럼 얼떨떨해지고말았다. (어떻게 장선동무가 렬차를 따라 앞설수 있었겠는가. 그와 아래역에서 헤어진지도 벌써 30

분은 잘될것 이 아닌가...)

장선은 무엇인가를 거듭 재촉했다.

《에 저 받침대를... 받침대를... 이걸 놓았다간...
철길에 눈사태가...》

(뭐? 철길에 눈사태? ...)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버럭 소리를 지를수가 있었다.

《장선동무, 무슨 일ियो? 어데 있소?》

《작가선생님 ...》

나는 반가왔다. 그도 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것이였다. 나는 급기야 그쪽으로 돌아섰다. 열결에 나는 그를 내앞으로 와락 끌어당겼으나 허사였다. 그는 무엇에 단단히 비끄러매우기라도 한것처럼 끄떡하지도 않았던것이다.》

《이게 뭐요?》

나는 그의 어깨를 지지누르고있는 통나무를 만져 보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어깨를 들이밀었다. 나보다 훨씬 키가 작은 장선의 어깨에 메워져있던 중량이 모두 나한테로 쏠리자 눈앞이 아찔해졌다. 나는 그제야 모든것을 깨달았다. 장선동무는 지금 눈사태에 휩싸인 바람막이바자의 기둥을 대신하여 어깨로 그것을 떠받들고있는것이였다. 그가 저렇게 기둥을 떠받들고 서있는 동안에 눈보라는 그마저 파묻어버린것이다.

이 기둥을 놓는 순간이면 바자가 넘어질것이고 그다음은 순식간에 이 북계수굽이의 철길우에는 눈동산이 높이 쌓였을게 아닌가. 아마도 그 눈을 제거하려면 하루이틀은 교통이 두절되는수밖에 없을것이였다.

그다음 나는 그가 렬차보다 먼저 이 북계수굽이에 도착할수 있는 사실도 리해가 되였다. 철길이 백암령의 제일 높은 주봉인 이 고개를 이리저리 굽이를 에돌아올랐기때문에 곧추 났을 오솔길로 사람이 더 먼저 여기까지 오를수 있었을것이였다.

《놓으시오. ... 이젠... 이젠 바아침대를 고... 고엿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그의 말이 리해되였다. 그러나 나는 그 통나무밑에서 어깨를 뽐아낼수가 없었다.

나는 장선의 부촉을 받고서야 눈구덩이속에서 오금을 꺾으며 주저앉을수가 있었다. 눈앞이 흰해지면서 갑갑하던 숨결이 활 열리였다.

수옥이가 기관사들과 함께 뒤미처 달려왔다.

차장차에 올라온 나는 장선철길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나자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그야말로 영웅적인 희생성을 발휘한 의젓한 표정을 읽으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저으기 의기소침해진 얼굴로 난로옆에 다가서기마저 주저하는것이였다. 나는 분명 그가 어디 동상이라도 입은게라고 단정하고 어

디를 얼쿠었는가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빨리 이리로 나와서 몸을 녹이라구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기관사가 젖은 목소리로 자리를 권했지만 그래도 그는 머리를 가로젓기만 했다.

《장선철길원동지는 이런 일을 한두번만 한게 아니였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장선동지가 맡은 구간만은 언제나 믿는답니다.》

그 기관사의 말에 나는 목이 메어 마음속으로만 그저 《영웅이요! 영웅...》 하고 톱뿔어 대답했을뿐이였다.

하나 그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렬차가 북계수굽이에서 한시간동안 지연된데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헤아리고있었다. 나는 그의 낮빛에서 그것을 어렵지 않게 읽을수가 있었다.

나는 그와 헤어지는것이 진심으로 아쉬웠다.

×

우리가 드디어 백암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새벽 네시가 되였다. 그러니 나에겐 또다시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운수가 차례졌다. 백암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본선 화물렬차의 전기기관차 운전실에 앉아서 이 밤으로 아예 목적지까지 가게된것이였다. 이제 한 역전만 가면 리하웅아바이가 철길감시를 하는 그 초소가 멀지않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기관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나는 전조등이 밝게 비치는 앞쪽을 내다보았다. 전조등이 드러낸 새벽의 대기속엔 무수한 서리꽃들이 떠돌고있었다.

대한날 밤의 새벽 추위는 광란하던 눈보라마저 얼구어버린것이다.

내리막철길에 들어서자 기관차는 아츠러운 제동기의 쇠를 잡아내는 소리를 울리며 속도를 죽이기도 하고 멎어서기도 했다. 기관사들은 여러번 반복하는 그 작업에 온 신경을 쏟아붓는것이였다. 제동기에서 새된 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관사는 마치 자기의 뼈라도 꺾이우는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곤했다. 토목기수의 경력이 있는 덕분에 이런 때 기관차가 한번씩 제동을 잡는데 얼마만한 제동구두철이 소모되어 버린다는것을 알고있는 나는 기관사들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가 되였다.

세번째로 제동을 잡으려던 기관사는 슬그머니 제동단추를 놓아버리는것이였다. 멎쳐거리던 렬차가 다시 속도를 높이려는 찰나에 기관조사가 기관사의 손을 잡더니 전조등이 밝게 비치는 앞쪽의 철길옆을 조심히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순간 기관사의 낮빛이 단번에 굳어졌다. 그는 다시 제동단추를 누르고 복잡한 운전조작을 재빨리 해버렸다. 급작스

레 제동이 걸린 기관차는 뒤따르던 엄청난 중량의 화차들에 떠밀리우는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바스르트리듯했다. 나도 어지간히 긴장해져서 기관사의 그 동작을 일별하며 조사가 가리킨 앞쪽에 눈길을 돌렸다. 금시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온통 성에가 불려서 서리꽃으로 덮인 철길 옆의 덩불과 눈무지에서 성에가 불린 사람을 발견했던것이다.

《아니 저게 웬 사람이요?... 이 무인지경에...》

나는 앉은자리에서 엉거주춤히 일어서며 기관차를 바라보았다.

조사가 기관사를 대신하여 나에게 설명해주었다.

《철길감시원입니다. 지금 철길상태를 돌아보는 중이지요.》

이 밤 백암령 철길엔 또 저렇게 수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나는 또 감동이 컸다. 기관차는 기적을 울리며 그 철길감시원의 앞으로 바투 다가섰다. 얼굴은 알아볼수 없었다. 그는 철길옆에 비켜선채 서서히 상호등을 들어올렸는데 나에겐 그 몸가짐이 무척 눈에 익어보이는듯했다.

나의 머리엔 잊지 못할 한가닥의 추억이 빛발처럼 얼핏 스치였다. 시한탄을 굴러낸 지레대를 보병총처럼 들어올리고 전선으로 가는 통나무렬차를 바래주던 잊지 못할 그 사람의 모습이 얼핏 스치고 지나갔던것이다. 때마침 목메인 짧은 기적이 두번 울렸다. 그때에도 시한탄이 해체된 그 철길로 통나무렬차가 통과하면서 저렇게 목메인듯한 기적을 짧게 두번 울렸던것처럼 나는 생각되었다. 벗어섰던 기관차가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철길감시원은 순식간에 뒤로 물러갔다.

《가만 이 구간의 철길감시원이라면 혹시 리하옹 아버지가 아닌가요?》

나의 물음은 뜻밖의 침묵을 가져왔다.

이윽히 지난 다음에야 기관사가 《웁습니다.》하고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가 갈린듯했지만 나는 그것을 썩 후날에야 다시 음미해볼수가 있었다. 어쨌든 나는 당장 기관차에서 내리고싶었다. 리하옹 아버지를 만나야 했던것이다.

《리하옹아버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기관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본 일은 없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 이젠 어디쯤에서 제동시험을 합니까?》

나는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의 뜻하지 않은 물음이 그들에게 난치한 문제를 던져주었음이 분명했다. 기관사는 이제부터 렬차가 종착점인 혜산에 도착할 때까지 한번도 멈추어서지 않는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집결

렬차라는것이였다. 나는 그만 어쩔바를 몰랐다.

나는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이 화물렬차가 혜산에 도착할 시간이면 그곳 종점에서 출발하는 렬객렬차시간과 맞먹을것이기때문이었다. 역전에서 가까운곳에 집이 있으니 잠시 들려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 곧 이곳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나의 계획은 무한정 연기되었다. 먼저변에 제출한 원고의 수정이 제기되었으니 곧 평양으로 올라오라는 전보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때로부터 반년간이나 지난 오늘에야 그 계획을 실현하게 되었다.

언제 그렇게 혹독한 대한추위가 있었던가싶게 백암령의 진달래가 한창 피는 계절이였다. 백암령에는 다른고장의 진달래가 편 다음에도 한달이나 달반정도 늦게야 진달래철이 온다. 백암령의 추위를 이겨내서 그런지 백암령의 진달래는 철이 늦은만큼 그 색깔이 더욱 붉고 잎새는 작아도 송이가 여러개씩 한데 물켜서 더 탐스러운것이 특징이다.

내가 백암령의 마지막 간이역에서 내린 때는 한낮이였다. 초여름의 따뜻한 햇빛은 두줄기 철길우에서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여기서 10리만 걸어가면 리하옹아버이가 사는 오랜 살림집이자 철길감시소가 있다는것이였다. 나는 걸음을 다그치며 새삼스럽게 백암령의 풍화를 둘러보았다.

멀리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내린 백두산줄기가 백암령의 주봉인 두류산과 천화령, 남설령에서 잠시 머물고는 저 동해의 원산 덕산까지 치달아내려갔고 나라의 북쪽 한끝에 이르는 산줄기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산줄기의 하나인 부전령산줄기도 여기 백암령에서부터 뻗어나갔고 그사이로 빠져나간 검덕산줄기 역시 백암령에 뿌리를 두었다.

얼마나 장엄하고 지심깊이 뿌리를 둔 산악인가. 이 백암령을 삼각점으로 해서 동남쪽으로는 동해안 본선철도와 련결된 철길이 휘감아내려갔고 서북쪽으로는 길혜선, 북쪽으로는 백무선이 서두수계곡을 따라 뻗어내려갔다.

이처럼 장엄한 산악을 세가닥으로 꿰지른 철길인만큼 거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생활 또한 그처럼 웅심깊고 다양하며 굳세고 열정에 넘치게 아닐가...

한굽이를 돌아서자 나는 철길작업에 여념이 없는 한개 소대의 철길원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이 쓰고

있는 침목을 갈아넣는 기계에 관심이 쏠렸다. 무척 간편하고 능률이 높은 기계였기때문에 나는 호기심이 동했던것이다. 내가 하도 기계에 관심을 가지자 한결같이 애젊은 철길대원들은 모두 나한테로 모여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수없이 신분을 밝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앞을 다투어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소조원동무가 창안한 기계입니다.》

《우리 소조원동무가 정말 큰일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계로 일하면 힘든줄 모릅니다. 능률은 열배이구...》

《아, 저기 우리 소조원동무가 옵니다.》

누군가 등뒤에서 웨쳤다.

나는 방금 걸어온 철길을 돌아보았다. 그곳으로 는 보위색작업복을 단정하게 입은 한 처녀가 걸어 오고있었다.

《철도대학에서 온 대학생 소조원입니다. 아버지가 백암령의 오랜 철길원이구 두 오빠와 언니까지 두 모두 철도에 복무하고있지요. 말하자면 모두 이 백암령철도에...》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짝이는데가 있어서 불쑥 물었다.

《저 소조원동무의 아버지가 리하웅아바이가 아니오?》

《예, 리하웅아바이의 막내딸입니다.》

《그렇소! ...》

나는 리하웅아바이의 그 막내딸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저 철도대학생 소조원이 중학교때에 《아버지》라는 작문을 썼을 그 막내일게라고 생각하니 나는 더욱 반가웠다.

누군가 소조원한테 벌써 나에 대해 귀뜸을 한 모양이었다. 소조원은 빨갛게 얼굴을 붉히며 나한테로 다가섰다.

《수련이라 합니다. 작가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아십니까?》

나는 수련이를 바라보았다. 한창나이의 무척 아름다운 처녀대학생이었다.

《알구말구. 잘 아오.》

우리는 특별히 격식을 차린 인사가 없이 쉽게 의사가 통해버렸다.

《마침 잘됐어요. 저도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지자요.》

우리는 철길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모두 집에 왔어요. 어머님의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모이는걸 절대로 승인하지 않았겠는데 이번만은 일부러

모이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생일잔치를 단단히 차린 모양이구만... 그렇지 않으면 막내딸이 소조원이 돼서 저렇게 훌륭한 기계까지 창안했으니 기뻐서 한상 차리자는거겠지 ...》

나의 말에 수련은 가늘게 한숨을 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진 좀해서 칭찬하는 일이 없답니다. 이렇게 한번씩 모이라고 할 때면 언제나 단단히 꾸지람을 할 때뿐이에요. 이번에도... 아버지 우리들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산답니다.》

나는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나는 은근히 마음이 켜기였다. 나는 그가 아버지를 잘 아는가고 물을 때 알아도 잘 안다고 대답했자만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 리하웅아바이에 대하여 아는게 너무도 적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그에 대하여 잘 알며 지어 친근하게 지낸 친우처럼 생각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련의 말을 듣고보니 나는 또 한발자욱 리하웅아바이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선것만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때마침 뒤에서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높이 들려왔다. 우리가 걸어온 그쪽으로부터 통나무를 높이 실은 수십개의 차량들이 백암령으로 굽이를 저으며 올라왔다.

《선생님, 저기... 아버지와 오빠들, 그리구 언니예요.》

나는 수련이가 가리키는 백암령의 절정을 올려다보았다. 철도제복을 차려입은 네명의 사람들이 서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가 철도모자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로인이 신호기발을 들어올리고 열차를 통과시키고있었다. 그가 바로 수련의 아버지 리하웅아바이일것이였다. 기발을 든 바른쪽 어깨를 유별나게 귀바퀴밑까지 높이 추켜들고있었다. 잊을수 없는 모습이 가슴을 치며 눈앞에 떠올랐다. 시한탄을 굴러낸 지레대를 보병총처럼 쳐들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

《선생님... 작가선생님 !》

때마침 나한테로 로인의 뒤에 섰던 세 젊은이들이 와락 달려내려왔다.

《아니 이게 누구들이요?》

그들은 다름아닌 수옥이와 장선이 그리고 그날밤의 전기기관차의 기관사였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수옥이가 나서며 방금 열차를 통과시키고 이쪽으로 다가서고있는 리하웅아바이를 소개하는것이였다.

나는 서둘러 로인한테로 다가섰다.

《먼길에 오시기 수고했습니다.》

리하웅아바이가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것이
였지만 나는 얼른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절... 모르겠습니까.》

나는 아바이의 기발든 손을 그러쥐었다.

《1952년 여름에 통나무열차를 호송하던 인민군
대 소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바인... 그때의 모
습이 알립니다.》 나는 두서없이 떠듬거리었다.

《그때 지레대로 차굴앞의 철길우에 떨어진 시한
탄을 굴러내주지 않았습니까?》

삭막한 땅각속에서 기억을 찾아내려는듯 이윽히
백암령쪽을 지켜보던 리하웅아바이의 흰 눈썹이 꿈
틀하고 움직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가만... 소위라면 어깨의
부상자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던... 그후 상처는 일
없었소? ...》

그 일이 몹시 걱정되었던듯 리하웅아바이는 내
어깨를 어루머들었다.

하얗게 백발이 된 아바이의 머리칼, 흰 눈썹은 지
난 겨울 대한날 밤 온몸에 불렸던 그 성에를 련상
시켜주었다.

온 일생동안 겨울이면 겨울마다 불리군했을 그
성애가 그대로 온몸에 스며여 그렇게 희어진것이
아닌가싶었다.

우리의 상봉은 실로 뜨거웠다.

그날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누웠지만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어딘가 멀고 가파
운 숲속에서 밤새들이 끊임없이 울고 매 시간마다
열차들이 웅글게 땅을 구르며 지나가군했다. 리하
웅아바이도 잠들지 못하는듯 부시력거리더니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이였다.

《작가선생두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구려...》

나는 대답했다.

《예, 잘수가 없구만요.》

나도 일어나앉았다. 보름달이 비쳐들어 방안은
현했다.

《작가선생말대루 내가 인젠 일을 그만둘수도 있
지요... 당조직에서두 권고를 하지만...》

로인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어뿜었다.

《하지만 내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구 이 백암령 철
길에 서있는건 저 애들때문이라오.》

밤새의 울음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려왔다.

《오늘 귀한손님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할말이 좀 있었는데... 저 장호란 녀석은 기관사이
긴 해도 눈치놀음부터 하려고 든단말이요.》

《...》

이윽히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했
다.

《전쟁때 아바이가 한 일을 분국에서랑 아직까지
두 모르고있더군요.》

나의 말에 로인은 이윽히 대답이 없었다. 리하웅
아바이는 담배를 갈아붙이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그때 그자리에 내가 아
니고 다른 철길원이 있었다 해두 그렇게 했을거우
다. 전쟁때에야 목숨을 바친 사람두 이루 헤일수 없
는데요.》

먼곳에서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아
바인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철길을 걸어다니다가두 이런 생각을 한다
오. 아들딸들은 남부럽지 않게 수두룩이 남겨놓았
는데...나한테 저들에게 나누어줄게 뭐가 있는고 하
구 말이오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마음속에 안고사는 궁지가 더 큰 재산이지요. 사람
에겐 마음속에 가지고있는 재산이 중요한게 아니겠
소.》

나는 가슴속에 안겨오는 산악같은 충격을 느끼였
다.

《하긴 내사 그래서 저 애들에게 그걸 마지막까지
다 나누어주고싶어 이 백암령철길을 비우지 못하
지만...》

백암령으로 오르는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가
까와졌다. 차바퀴가 굴러가는 둔중한 음향이 백암
령의 아득히 깊은 지심을 웅글게 흔들어놓았다. 나
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나는 그 음향을 따
라 백암령의 지심을 아득히 헤아려보았다. 땅우의
산악들도 높고 거연하지만 그보다 땅속에 내린 뿌
리가 그토록 억세고 웅심깊은게 백암령이라면 이
백암령의 지심깊이에 간직한 리하웅아바이의 그 마
음속 재산은 백암령보다도 더 숭고한게 아닌가. 그
가슴에 간직한 가식없는 재산이 거창한 산악보다도
더 높고 깊을진대 조국은 얼마나 많은 그런 메부
리들에 떠받들려있는것인가.

온밤 이야기로 밤을 보낸 나는 리하웅아바이와
그의 아들딸들인 장선이, 수옥이, 장호, 수련이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아침 일찍 백암령을 내리고있었
다. 그리고보면 내가 이 백암령에 그처럼 현혹된것
은 그 웅좌의 무쌍함때문이 결코 아니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가 떠나온 그 절경을 다시
한번 더 쳐다보았다. 아직도 거기에선 리하웅아바
이가 아들딸들을 거느리고 손을 저어주고있었다.
그뒤엔 백암령의 주봉이 아득히 하늘을 떠이고 서
있었다.

기적소리를 들으며

석창갑

런상작용이란 이상한것이어서 레사롭게 보고들어 넘기던 범상한 일이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나는 어느날, 밤늦게 창문가에 앉았다가 고요한 밤공기를 헤가르고 들려오는 먼 기적소리를 들으며 지난 전쟁시기에 희생된 한 기관사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일이며 지난번 취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기의 가혹한 폭격속에서도 우리의 열차들은 기적소리 드높이 울리면서 전선과 후방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우리 기관사들은 불비속을 헤치며 참으로 영웅적으로 싸웠다.

내가 30여년전에 알게 되었던 한 기관사도 그렇게 싸우다가 희생된 기관사였다. 그는 락동강도하 전투가 벌어지고있던 때 총포탄을 실은 열차를 몰고 전선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던길에 우리 군용열차들이 집결된 역구내로 달려드는 적기들을 단신으로 기관차를 몰아 유인해내었다. 놈들의 폭격이 끝난 후 기관조사가 달려갔을 때 기관차우에는 기관사가 점검마치를 천채 쓰러져있었다.

기관조사가 보관하고있던 그 점검마치를 본 나의 가슴에서는 오래도록 그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희생된 그 기관사와 함께 싸우던 사람들과도 만나본 다음 그에 대한 전투실화를 써서 발표했다...

그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점검마치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는 지난번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취재를 나갔다가 무사고증송투쟁에서 앞장선 최우성기관사의 위훈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가 일하는 기관차대에 내가 찾아갔을 때 철도 국회의에 떠나느라고 서두르고있던 그곳 대장은 최우성이가 모는 기관차를 타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권고하는것이였다.

나는 기관차를 타면서 좋은 글감을 취재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최우성은 좀처럼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기관차는 이른아침, 정량이 훨씬 넘는 짐을 달고 떠났다. 그런데 역구내를 벗어나 구배진 산굽이를 돌아갈 때였다. 나는 기관차의 창문으로 웬 젊은

녀인이 철길옆에 서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기관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녀인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는 그 녀인의 눈빛에 그 어떤 간절한 소원이 어린듯싶었다.

아침이슬을 차며 철길에 나와 먼길을 떠나는 기관사들을 그렇게 따듯이 바래주는 그 녀인은 대체 누구일까?

옆에 앉은 젊은 기관조사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그 녀인은 인민학교 교원인데 최우성의 안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이른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철길에 이슬과 서리가 내리는날 아침이면 하루와같이 이 구배진 대목에 나와 기관차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철길에서 이슬과 서리를 씻어준다는 것이였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것을 두고 어찌 남편에 대한 그 녀인의 살뜰하고 진실한 애정이 빚어내는 소행이라고만 하랴.

가슴후더운 사연은 그뿐만이 아니였다. 나는 기관차의 창문턱에 걸려있는 《일기에보칠》을 무심히 펼쳐보다가 거기에 채 영글지는 않았으나 귀인성스러운 필체로 정초부터 매일매일의 일기에보가 또박또박 적혀있는것을 보았다. 알고보니 그것은 고등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최우성의 어린 딸이 매일밤 일기에보시간에 텔레비존에 마주앉아 그렇게 적어준다는것이였다. 그날 일기에보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어 비.

오후에도 비.

래일도 계속 흐리어 많은 비.

아버지! 무사고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에보칠》을 그렇게 정성껏 적어주고있는 어린것의 가룩한 마음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

미구에 기관차가 다음역 구내에 도착했을 때였다. 역운전지휘원이 기관차에 뛰어오더니 짐을 더 달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철도국사령원의 지시를 전달했다. 최우성은 이 역구내에 두량의 짐이 나와있다는것을 이미 출발역에서부터 알고 온것이였다. 그는 말없이 기관차에서 내려 역운전지휘원실로 뛰어가더니 사령전화에 대고 역구내의 짐은 더 끌고 가게 해줄것을 철도국사령원에게 요구했다.

사령원은 주저했다.

《우성동무, 비가 내리겠다는데 그걸 더 끌고갈수 있겠소? 지금도 정량보다 더 끌지 않았소.》

《그래도 끝어야 할것 같습니다. 래일도 계속 비가 내리겠다고 했지요.》

《알고있소.》

《그러니 그 원료들을 비가 멎을 때까지 묵여둘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 기업소들에서 월말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때지요.》

《그야 그렇지. 한데, 참...》 사령원은 딱해하는 것 같았다.

《사령원동무! 제가 끌고가겠습니다!》 최우성은 낮으나 확고한 결심이 어린 목소리로 들이댔다.

순간 나에게서는 일기예보를 적어주는 그의 나 어린 딸의 깊은 마음이 그제사 죄다 알리는것 같았다. 그 어린것은 밤마다 정성껏 적어주는 그 일기예보로 아버지의 무사고증송투쟁을 돕고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여 최우성은 또 두량의 짐을 더 끌고 떠났다.

얼마나 달렸을가...

비방울이 후둑후둑 차창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불현듯 《제3화선 진입! -》 하는 기관조사의 웨침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기관차가 산마루를 치달아오르고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운행구간에서 구배가 제일 심한 대목을 《제3화선》으로 부르고있는것이였다. 바야흐로 그들은 그 3화선을 무사고로 돌파하기 위한 전투에 들어간것이다. 어느덧 대줄기같이 굽어진 비발이 차창을 후려치며 시야를 흐리운다.

최우성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다. 운전대손잡이를 한금한금 옮겨놓고 때로 모래변과 제동기에 손이 착착 오가는 그의 거무스레한 얼굴에 온 정신력을 집중한것 같은 긴장이 어렸다. 그는 기관차와 한몸이 되어 호흡도, 감각도 같이 하는것 같았다.

짐을 끄는것은 결코 기관차의 기계적힘만이라고 할수 없다. 같은 기관차를 가지고도 기관사마다 건인량에서 차이가 생기는것은 그들의 열정과 투지에서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최우성은 구배를 돌파할 때 짐무게와 기관차의 속도, 타력, 제동력, 마찰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능동적으로 작용시켜 기관차가 최대의 견인력을 낼수 있게 하는 운전조법을 완성하기 위해 철마다 수백리 운행기간의 철길을 걸어다니며 차굴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물끓까지도 죄다 꿰뚫었다는것이다. 그 불타는 열정을 기울여 그는 지금 가파로운 구배길을 한치한치 뚫아오르고있는것이다.

드디어 《제3화선》은 무사고로 돌파되고야말았다...

다음역에 도착하자 최우성은 승무가방에서 점검

마치를 꺼내들고 운전실에서 내리더니 기관차를 점검했다. 그런데 운전실에 다시 올라온 그가 의자옆에 놓은 점검마치에 무심히 눈길을 주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들수 없었다.

불에 그슬린 자루... 거기에 또렷이 새겨진 《최만호》라는 이름...

나는 놀랐다. 그것은 분명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희생된 한 기관사에 대한 투쟁자료를 취재하면서 30여년전에 내가 손에 들고 만져본 그 점검마치가 아닌가! 그의 이름이 바로 최만호였다. 그런데 그 점검마치가 어떻게 되어 최우성의 손에 들려지게 되였는가?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한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혹시 최우성이가...?

저녁녘에 기관차대로 돌아온 최우성은 나이 지숙한 당무사령원에게 승무결과를 보고했다.

당무사령원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우성동무의 무사고주행거리가 오늘까지 171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소!》 그는 최우성의 견인초과총량도 알려주었다.

나는 그가 보고를 마치고 방에서 나가자 나의 머리에 떠올랐던 의문을 서둘러 당무사령원에게 비추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최우성이가 바로 지난 전쟁시기에 희생된 그 기관사의 아들이라는것을 알았다.

《기관차운전대를 처음으로 잡던 날 그 점검마치를 손에 들고 아버지처럼 싸우겠다고 하던 우성동무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그렇게 싸웠으며 또 싸우고있지요.》

당무사령원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기관차를 타고 보고들은 모든 사연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떠오르는것이였다. 나는 대줄기같은 비가 퍼붓던 때에 그 많은 물동을 끌고 3화선을 돌파하던 최우성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서 포연을 헤치며 군용렬차를 전선으로 몰아가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것 같았다.

그렇다! 그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불비속에 한목숨 서슴없이 내던진 아버지의 그 점검마치로 자기의 심장을 점검하며 총포소리 울리지 않는 오늘에도 철길우에 화선을 정해놓고 가족들과 함께 싸우고있는것이다.

나는 고요속에 들려오는 먼 기적소리에서 그 밤도 조국의 동맥을 지켜싸우고있는 수백, 수천의 최우성이들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창문가에 앉아있었다.

신 념

주칠성

밤이 깊어갈수록 정주역구내는 더욱 들끓었다. 끊임없이 달려오고달려가는 열차들의 기운찬 차바퀴소리, 씹씹거리며 분주히 오가는 차갈이기관차들의 숨가쁜 기적소리, 런던기 부딪치는 소리, 검차원들의 야무진 마치소리, 우릉우릉 힘을 쓰는 상하차기계들의 억센 소음 그 모든 음향은 하나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울리며 붉고푸른 신호등의 불빛이 명멸하는 밤하늘에 힘있게 울려퍼지고있었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의 거센 숨결마냥...

지금 역구내의 남쪽출발선에 서있는 한 기관차운전실에는 정주기관차대 운전 제3소대 지도기관사인 로력영웅 김종국아바이가 앉아있었다.

《허허, 그녀석이 정량보다 두껍이나 거의 되는 짐을 달구온단말이지, 정말 장해!...》

《붉은기》 5034호가 자작역에서 수천톤의 짐을 끌고 이제 곧 정주역으로 들어오게 되는것이다. 운전 3소대의 젊은 기관사 김명수가 그 《룡마》를 타고 온 기관차대가 뜨르르하게 장훈을 부르게 될 판이다.

일전에 있는 기관차대적인 결의모임에서 선참 자리를 차고일어나 당이 지퍼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앞장에 서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던 김명수의 의젓한 모습이 떠올라 아바이는 사뭇 마음이 즐거웠다.

김종국아바이의 얼굴에 느슨한 웃음이 어렸다.

《기관사의 배심이 있거든. 아무래두 축하를 해주고 떠나야겠는걸.》

이때 기관사실 차창밑에 놓인 무선전화기에서 다급한 호출신호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드니 지도기관사 김종국아바이를 찾는 사령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무슨 일이우?》

아바이는 레사롭게 물었다. 그러나 사령원의 말은 아바이를 놀라게 하였다.

《〈붉은기〉 5034호가 신안주역에서 〈경고서〉를 띄웠습니다. 짐차들을 더러 떨구어달라구말입니다.》

《뭐라구?...》

《집중수송열차니만큼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기관사를 바꾸든지...》

《...》

수화기에서는 계속 대답을 독촉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알았습다!》

한순간에 모처럼 좋은 기대가 모래성처럼 무너지

는것을 느꼈다.

마침 저앞 철길우에 두줄기 푸른 신호등불빛이 나타났다. 이어 길게 기적소리가 울렸다. 5034호가 역구내로 들어오고있었던것이다.

《먼저 떠나게.》

김종국아바이는 옆에 있는 기관사에게 이르고 운전실에서 내려섰다.

(설익은녀석, 배지기를 떠보기전에 물러설 생각부터 하다니.)

아바이는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하는것을 누르며 흠을 따라 재게 발걸음을 놀렸다. 기관사가 험한 청강구배를 앞에 두고 오금이 꺾인것이 분명하였다.

북쪽출발선에 이르니 방금 들어선 기관차에서 김명수가 내리고있었다.

그를 보자 아바이는 문득 걸음이 떠졌다. 기관차를 탄지 얼마 안되는 신입기관사가 오죽하면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경고서〉를 띄웠겠는가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던것이다. 사실 그의 요구대로 짐차 몇량을 떨구고 간다 해도 김명수에게 있어서는 전례없는 기록으로 된다. 그 생각을 하니 아바이는 자신이 당한 일처럼 안타깝고 조바심이 났다.

(이제라도 경험많은 기관사로 바꾸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아바이는 인차 도리를 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이 주는 과업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고야말겠다는 높은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겨보는 그에게는 김명수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오늘 한걸음 물러서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래일은 두걸음 물러서고 나아가서 열걸음 백걸음 물러서게 되며 나중에는 평탄한 길을 걷는것마저 두려워하는 속물이 되어버리고 말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김종국아바이는 자신이 지도기관사라는 그 직업적의무감에 앞서 젊은 기관사들에게 참된 로동계급의 의리, 당이 주는 과업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고야마는 철도로동계급의 강의한 의지와 신념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였다.

《어서 도루 올라타게!》

낮으나 뚜렷하게 울리는 아바이의 그 목소리에 김명수가 흠칫 놀라며 이쪽을 돌아보았다.

《전 아무래두... 자신이 없습니다.》

기관사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자네에게서 그런 약한 소리나 듣자구 찾아

온게 아니야.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의 기둥을 굳게 세우고 난관을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속대가 그렇게 약해서야 무엇에 쓰겠냐.»

《저라구 왜 짐을 많이 끌고갈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바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단말입니다.

그러나 이젠 욕망만으로 안되는 일이라는걸 아바이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

자존심이 상한 김명수가 불끈하여 웨쳤다.

《너석두, 두말말구 어서 올라타게.》

그러나 김명수는 얼어붙은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애원하듯 이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짐을 덜게 해주십시오.》

《뭐라구?》

아바이는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손찌검이라도 할듯 기상이 무서웠다.

아바이는 갈린 목소리로 칼로 자르듯 찍어말하였다.

《나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거니와 설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동무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소.

똑똑히 알아두라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관심하고계시는 이 집중수송렬차에서는 단 한량도 떼놓을수 없다는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가야 하오 !》

아바이가 무작정 떠미는바람에 김명수는 할수없이 기관사실로 도로 밀려올라왔다. 아바이가 너무도 자기 심정을 몰라준다는 알국은 생각과 함께 알수 없는 원망이 가슴한구석에 서려올랐다.

《떠남 !》

기관차의 뒤를 살피고있던 기관조사가 웨쳤다.

《떠-남...》

기관사의 목소리는 자신없이 울렸다.

《선뎅받은 사람처럼 시뻘뎅해서 왜 그 모양인가. 어서 출발기적을 올리라구 !》

《뽕- !》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집중수송렬차는 정주역을 떠났다.

김명수가 힐끔 넘겨다보니 계기등의 불빛에 비스듬히 비친 아바이의 얼굴에는 진정 노기가 어려있었다.

김명수는 속이 부글부글하였다. 아바이가 자기에 게 그렇게 성을 내는것을 처음 본다.

언제나 젊은 기관사들과 휩쓸리기 좋아하고 우스개소리도 곧잘하군하던 아바이였다. 공을 한번도 발끝에 대본적이 없지만 크고작은 체육경기때마다 빠짐없이 따라다니며 기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군하던 아바이, 언젠가는 부모 없는 젊은 기관사의 결혼식상도 온갖 성의를 다하여 제손으로 차려주고 그들의 행복을 축하해주던 아바이, 참으로 자기들의 친부모와 같이 정이 끌리는 아바이였다.

그러한 아바이가 그렇듯 서슬푸른 기상이 되어 자기를 꾸짖을 때 김명수는 말할수 없이 가슴이 아프고 쓰리었다.

하지만 난생처음 그렇듯 엄청난 짐을 끌고 운전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선뜻 모험을 할 용단은 나지 않았다.

어느덧 렬차는 청강역에 이르렀다.

기관사가 운전대를 놓고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 그러나?》

《저... 이제 곧 청강구배입니다.》

자리를 바꿔앉자는 소리다.

김종국아바이는 억이 막혔다. 그래도 제힘으로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있는줄 알았더니 이젠 운전대까지 남에게 내맡기자고 한다.

《앉으라구! 우리 정주의 기관사들은 그렇게 호락호락몰려서는법이 없어. 전쟁시기에 놈들의 비행기가 줄폭탄을 퍼부을 때에두 우린 증기기관차를 몰구 저길 넘나다녔어. 눈보라가 치구 얼음조각이 날리는 추운 겨울날에도 탄수차에 올라가 맨발로 탄을 이겨 저 청강구배를 넘어 전선에 탄약과 포탄을 실어날랐단말이야.

지금 당에서는 그때의 그 정신으로 살며 일할것을 바라고있지 않나. 당에서 불라는 강을 건느라면 강을 건느고 진펄을 헤쳐가라면 진펄을 헤쳐갈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글썽 그게 어떤 자리라구 함부로 내놓으려 하는가말이야.

그자리는 조국이 동무에게 맡겨준 전투초소야. 전사는 목숨이 끊어져두 자기 초소를 리탈할 권리가 없어.

동무가 물려서면 조국의 전진속도가 그만큼 떠진다구 생각해보게. 그래두 동무가 그런 약한 소리를 할수 있겠나?!》

김종국아바이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김명수는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자, 어서 운전대를 당기라구 !》

렬차는 다시 철혹같은 어둠속을 헤가르며 앞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김명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온 정신을 가다듬었다. 청강구배가 가까와올수록 그의 가슴속은 불안과 위구, 용기와 희망이 뒤섞여 견잡을수 없이 뛰놀았다.

렬차가 물매길에 접어들었다.

《자, 이걸 보면서 운전하게. 도움이 될걸세.》

김종국아바이가 품속에서 손때묻은 종이 한장을 끄집어내어 운전대앞에 펼쳐놓았다. 계기등의 불빛에 환히 드러난 그 종이우에는 청강구배의 철길상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었다. 아바이가 이곳 철길을 수십번이나 걸으면서 찾아낸 합리적인 운전 조작법들이 적혀있었다.

김명수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이곳 철길상태를 손금보듯 꿰뚫고있으며 오랜 운전경험을 가지고있는 김종국아바이가 뒤에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일순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마치 그 철길상태도가 기관사의 눈이 되고 기관차의 전조등불빛이 되는것인가,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는 견인전동기소리를 우릉우릉 울리며 고개

길을 뚫아올랐다. 렬차는 어느덧 구배가 제일 심한 지점에 이르렀다.

김명수는 온몸의 근육이 활줄처럼 팽팽해졌다.

《마음을 다잡게. 속이 떨리면 손이 떨리구 그렇게 되면 이 렬길을 넘지 못하네. 무쇠철마를 몰아가는 사람은 심장이 굳세야 해.》

기관사를 고무하는 아버지의 웅얼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앗 !》

김명수는 입속으로 신음소리를 삼키었다. 갑자기 전류계의 바늘이 파르르 위태롭게 떨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헛돌이할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만약 이 지점에서 헛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당황하였다. 김명수는 속도를 늦추려고 저도 모르게 두손이 운전대로 갔다.

순간 손이 떨리면 이 렬길을 넘지 못한다고 하던 김종국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김명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속이 떨리면 손이 열린다고, 마음속에 굳센 기동을 세우라고 하던 아버지의 그 격려가 이 순간 크나큰 진폭으로 심장을 쿵쿵 울리었다. 그것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굽힘이 없이 당의 의지로 뚫고나가라는 뜨거운 고무가 아니겠는가.

가슴속에 새로운 용기와 신념이 복받쳤다.

김명수는 순간이나마 운전대를 단으려고 내뻗었던 두팔에 힘을 주며 운전대를 힘있게 앞으로 떠밀었다.

기관차는 속도가 떠지는듯싶더니 그 어떤 거대한 충동을 받은듯 몸체를 부르르 떨며 한치한치 고개를 뚫아올랐다.

점차 속도가 빨라졌다. 어느덧 운전대의 손잡이가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눈금 《38》 위치에 가닿았다. 마침내 구배를 돌파하였다 !

《장하다, 정말 장해 ! 하하... 끝내 제힘으루 넘었어 !》

기관사의 어깨를 두들기며 호탕하게 웃는 김종국 아버지의 구리빛얼굴에 진정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물결치고있었다.

기관조사도 환성을 올린다.

김명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기에게 어데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놀랍기만 하였다. 마치 아득히 올려다보이던 높은 령마루에 오른듯 크나큰 힘과 열정이 부풀었다. 의지와 신념을 깨우치며 위훈에로 떠밀어준 김종국아버지의 그 웅심깊은 마음이 더없이 고맙고 소중하게 헤아려지며 가슴속에 젖어들었다.

《아바이 ! ...》

김명수는 오열을 누르며 부르짖었다.

《허허, 그것보라구. 사람이란 마음먹기 탓이라니까.》

미더운 눈길로 기관차승무원들을 둘러보는 아바

이의 얼굴에 더없이 만족한 표정이 떠올랐다.

김종국아버지는 별빛이 숨박꼭질하는 차창밖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사람들, 생각해보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늘에서는 비행사가 제일이지만 땅우에서는 기관사가 제일이라고 하시며 우리 기관사들을 얼마나 크게 믿어주시고 사랑을 돌려주시고계시나. 그 믿음을 생각하면 백만리, 천만리를 내쳐 달려도 성차지 않을 우리들이 아닌가.

난 해방전에 부모들을 다 잃구 고아로 자란 사람인데. 길가의 막돌처럼 굴러다니던 나를 안아 기관사로 키워주고 참된 삶을 꽃피워준 당의 품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룰수 없는 마음이야.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에게 분에 넘치게도 공훈기관사칭호와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시었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돏기념 경축대표로 불러주시고 꿈결에도 그리워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지. 정말 우리 기관사들처럼 세상에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 어데 있겠나.》

가로 비껴내리는 계기등의 불빛을 받아 아버지의 두눈은 번쩍거리며 빛났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 사랑과 믿음이 힘이 되구 신념이 되었어. 그 믿음을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구 기관사자리에 착 앉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더라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짐을 끌구두 못넘어다니는 데가 없었어.

내가 늘 자네들에게 말하구싶은게 이제야. 운전실에 올라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기관사들을 믿고계신다 하구 생각해보게. 그러면 답이 생기구 힘이 솟음치치 않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기관사의 빛이 나겠나.

나나 동무들이나 기관사년한이 다르고 살아온 경력도 다르지만 언제나 이 믿음을 마음속에 신념의 기동으로 굳게 세우고 당을 따라 불타는 강도 넘고 험한 진펄도 헤쳐가면서 오직 한 궤도를 달려야 해 ! 언제나 한 궤도를...》

김명수는 운전실등을 켜며 머리를 들었다. 앞차창으로 가슴을 펴고 웃음을 지으며 앉아있는 김종국아버지의 듩직한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보석처럼 빛나는 위훈이 가득차있는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무엇인가 마음속의 걱정을 터뜨리고싶었다.

(내 언제나 이 궤도우에서 물려섬도, 드림도 없이 기관차와 함께 충성의 위훈을 떨쳐가리라 !)

김명수는 힘껏 운전대를 당겼다.

피줄기처럼 심장에서 심장으로 줄기차게 흐르는 그 억센 신념의 웨침인양 렬차는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대지를 주름잡아달렸다.

기관차앞에 새겨진 상징적인 붉은 기발이 동터오는 새벽빛속에 산 기폭처럼 날리며 빛을 뿌렸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격탐구를 위하여

박용학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탐구으로!》, 《새로운 성격창조으로!》 정력적인 사색가이며 진리의 탐구자인 작가의 사색과 환상, 지향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내가 새롭게 포착한 문제도 아니며 또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제기된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오늘처럼 이 문제가 우리 문학에서 그토록 절실한 미학상의 문제로 제기된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본다.

문학에서의 새로운 인간의 탐구와 성격창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작가들의 열망이며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이다. 이 요구는 인간의 자주적 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진데 따라 더욱 증대되며 절실한것으로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격탐구를 위하여 나서는 미학상의 문제는 어떠한것이겠는가.

1. 우리 시대 주인공의 전형창조에서 인생관, 신념, 지성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소설문학에서 창조하여야 할 주인공의 형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사회주의현실주의의 소설들에서 창조하여야 할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에서 어느 고리를 반드시 풀어야 하며 어떤 문제에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하겠는가.

여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미학상의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현시기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긍정적주인공을 전형화함에 있어서 그를 주체의 인생관을 신념으로 간직한 형상으로 전형화한 기초우에서 높은 지성세계를 가진 인물로 그리는 문제이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주체의 인생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의 지성세계를 높게 형상화하는것, 이것이 작가들이 모색하고 탐구하고 창조하여야 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격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나는 최근에 발표된 현실주의의 일부 중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을 보면서 왜 성격이 깊이가 없고 뻔드름하며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구경은 인물들이 사고하고 부지런히 사업하는것으로 그려지기는 하였으나 인생과 삶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뚜렷하지 않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신념도 없는 인물로 묘사되었기때문이며 지성도가 극히 낮게 그려진데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사람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삶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립장과 태도, 관점을 가지게 된다. 즉 어떤 삶이 가장 보람있고 긍지높은것이며 사람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일정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 삶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곧 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주체시대 인간들이 가져야 할 참다운 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며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기 위한 생활과 투쟁의 지침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인생관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므로 삶에 대하여 일정한 제나름의 견해와 관점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사람의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은 사상의식과 동떨어져서 진행될수 없으며 삶에 대한 이러저러한 관점과 견해와 무관계할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실천활동은 그 모두가 다 혁명적세계관과 함께 인생관에 기초한것이며 그로부터 발현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종자와 주체의 특성에 따라 어떤 작품에서는 인생관이 옳바로 선 인물을 그릴수도 있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그것이 바로서지 않은 인물을 묘사할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또 어떤 작품들에서는 인생관의 어느 한 측면만을 깊이 파고들어 그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설들에서 특히 긍정인물들을 전형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견해와 관점으로서의 인생관을 신념으로 삼고있는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나름의 인생관을 신념으로 삼고있는 인물로 성격을 전형화하는것, 이것이 우리의 소설문학에서의 성격의 깊이를 보장하고 작품의 철학성을 구현하는 길이며 또한 여기에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전반적으로 한단계 추켜올리기 위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영화문학 《월미도》의 주인공 리태운의 형상은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시사적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의 가장 준엄하고 엄숙한 순간에 처한 리태운은 뜻밖에도 애인이었던 너군의

가 자기를 못내 잊지 않고있으며 설사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하여도 자기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뜻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바이, 전 생을 떠난다고 해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유감스러운것이 없습니다...》

이제 몇분후이면 꽃다운 청춘을 바쳐야 할 순간, 꿈결에도 잊지 않았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자기는 먼저 가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생을 떠난다 해도 아쉬운것이 없으며 유감스러운것이 없다고 한 리태운의 이 의미심장한 대사속에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주체의 인생관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리태운은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마련하는데 바쳐진 생이 비할바없이 더 아름답고 가치있다는 립장과 관점에서 삶을 대하는 숭고한 인생관을 가진 영웅-전사이며 그러한 인생관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이다. 여기에 리태운의 성격의 깊이가 있으며 형상의 심오성과 철학성이 있는것이다.

꽃다운 청춘을 조국에 바친다는것은 그지없이 숭고한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누구나 할수 있고 쉽게 이루어질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이 섰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인간만이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한 성전에 바친 생을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생으로 받아들이는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의의 소설들에서도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이 성격의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게 되자면 인생관, 신념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저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식으로 인간과 생활의 결면만을 볼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시대의 인간으로서 삶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나날을 보내는가 하는 인생관의 밑바탕을 파고들어 묘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인생관의 바탕위에 성격을 확고히 세우고 전형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에 나오는 부정인물 오성민은 과연 어떠한 인생관을 신념으로 하고있는 사람인지 잘 알수 없다. 작품에서는 그가 기술자로서 나중에 돌아올 책임이 두려워 최명균기사가 내놓은 230만대발파설계를 반대하는것으로 그려졌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화된 논리이며 인간과 생활을 피상적으로 고찰한데서 오는 하나의 표현이다.

오성민은 기사장이며 지식인이다. 그의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사상의 반영이며 삶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오성민에게도 자기 나름의 삶에 대한 관점과 립장으로서의 인생관이 있을것이고 그것을 그는 신념으로 하고있었을것이다. 그에게서 발현되는 부정적 측면은 모두 그의 인생관에 기초한것이며 《신념》으로부터 우러러나온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화하려면 마땅히 인생관문제에까지 파고들어가야 하며 그 기초우에서 부정면을 예리하고도 진실하게 제시하여야 할것이였다.

지식인으로서, 기사장으로서 오성민의 성격을 무게있는 성격으로 전형화하고 그에서 사람들이 교훈을 찾게 하자면, 그리고 오늘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긍정인물들이 일정한 세계가 있는 웅심깊은 형상으로 독자관중들을 사색하게 하려면 결정적으로 인간탐구와 성격의 전형화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에 접착될것이 아니라 그 바탕, 근원으로 되는 인생관, 신념에 대한 문제를 다쳐야 하며 그것을 형상화하여야 한다. 오성민은 인생관이 바로 서지 못한 지식인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인생관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인생관을 신념으로 하고있는 사람인가를 작가는 작품에서 보여주어야 하였다. 인물형상이 인생관의 측면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져야 그 형상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게 되고 생활의 진리를 체득시켜주게 되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지는 매 인물은 자기류의 인생관을 신봉하는 형상으로 창조되어야 하며 그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하고 신념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을 탐구하고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인생관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물형상으로 전형화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성격창조의 심오성, 철학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새 인간의 탐구와 성격창조에서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것은 이 문제가 성격탐구와 창조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미학상의 문제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그 삶의 가치가 규정된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은 사람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과 그 후계자가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삶이 아름답고 가치있는 삶이며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는 삶이야말로 정녕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며 최대의

행복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인생관에서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인생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은 마땅히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할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인생관이다.

여기에 사람 일반이 아니라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한 자주적인간의 사상정신적높이와 품모가 있으며 문예작품에서 형상화하여야 할 우리 시대인간들의 비할바없이 높은 성격적특질의 하나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성격형상화에서 인생관, 신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것은 성격의 근본바탕을 밝혀내는 문제이며 인간과 그 생활을 현상적으로 결면만 훑던데로부터 그 내면세계에 육박하고 본질에 침투해들어가는 전환적과정으로 된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격을 탐구하고 형상화함에 있어서 그를 인생관의 바탕위에 세우고 전형화를 실현하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과 생활의 근본바탕을 뚫고들어가 전형화를 실현하는 이러한 성격창조는 혁명적세계관과 미학관이 확고히 섰을뿐아니라 항상 새로운 인간의 탐구를 위하여 모색하고 사색과 환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작가의 하나의 인간생활이다.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현상을 보아도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깊이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그 무엇인가를 포착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는 작가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격탐구를 위한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생관의 바탕위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지성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 문제이다.

지성도는 한 인간의 정신세계의 높이를 보여주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성세계를 떠나서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높이에 대하여 결코 이야기할수 없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 지성세계에 대한 묘사문제는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적극 다그쳐지고 심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정과 관련되며 이러한 현실에 의거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화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관련된다. 오늘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인민의 지성세계를 그린 문학작품은 이 면에서 지난 시기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소설문학의 실패는 그렇지 않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이 심화된 오늘의 현실을 취급한 소설에서의 주인공이나 천리마운동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의 생활을 형상화한 작품에서의 주인공이나 지성도에서는 별로 구별되는것이 없는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작

가들이 시대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인민들의 높은 지성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탐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것이다. 높은 지성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작家的탐구가 부족한것이 오늘의 소설문학의 창작실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소설을 비롯한 작품들에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지성세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진지한 탐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높은 지성세계의 묘사는 우선 인물들의 사고활동에서 주어져야 한다.

사람들의 지적수준, 지성세계의 높이는 사물현상과 부딪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유, 사고의 수준에서 표현된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며 받아들이기때문에 많은 경우 객관적현실과 부딪치는 과정에 있게 되는 사고의 수준은 같을수 없으며 사람에 따라 각이하지 않을수 없다.

작품에서는 사람의 준비정도에 따라 서로 각이하게 드러나는 지성도를 진실하게 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인민들의 지성세계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안목과 차원에서 정당하게 형상화하는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높은 지성세계의 묘사는 또한 인물들의 실천행동과 대사항상에서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작품에 반영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대사항상을 높은 지성세계를 보여줄수 있게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정신세계, 지성도는 직접적으로 대사에서 표현된다. 대사는 그 사람의 사상정신도덕적 품모를 반영하며 품위를 보여준다. 대사는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각이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주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대사는 그 인간의 개성적특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성격적인 대사로 되여야 하는것과 함께 지성도를 보여주는 대사로 되여야 한다.

대사항상에서 지성도를 보여주는 문제는 작품에서 비단 지식인울을 그리는 경우에만 제기되는것은 아니다. 지식인형상에서는 두말할것도 없이 지식인으로서의 지성세계를 보여주는 대사로 되여야 하고 지식인이 아닌 인물들의 형상화에서도 오늘 우리 인민의 높은 수준에 이른 사상, 기술, 문화의 수준이 웅당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대사항상이 일정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우리의 일부 중편소설들에서의 대사항상은 그 수준이 매우 낮은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높은 지성세계와 고상한 품위를 진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소설들에서의 대사는 단조롭고 딱딱하며 비유가 적고 인상깊고 뜻있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사가 직선적이고 깊이가 없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하고 사색하게 하

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대사가 많지 못하다. 대사가 이와같이 특색이 없기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 인물의 정신세계의 높이를 가늠할수 없으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성세계에 있는 인물인지 알수 없다.

우리의 작가들은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져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 우리 인민들의 지적수준에 맞게 대사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정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2. 풍부한 정서를 !

풍만한 정서는 서정적묘사방식에 의거한 작품들에서만 제기되는것이 아니다.

생활을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문학에서는 정서를 떠나서 성격을 감명깊게 창조할수 없으며 미적감흥도 불러일으킬수 없다. 정서는 생활과 투쟁의 심오한 진리를 감성적으로 체득시켜주어야 할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정서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근로자들은 높은 사상정치성과 함께 풍부한 정서를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문학에서 시대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를 풍만한 정서를 가진 인간으로 형상화하는것은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로 제기된다.

감정정서세계는 인간의 내면세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사람은 사상의식과 함께 감정정서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위세계와의 관계에서 예민한 감성적반응을 나타내며 다양한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된다.

정서란 구체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체험되는 감정과정, 감정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감정도 구체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서로 다양하게 체험될수 있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사람의 관계, 태도가 주관적으로 체험될 때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등 다양한 색깔의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정서는 감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인간의 감정이 사람들의 심리생활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영역을 포괄하고있다면 정서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미세한 감정상태를 섬세하게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은 고상한 정신생활의 발현으로 된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들에는 정서를 돋구기 위한 창작가들의 탐구와 노력의 흔적들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에서는 새벽에 고기잡이를 하는 생활적인 장면들이 묘사되어있고 《높은

곳으로》에는 정희와 혜심이라는 두 녀인이 내가에서 이야기하면서 자연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감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두 소설에서 보여준 장면들은 창작가들이 작품에 정서가 풍기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정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며 작품에 정서를 돋구기 위한 창작적의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환영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한 측면을 생각해게 된다. 그것은 소설들에서 흔히 정서를 내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담소하는것과 같은데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우리 시대 주인공의 전형창조에서 그에게 풍만한 정서를 체현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가지 경우를 예상할수 있을것이다. 그 하나는 같은 대상에서 환기되는 현상과 관련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정서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의 각이한 계기마다에서 감수하게 되는 정서이다. 전자의 경우는 같은 대상에서 여러 인물들이 제각각 느끼는 정서에 대한 문제라면 후자의 경우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각이한 대상, 여러 생활현상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우리의 소설들에는 한 대상을 놓고 각이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감수하는 정서가 사색깊게 그려지지 못하고있다.

사물현상이 다양하며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받아들이는것이 제각각인것만큼 정서자체는 다양한 색채를 띠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는 문학작품들에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정서를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하여 생활과 인간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작가가 작품에서 형상화하는 인물들에 대한 개성적파악이 없이는 그만이 감수하게 되는 독특한 정서를 도출할수 없으며 다감한 필치로 그려나갈수도 없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정서를 풍길수 있는 다양한 생활계기들과 정황, 대상들을 잘 탐구하는것이다.

정서는 어떤 특정한 생활적계기에서만 발현되는것이 아니다.

《탄전의 주인》이나 《높은곳으로》에서처럼 밤중에 탄부들이 고기잡이를 한다거나 내가에서 산천을 감상하는 생활계기에서만 정서를 느낄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계기들에서 정서를 풍기기 위한 시도들이 지난 시기 적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것일수 없다.

정서는 인간생활의 끝없이 다양한 국면들과 계기들에서 나타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은 그대로 노래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다.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실천활동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없이 많으며 그자체가 랑만적인 생활이며 혁명적인 정서로 충만되어있다.

생활과 투쟁속에 랑만이 있고 정서가 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속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운 정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섬세하게 그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의 제현상과의 관계속에서도 정서를 자아내게 할수 있을것이다.

사시장철 변화되어가는 조국의 수려한 자연풍경을 감상하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정서를 느낀다.

새움이 푸릇푸릇 움터오는 길가의 나무가지들과 보송보송 살진 버들개지를 보고도 사람들은 다감한 정서를 느끼게 되며 푸실푸실 내리는 첫눈을 보고도 그리고 바위층령에 피빛으로 물든 단풍을 보고도 깊은 정서를 감수하게 될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애의 주먹만한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는 설달그믐날의 밤길을 사색에 잠겨 걸으면서 흘러간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희망찬 새해의 결의를 다져나가는 모습을 그리면서도 정서를 자아내게 할수 있을것이다.

예술작품은 사색과 다감한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소설들에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황홀한 정서세계에 잠겨있는 인물들의 인상깊은 형상도 창조되어야하며 바로 그것을 땀수 없는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하고있는 인간들의 높은 세계가 그려져야 한다.

우리의 소설가들은 근로자들의 희열에 넘친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이 작업이 끝난후 극장이나 문화회관에 가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정서를 키워나가는 것도 형상화할수 있고 집에서 이름있는 명곡들을 감상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해나가는 생활도 탐구하고 묘사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설들에는 명곡들을 감상하고 미술작품들을 보면서 예술의 숭고한 세계와 인간생활에 대하여 뜻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상한 정신생활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 못하고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탐구가 심히 부족하다.

우리의 소설들에는 또한 끊임없이 독서를 하면서 자기의 인식의 세계를 점차 넓혀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형상도 창조되어야 하며 청춘남녀들의 애정윤리생활도 감동적으로 묘사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우리의 소설들에는 애정윤리관계가 적지 않게

설정되고있다.

참된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동반한다.

사랑은 사람들의 고상한 정신생활의 발현으로서 삶의 목적과 지향, 사상과 감정의 공통성에 그 기초를 둔다.

그런데 애정윤리관계를 설정하고 묘사하였다고 하여 작품에 정서가 스스로 풍기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떠한 관점과 립장에서 보며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벗이 되고 동지가 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는 지향과 의지로 굳게 련결된 애정, 사랑만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애정윤리만이 근로자들에게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참된 사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세워주는데 이바지된다.

정서가 메마르면 사업과 생활에서 열정도 나을수 없고 래일에 대한 나래치는 랑만도 있을수 없다.

혁명성이 강하면서도 정서가 풍부한 인간, 이러한 사람이 현실주체의 소설들에서 형상화하여야 할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이며 참된 전형들이다.

3.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자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독창성은 발견을 전제로 하며 그것 없이는 창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종자와 성격이 새로운것이건 구성형식과 양상이 새로운것이건 어쨌든 문예작품은 형상이 창발적이어야 하며 독창적이어야 한다.

거기에서도 특히 중요한것의 하나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이다. 주인공의 형상이 새롭고 독창적일 때 그 작품은 전반적으로 참신한것으로 된다. 그것은 작품에서 형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서있어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설문학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발전력사와 인류문예사는 명작, 걸작치고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지 않은것이 없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명작, 걸작은 독특한 개성적성격의 창조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개성들로서 특정된다.

그렇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의 심오한 사상은 독특한 개성적성격의 창조를 통하여, 것처럼 힘있게, 것처럼 감명깊게 밝혀졌다.

우리는 이러한 고전적모범에 비추어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소설들에 형상화된 인물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중편소설들인 《탄전의 주인》과 《높은곳으로》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비롯한 인물형상들은 뚜렷한 얼굴이 없으며 그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소설들에 나오는 인물들은 많은 경우에 류형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탄전의 주인》에 나오는 긍정인물들인 리명균 기사와 부정인물 오성민기사장 그리고 리명균의 애인인 영실의 형상들은 독특한 개성들이 없는것으로 하여 별로 인상에 남는것이 없다.

리명균은 부지런한 기사이며 오성민은 한때는 일을 잘했으나 지금은 사상적으로 낡아져 돌아올 책임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인물이며 영실은 처녀로서 리명균기사를 극진히 생각하는 녀자이라는것 외에 독자들에게 특별히 주는것이 없으며 두드러진 개성적특성들이 없다.

《높은곳으로》의 최진혁과 문학봉, 혜심의 형상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두 중편소설들을 통하여 작가들이 인물들의 개성화를 위하여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색하지 않았으며 열정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르지 않을수 없다.

파연 작가가 작중인물들의 개성을 완전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붓을 들었으며 성격의 개성적특성들을 모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하였는가 혹시 인간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기전에 기술실무적인 이야기거리를 잡아쥐고 그에 흥미를 느끼던 나머지 개성적인간의 성격창조를 도외시 하지나 않았는가.

작가는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작품에 설정된 인물의 구체적인 사상상태를 포착할뿐아니라 개성적인 기호와 취미, 특징들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한다.

작가가 성격을 탐구했다고 할 때에는 인물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개성적인 기호, 특징들을 다 같이 정통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작품에서는 인물을 전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에게만 있는 고유한 기호와 취미, 특징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의 소설문학에서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의 하나는 인간관계설정에서 도식과 류사성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는것이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독창성과 개성적성격의 창조에서 전제로 되며 출발점으로 된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주인공의 운명이 규정되어지고 작품의 형상전반이 좌우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들에서 청년인 긍정인물과 대체로 부직간부인 부정인물이 대립되어 있고 그사이에 긍정인물과 애정관계에 있는 처녀를 등장시키는것과 같은 인물설정은 이제 너무나도 싫증날 정도로 보아온 설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탄전의 주인》과 《높은곳으로》에서의 인간관계설정이 바로 이렇게 되어있다.

이 주제의 중편소설들에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설정된다면 단편소설들에서는 주로 애어린 처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것이 하나의 도식처럼 되어있다.

사람들의 사회적관계가 단순치 않고 다양하며 심히 복잡한것만큼 문예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 역시 절대로 단순화될수 없으며 더우기 몇개의 류형에 국한될수 없는것이다. 인간관계는 각이하게 설정되고 풀려나가야 한다. 여기에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판에 박은 인간관계속에서는 독특한 개성이 창조될수 없으며 작가의 장기가 발휘될수 없다.

우리의 현실주제의 소설들에는 주로 처녀들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할것이 아니라 폐기와 정열에 넘치는 청년들이 설정되어야 하며 40대 50대의 녀성들도 주인공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각이한 세대의 인물들과 남자와 녀자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야 할뿐아니라 개성에서도 다양한 성격들이 적극 탐구되어야 한다. 《탄전의 주인》에 나오는 영실이와 《높은곳으로》에 나오는 혜심이는 생동한 개성으로 형상화되지 못한 인물들이다. 이 처녀들에게서는 그들에게만 고유한 개성적특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처녀들의 꿈은 무엇이며 어떤 특기와 기호들을 가지고있는지, 사람은 보다 사색형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와는 달리 동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처녀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얼굴을 묘사할수 없는것이다. 생활속에는 늘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날랜 동작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는 속대가 굳은 녀성이 있는가 하면 좀체로 웃음을 보이지 않으나 속으로는 늘 희열에 넘쳐 남모르는 랑만과 정서에 묻혀있는 내성적인 녀성도 있을수 있다.

사색과 열정도 20대나 30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왜 우리의 소설들에는 청춘들과 함께 40대나 50대의 사람들이 래일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랑만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열정으로 불태우면서 생활해 나가는 인상에 남는 독특한 성격, 개성들을 창조하지 못하고있는것인가.

실지 생활에는 매혹적인 개성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소설가들은 눈은 흔히 묘사하는것처럼 그렇게 빛나는것은 아니나 늘 생각에 잠겨있는듯 한 은근한 눈에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띠우고있는 처녀의 초상을 그릴수도 있다. 또는 다소 놀라는듯한 눈에 웃을 때에는 온 얼굴에 함뻍 웃음을 담으면서 천진란만하다고 할 정도로 순진성과 소박성을 그대로 드러내보고있으나 일요일에는 항상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면서 사색을 정리해가며 퇴근길에는 전차나 버스를 탈수도 있으나 매일 10여리길을 조용히 홀로 걸어가면서 명상에 잠기기를 즐기는 40대의 여성들의 독특한 개성도 창조할수 있을것이다. 작가는 사람들의 개성은 옷차림이나 몸단장에서도 드러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가령 작가는 여성들의 독특한 개성을 창조함에 있어서 흔히 쓰는 머리수건하나를 가지고서도 그의 개성의 한 측면을 인상깊게 제시할수도 있을것이다.

작가는 한 여성은 연분홍색갈의 머리수건을 좋아

하는것으로, 다른 여성은 하늘빛색갈의 머리수건을 즐기는것으로 그릴수도 있고 또 어떤 여성은 유독 단풍이 타는듯한 피빛의 빨간머리수건색갈만을 좋아하는것으로 형상화할수도 있다. 이중에서 빨간색갈의 수건만을 좋아하는 여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는 아마도 정열적인 여성일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체로 사업도 정열적으로 하고 사랑도 열정적으로 할것이다. 이러한 개성의 여성들은 늘 사색과 탐구,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 심장이 불타고있는 것이다.

작가는 열정도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작가는 생활에서 열정을 쉽게 터뜨리는 인간을 형상화할수도 있고 또 그와는 달리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열정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있다가 어떤 생활국면제기에 가서 정녕 무쇠도 녹일듯한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열의인의 심오한 형상도 창조할수 있을것이다.

작가는 이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의 개성들을 탐구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맥박과 거센 숨결이 느껴지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영웅적현실을 더욱 빛나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풍어의 노래 외 1편

오재신

동해라 천리어장에
풍어의 노래 울려퍼지니
이 여름엔 은빛 정어리
포구마다 장훈을 불리라

물결 출렁 춤을 추어라
내리는 그물에 고기떼 몰아넣어라

얕은 바다 물고기는 작은 배에 오르고
깊은 바다 물고기는 큰배에 넘쳐나네

갈매기도 훨훨
풍어의 노래안고 날아라
가까운 바다도 풍년 먼바다도 풍년
수령님 높은뜻이 온 바다에 꽃피였네

날바다 만선의 기쁨일세

에헤라
수평선우에 두둥실 아침해 솟는다
동무여 어서가자 저기 저 바다로
갈매기도 훨훨 내 마음도 훨훨

에헤라
배머리에 펄펄 풍어기 날린다
동무여 어서가자 고기한배 싣고

배전에도 넘실 가슴에도 넘실
날바다 만선의 기쁨일세

에헤라
물머리너머 훨훨 갈매기 날은다
동무여 어서가자 노래 한배 싣고
물결도 출렁 자랑도 출렁
조국을 만드는 기쁨일세

곧추가자

리대삼

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나는 얼마전 북부철길건설장을 찾아 취재의 길에 오른적이 있었다.

나는 뜻밖에도 몇년전에 부대취재차로 한번 만났 적이 있는 리동무를 만났다.

도드라진 퇴박이마밑에 술진 눈섭, 그밑에서 금시 불이 뿜겨져나오는듯한 번쩍거리는 눈망울, 선이 날카로운 코마루가 여전한 리동무였다.

아니, 여전한것이 아니였다. 많이 달라졌다. 몇년 전에 그를 만났을 때에는 몸이 어느 정도 약한편이었으나 지금은 쇠돌처럼 단단해졌고 노란 령장에 은빛별이 반짝이던 그의 탐탁한 두어깨에 오늘은 색이 바랜 작업복이 가쁘히 걸쳐져있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군요 !》

우리는 로반우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함께 걸느라니 몇년전 그가 사업하던 군부대로 찾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취재하던 기억이 생생히 돌이켜진다.

…초겨울에 어느날 그의 부대는 가선훈련에 나갔었다. 초겨울이라 하지만 날씨는 여간 맵파지 않았다. 살얼음이 살짝 낀 《ㅅ》강우로 통신선을 직선으로 가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갓 입대한 한 젊은 병사는 강을 건느기전부터 잔등이 오싹하고 이가 딱딱 마주치는지 훈련인데 줄에둘더라도 상류쪽으로 올라가 늘이면 어떤가고, 선로를 바꾸자고 했다. 그러자 리동무의 얼굴색은 벼돌빛으로 변했다.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하는가? 요즘한 살얼음에 겁을 먹어 지휘관의 명령을 에누리하고 흥정하자는 거요 !》 리동무가 먼저 강물속에 뛰어들었다.

하기에 전사들은 자기 지휘관을 두고 곧잘 《직선지회관》이라고 말하기 좋아했다.

통신선은 제때에, 어김없이 늘어졌다.…

우리는 어느덧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간 《ㅅ》철교에 이르렀다.

《ㅅ》철교는 얼핏 보때 그 길이가 수백메터나 되는 실로 장쾌한 맛을 주는 다리였다. 철교의 교각이 어찌나 높은지 용용히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강물을 로반우에서 내려디보느라니 나는 현훈증이 일어나는것 같아 리동무의 팔을 슬그머니 붙들었다.

《대단한데. 이 철교를 동무네들이 건설한단말이지?…》 연방 감탄을 터뜨리던 나는 고개를 들고

리동무를 바라보았다. (음? ! 왜 그럴가?) 리동무의 낮빛은 알릴듯말듯 어두웠다. 나는 그에게 어디 몸이 편치않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리동무는 그제야 낮색을 밝게 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요즘 나는 이 철교우에 설 때마다 자신을 항상 반성해보는 버릇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성 ?》

《예,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리동무는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 부대앞에는 두 강줄기가 합쳐지는 합수목인 여기에다 철교를 놓아야 할 전투명령이 내려졌다.

합수목이어서 강수량이 대단했다. 어찌 그뿐이랴. 얼마전에 비까지 내려 산골짜기에서 쏟아져내리는 강물의 속도가 보통이 아니였다.

말겨진 임무를 제기일에 수행하려면 한시바삐 교각을 세울 기초구덩이를 파야 했다. 그러자니 물길을 돌려야 했다.

그들은 처음에 모래가마니를 마련해가지고 강폭을 가로질러보았지만 몇미터 못나가서 물살은 빈가마니를 날려버리듯 모래가마니를 밀어던졌다.

일은 정말 난처했다. 힘에 부친 일감이었고 제기일에 보장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흔히 이런 경우 철교위치를 옮기는것이 일쑤이고 상례로 되어있다. 그날 자리에 누운 리동무의 마음은 피로왔고 머리속은 번거롭기만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상급에 제의해서 위치를 옮기자고 해볼가? 그렇지 않으면 날자말미를 더 주든가 새로운 기계를 더 달라고 제의해볼가?

이부자리 기장을 보면서 발을 펴겠다고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안될걸 가지고 지내 욕심을 부리는게 아닐가? …)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다. 그러나 잠시후 리동무는 벌떡 일어나앉았다.

(내가 이 무슨 좀먹은 생각을 하는가? 당앞에 해내겠다고 맹세를 다졌으면 목숨을 내대는 한이 있어도 해내야지. 사람은 언제나 제힘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 당이 그어준 철길위치를 한치도 옮길수 없다 !)

무슨 일이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막혔던 구멍도 열려지고 안된다고 생각하면 열린 구멍도 막혀보이는 법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번개치듯 하나의 착상이 떠올랐다.

그 이른날 아침이었다.

《출발!》 리동무의 구령이 강물위로 메아리쳐 갔다.

그의 구령이 떨어지자 막돌을 듬뿍듬뿍 실은 수많은 떠목이 강아래로 내려갔다. 떠목에 막돌을 싣고 내려가면서 강북편에 일정한 곁으로 먼저 뚝을 쌓은 다음 거기서부터 사선으로 강쪽 절반을 막아 버리자는 것이다.

울퉁불퉁 솟아오른 바위들을 누비며 강으로 흐르는 떠목행렬, 그것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말겨진 전투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고야말려는 그들의 불같은 충성심이 낳은 흐름이었다.

드디어 돌과구는 열렸고 제기된 한달이 아니라 열흘동안에 교각을 세울 기초구덩이들은 완성되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영원히 땅을 따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의 드물지 않는 신념이다. 이 신념은 용감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신념이 없으면 때로는 험난한 가시덤불도 헤쳐야 하고 피도 흘려야 하는 혁명의 길에서 승리할수도 없으며 그런 사람은 혁명전사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왜서인지 나의 뇌리에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선명히 살아났다.

언제인가 외국의 한 벗이 천리마동상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엄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다가 같이 동행한 우리 일군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어찌하여 이처럼 진실하게 형상된 천리마동상에 고삐가 없는가고.

리해되지 않을수 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 천리마동상을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수 있는 의문이며 조형예술적으로도 웅당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천리마동상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굴할줄 모르는 조선의 위대한 정신과 불패하는 우리 혁명의 상징이다.

하기에 우리의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천리마에는 고삐가 필요없다. 보통 말고삐라는것은 달리는 걸음을 멈춰세우거나 달리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리마에는 달리는 속도를 늦출 필요도 없고 도중에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그렇다. 우리의 천리마는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모르고 사소한 헛갈림도 모르며 승리의 곧바른 길을 따라 오직 곧추 앞으로만 간다.

굳기를 놓고 말할 때 바위와 물은 비교도 되지않

는다.

그러나 한달이고 두달이고 변함없이 한모습으로 같은자리에 떨어지는 물은 바위에도 구멍을 내는 법이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울 불타는 결의를 담아 바위벽에 신념의 구호를 새긴 영웅전사들, 그들은 공격하다 앞에 화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공격을 중지하고 지원포사격을 요구했던가? 안했다.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곧추 올라가 화점을 막고 고지우에 공화국 기발을 날렸다. 그들은 싸우다 탄약이 떨어졌다고 육박전을 두려워했던가. 아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바위를 굴러서라도, 나중에는 보병삽날을 바위벽에 갈아들고 원수들의 목대를 후려쳐 적들을 전멸케 했다. 하며 그들은 50년대를 금빛의 위훈으로 수놓았다.

어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도 세월이 가면 식어져 나중에는 하얀 재만 남게 되거나 오늘은 붉다가도 비바람을 막아 색이 연분홍색으로 바래는 사람을 어찌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혁명전사라 할수 있으랴!

우리가 가는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 굽이가 험하다. 그 길에는 발이 폭폭 빠지는 진펄이 놓여 있다.

하지만 마른자리를 찾아 쉬어갈데도 도돌아갈데도 없고 되돌아설수도 없고 또 되돌아서서는 안되는 오직 쉬임없이 난관을 돌파해나가야 하는 혁명의 길이다.

나는 거의 완공되어가는 《자》철교의 로반우를 걸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뿌듯이 차오르는 긍지와 자부심, 행복감을 금할수 없었다.

《기자동지, 아직은 로반이 험하니 내 짚은 말자국을 짚으며 뒤따라오십시오!》

나는 뒤를 따라갈수 없다.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거침없이 말했다.

《리동무, 나도 동무와 똑같은 80년대인간이요. ... 직무가 다를뿐이지 혁명임무야 똑같지 않소! 나도 이 길에서 〈후위〉가 아니라 〈척후〉를 서고싶단 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더니 리동무는 희이를 드러내고 자못 만족해서 통쾌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마음속에는 기쁨이 끝없이 출렁거리고 더없이 행복해났다.

조국땅 그 어느곳을 가보아도 나는 기계의 동음보다 충성으로 불타는 사람들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더 높고 울려 깊은 충격을 종종 받게 된다. 오늘도 나는 그런 충격을 받고 어제날의 《직선지휘관》, 오늘은 《곧추분대장》인 리동무와 함께 두줄기 레루를 따라 횡대로 나란히 걷는다.

고개를 드니 산정우에서 수리개 한마리가 역세게 날고있다.

검은금

-한 탄부의 이야기-

허인수

그날저녁 나는 어느날보다 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데리고오는 반가운 《손님》을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그 《손님》이란 우리 탄광 청년들의 최영식이라는 굴진공 총각인데 탄광마을 고등중학교 교원인 우리 딸과 자별한 사이라는것이였다.

집안일에 통 무관심하고 등한한 나는 여직껏 이것을 모르고있다가 오늘아침에 안해가 슬그머니 귀뜸해주어야 비로소 그렇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삼시에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였다. 다른 일엔 전혀 관심이 없어도 딸의 혼사문제에 대해서만은 벌써 이래저나 은근히 원심을 써오던차라 무등 반갑고 기뻐던것이였다. 그래 그 즉시 딸을 불러앉히고 저녁에 집으로 꼭 데려오라고 단단히 일러놓았으니 지금쯤은 아마 그 총각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나를 기다리고있으리라...

한데 집에서는 명심이 혼자 락심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웬일이냐? ... 안왔니?》

《네.》

딸애는 머리를 소곳이 숙이며 무겁게 한숨을 지었다.

《그 동문... 안오겠대요.》

《안오겠다구? 아니 왜?》

《그 동문 이제 몇달만 더 참으면 대학을 졸업하구 탄광 기술부에 배치받겠는데 그때 가서 땀땀이 찾아오겠대요.》

《뭐라구?! ...》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지금은 못오고 기술부에 배치받은후에 땀땀이 오겠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땀땀치 못해서 못오겠다는가? 탄부라고?

삼시에 노여움이 불끈 치받쳤다. 아서라, 그제 도대체 어데서 굴러온 버럭돌같은 녀석이냐, 탄전에 살면서 탄부가 된걸 부끄러워하다니! ...

나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애, 그녀석이 지금 어데 있느냐? 응? 당장 뛰여가서 그녀석을 불러어오너라. 이제 당장!...》

《...》

《어서! 귀가 먹었냐?》

《...》

《그럼 좋다. 네가 못가겠다면 내가 찾아가지.》
하고 내가 팔을 부르건으며 자리를 일어서자 딸애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나의 옷자락을 붙어잡았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까 따끔히 말해주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 그리구 사실 그 동문... 좋은 동무랍니다. 일도 잘하구, 공부도 잘하구...》

《듣기 싫다. 제가 탄부라는걸 부끄러워하는 녀석이 좋은 사람이라구? ...》

나는 다짜고짜로 딸애의 어깨죽지를 잡아일으켰다.

《가자. 가서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얼굴이나 좀 보자.》

그로부터 얼마후 나는 탄광합숙 앞마당에서 딸애가 불러내온 그 최영식을 만났다. 얼굴을 보니 매달 생산총화뒤끝에 탄광로동자문화회관에서 진행하군하는 혁신자 축하모임때마다 무대우에서 종종 보군하던 낯익은 녀석이였다.

몹시 어쭙은 기색으로 모자를 벗어취고 인사를 꾸벅하는 그녀석에게 나는 대뜸 큰소리로 따져물었다.

《자네 탄부가 된지 몇해나 되느냐?》

《저... 여섯해째입니다.》

《여섯해?... 그런데두 아직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산단말이지? 너 이녀석 석탄이 무엇인지는 알고있느냐?》

《석탄이요? ... 그야 물론... 전 지금 석탄공업대학 졸업반학생인걸요.》

《자네가 알긴 뭘 알아? 쥐뿔도 모르면서 큰소리내길... 저기 좀 가자. 내 오늘 네녀석한테 석탄이 무엇이고 탄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톡톡히 가르쳐주마!》

하고 나는 무작정 그를 지척에 바라보이는 옥천강변 모래불쪽으로 잡아끌었다.

바빠맞은 명심이가 열린 나의 옷자락을 쥐여당기며 애원조로 다급히 속살거렸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네?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빌어요.》

하지만 나는 짝 틀어진 그녀석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딸애의 손목까지 덩석 거머쥐었다.

《너두 같이 가자. 장차 이 못난녀석과 함께 살려면 석탄이 무엇이고 탄부가 어떤 사람인지 톡톡히 알아야 해.》

이렇게 되여 그날밤 나는 딸과 시위가 될 사람량옆에 세우고 자성이 넘도록 버들숲 우거진 옥천

강변 모래불을 거닐게 되었다.

×

거의 반시간동안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물을 거슬러 자꾸자꾸 상류쪽으로 올라가기만 했다.

참다못해 영식이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어떤 욕이든지 다 달게 먹겠습니다.》

《좀더 올라가자구. 저기 저 옥천견빙직공장앞에 있는 다리목까지만…》

《다리목이요?… 아니 그 공장앞에 무슨 다리가 있단말입니까?》

《왜 없다고 그래. 있어두 아주 훌륭한 다리가 있지. 그건 오래전에 내가 놓은 징검다리야. 그 다리 이름이 뭘지 아냐? 〈오작교〉라네. 리몽룡이 춘향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오작교〉란말일세.허허…》

나는 꺄꺄 웃으며 감회깊은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8년전, 군복을 갓 벗었던 그 시절에 우리 제대군인 탄부들에게는 장가를 들어 가정을 꾸리는것이 급선무였다.

하여 우리 제대군인탄부들은 먼지오른 군화들을 번쩍번쩍하게 닦아신고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강 건너 맞은쪽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옥천견빙직공장을 찾아가 그곳 처녀들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까짓 처녀와 친하는 것쯤 뭐가 그다지 힘든 노릇이라했었다. 한테 정작 부딪쳐보니 세상에 그처럼 힘겹고 맹랑한 노릇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처녀들은 우리 제대군인탄부들을 반갑게 대해주긴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답은 섣뜻 주려 하지 않고 애간장만 태워주었다.

이것은 성미가 급하고 자존심이 강한 우리 제대병사들의 자존심을 몹시도 상하게 만들어놓았다.

《젠장, 차라리 적후에 들어가서 미군장교놈들이나 한 너댓놈 붙들어오는게 낫지 이거야 어디 속상해서 해먹겠어? 여!- 난 오늘저녁부터 싹 걸어치 우겠으니 동무도 그렇게 하라구.》

하고 어느날저녁 내가 한호실에 있는 최만호앞에 장기관을 내놓고 마주앉으며 불이 부어 두덜거리자 그는 히죽히죽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는것이였다.

《분대장동무! 난 오늘저녁 서옥단동무와 영화구경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래도 싹 걸어치 우랍니까?》

《아니 뭐?!… 동무 그제 정말이요?》

《정말 아니구요. 지금쯤 아마 저쪽 산기슭 벼들숲에서 이쪽을 건너다보며 기다리고있을겁니다.》

《차- 이 친구. 그렇다면 벌써 갔어야지 뭘 꾸물

거리고있어? 응? 어서 가라구. 어서…》

하고 나는 급히 그의 등을 떠밀어보내며 우스개소리로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여, 듣자니 처녀들이란 흡사 꽃향기와도 같아서 한번 훌쩍 취하게 만들어주고는 어데론가 온데 간데없이 홀- 날아가버리기도 잘한다더군.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심하라구. 알겠나? 하하하…》

그날밤 나는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하고 얼치락뒤락하며 최만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친구 이거 왜 아직 안돌아올까? 아마 영화관에서 나오는길로 또 공장 어느 공원을 찾아간 모양이지?… 좌우간 그 친구 날새단말이야. 분대장도 아직 어찌지 못하고있는걸 상등병이 선교를 뺏으니. 하기가 그 친구 니보다 훨씬 잘난 미남자니까 그럴수밖에 있나…)

최만호는 자정이 썩 지나서야 돌아왔다. 한테 웬 일인지 초저녁엔 그렇게도 희색이 만면하여 웃으며 나갔던 사람이 우거지상이 되어 들어서는것이였다. 나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앉았다.

《왜 그래? 혹시 놓쳐버린게 아니요?》

《…》

최만호는 대답을 않고 자기 침대쪽으로 터벌터벌 걸어가더니 옷도 벗지 않은채 침대에 우에 벌렁나가 누웠다.

《무슨 일이야? 정말 놓쳐버렸소?》

《흥, 놓친게 아니라 봐주고말았습니다.》

《봐주다니? … 그건 왜?》

《필요없으니까 봐주었지요. 글썄 그 처녀가 하는 말이 날더러 탄광에서 나오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때문에 나 한사람쯤은 얼마든지 탄광에서 뽑아줄수 있다는거지요.》

《뭘라구? 탄광에서 나오라구? …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대관절 무엇때문에 탄광에서 나오라고하는가말이요?》

《한마디로 내 직업이 맘에 없다는거지요. 다시 말해서 총각 최만호는 자기 맘에 들지만 탄부 최만호는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러면서 그 녀자가 하는 말이 세상엔 양복입구 넥타йма구 책상앞에 앉아서 일하는 직종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시꺼먼 탄가루를 온몸에 잔뜩 묻히면서 한뼘 탄캐는 일이나 하겠는가 하는거지요. 나 원참.》

《뭣이? … 뭐가 어쨌다구? … 아니 그래 동문 그 녀자가 그따위 소리를 할 때 그저 듣고만 있었어? 가만 있었는가말이요?》

나는 저도 모르게 벽력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정말 분통이 터져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우리가 캐내는 석탄을 시꺼멀다 어찌다 하는것도 분한 일이였지만 보다 더 분한 노릇은 총각 최만호는 맘에 들어도 탄부 최만호는 맘에 들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그렇다면 다른 처녀들도 비록 입밖에 내놓

고 말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것때문에 우리한테 결을 안주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 아서라, 사실이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바로잡아야할 심각한 문제로구나! ...

밤새껏 나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풀떡거리며 잠들지 못하고있다가 날이 밝기 바쁘게 합숙관리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함박꽃문양이 곱게 새겨진보자기를 하나 얻었다. 어찌면 바로 그 서옥단이라는 처녀가 짚을지도 모르는 그 꽃보자기안에 우리가 캐낸 석탄을 싸가지고 그 길로 나는 강건너맞은쪽의 옥천견방직공장 민청위원장을 찾아갔다.

나로 말하면 원래 잘못된 문제를 보고서는 잠시도 참아내지 못하는 성미인데다 객기 또한 상대방을 아연케 할 정도로 곧잘 부리는 축이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 옥천견방직공장 민청위원장이 어떻게 생긴 처녀인지 얼굴도 한번 본 일이 없었다.

정찰병출신의 어느 한 굴진공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녀자는 일찌기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몇해동안 도민청위원회 무슨 부장으로 사업하다가 바로 이태전에 이곳으로 배치되어온 처녀인데 사회적직위도 직위려니와 인물 또한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웬만한 총각들은 한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는 참으로 도고하기가 이룰데 없는 처녀라는것이였다.

그러니 어쩔단말인가!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라고 비판할바엔 그렇게 아름답고 도고하다는 처녀를 한번 움쩍 못하게 만들어놓고 제발 잘못했노라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것이 좀 좋은가!...

과연 그 녀자는 듣던바대로였다.

나는 그에게 깡뚝이 인사하고나서 무작정 꽃보자기부터 안겨주었다.

《위원장 동무! 약소하지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게 뭘데요?》

《선물입니다. 우리 옥천탄광 제대군인탄부들이 위원장동무앞으로 보내는거지요.》

《그래요?... 한데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그 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호기심을 금할수 없었던지 보자기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매듭을 풀어헤쳤다.

순간 그 녀자는 깜짝 놀라며 화닥닥 일어섰다.

그러건 말건 나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갔던 《연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어찌서 당신네 처녀들은 우리가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땀흘려 캐낸 석탄을 그렇게 홀시하는가!

당신네 처녀들의 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것은 가려볼줄 모르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양복인가 작업복인가 지도원인가 탄부인가 한것밖에 가려볼줄 모르는가! ...

할나간다 총나간다 가차없이 내쏘는 나의 항변에 그 녀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해쓱해서 서

있다가 말없이 주저앉았다.

그제야 나는 약간 속이 후련해지는것을 느끼며 자리에 서 일어섰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위원장동무한테 처녀들을 좀 똑똑히 교양해달라는것을 부탁하자고 찾아왔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처녀들이 죄다 그 서옥단동무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느 총각이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용약 초소로 달려나갈 것이며 어느 총각이 그들을 위해 수천척지하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캐내고 만리어장에 나가 고기를 잡아오겠습니까! 난 이제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히 고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날저녁 나는 최만호앞에 장기관을 내놓고 마주 앉으며 희떠운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 한판 두세나! 자넨 오늘 내가 저쪽에 건너가서 어떤 장기를 두고왔는지 모르지?... 단 한수에 꼭장을 시켰다네. 꼭장을! ...바로 그 기막힌 장기수를 내 이제 자네한테 배워주지.》

한데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그해 4월초순 어느 날저녁이었다.

일을 끝내고 합숙에 돌아와서 책을 읽고있는데 누군가 문을 툭툭 두드리는데가 있었다.

《누구요? ... 어서 들어오시우.》

하고 무심코 문을 열어본 나는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문밖에는 바로 그 녀자-옥천견방직공장 민청위원장처녀가 서있었기때문이었다.

《혼자 계시는가요?》

《예. 보다싶이 ...》

《좀 들어와도 될가요?》

《그야 물론...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 녀자는 방안으로 들어와서 한쪽 구석에 조심스레 쪼그리고 앉았다.

《두 번째로 만나뵙는군요. 그새 안녕하십니까?》

《예, 덕분에 ...》

《전번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통성도 못했는데... 전 김은옥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러지요. 난 현진국이라고 부릅니다. 한데 어떻게?... 이건 참 뜻밖이군요.》

《저 역시 그날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날밤을 저는 꼬박 뜬눈으로 지새웠답니다. 그 다음날 밤도 역시 그랬구...》

그러고보니 그 녀자의 얼굴이 그때보다 훨씬 축간듯싶었다.

나는 저으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지나치게 행동했지요.》

《용서라니요?! ...》

그 녀자는 황망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예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진국동무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전 오늘 동무한테 용서를 빌자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

나는 놀란 눈으로 그 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과연 이 녀자가 웬만한 총각들은 한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던 바로 그 처녀가 옳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 정도였다.

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자 그 녀자는 머리를 소곳이 숙이며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아마 저를... 용서해주실수 없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난 위원장동무가 이렇게 찾아와준것만도 송구스럽습니다. 굳이 용서를 바란다면 기꺼이 용서해드리지요. 하하...》

《고마와요. 그럼 전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그 녀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열결에 따라일어섰다.

나는 그를 바래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나섰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나는 그 침묵을 깨뜨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말을 걸기 시작했다. 꼭지는 내가 먼저 뻗으나 그 동무가 많이 물었다.

그날밤은 달이 밝았다. 그 녀자의 얼굴처럼 환하고 우아한 둥근달을 올려다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아, 제발 우리의 모든 처녀들이 바로 저 녀자처럼 얼굴도 마음도 한없이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공장앞까지 바래주고 돌아서는 나에게 그는 래일 강변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것이였다.

이튿날저녁 일을 끝내고 함속으로 돌아온 나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강기슭으로 달려나갔다. 약속대로 그 녀자는 벌써 저쪽 강기슭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군화를 벗어쥐고 침병침병 물살을 건너차며 급급히 강을 건너 그 녀자한테로 다가갔다. 그 녀자는 무척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오셨군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와요.》

《원 고맙긴...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런 약속이야 만사를 제껴놓고 우선 지켜야지요. 하하...》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강변의 모래불을 거닐기 시작했다.

저녁노을이 곱게 비친 옥천강반, 새들이 지저귀는 버들숲, 강변의 고요를 깨뜨리며 멀리멀리 메아리쳐가는 처녀들의 여무진 빨래방치소리...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반의 풍경을 정겨운

눈매로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희망과 포부에 대하여, 더더욱 아름다와질 옥천강변의 래일에 대하여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따금 빨래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처녀들과 또는 빨래를 하러 나오는 처녀들과 면바로 맞다들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자못 놀란눈으로, 몹시 의아해하는 눈으로 자기네 민청위원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는것이였다.

나는 저으기 계면쩍은 생각이 들어 그 녀자의 팔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난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러단 내가 위원장동무의 립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줄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알겠습니까? 처녀들속에서 위원장동무에 대한 뽀뽀한 소문이 나들게 될는지...》

《호호...그건 정말 진국동무답지 않은 걱정이군요. 안심하고 돌아가보세요. 그런데 래일저녁에두 시간을 낼수 없겠어요? !》 《래일두요? !... 그... 그러지요. 그래두 일없다면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들 겁낼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일이란 분명 좋은일밖에 없으니까요. 호호...》

과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저녁마다 어깨나란히 강변을 산보하곤하자 결달아 강변을 거니는 축들이 한쌍 두쌍 늘어나기 시작했던것이였다.

그렇게 한달남짓한 기간이 지나게 되자 강변에는 수십명의 젊은 제대군인탄부들과 직포공처녀들이 쌍을 지어 나타나서 무엇인가 정답게 속삭이고 열렬히 고백하며 어느새 날이 저물고 어느새 밤이 깊었는지도 모르게 되였다.

바로 그 강변에 최만호와 서옥단이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시 나타난날 저녁 민청위원장 김은옥은 기쁨에 겨운 눈매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왔다.

《이젠 됐어요. 저도 이제는 몇몇한 마음으로 진국동무를 대할수 있게 되었던말이에요. 사실 그때 제자신부터 그릇된 관점을 가졌으니 어찌 동무들을 교양할수 있었겠나요...저는 제 행동으로 동무들의 그릇된 생각을 돌려주려고 다짐했었지요. 그러니 이제는 진국동무의 부탁을 원만히 들어준셈이지요? 처녀들을 좀 똑똑히 교양해달라고 한 그부탁말이에요.》

《...!...》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무엇이 가 불뭉치같은 뜨거운것이 불쑥 솟구쳐오르더니 삽시에 온몸을 화끈하게 덥혀주는것이였다.

(아, 한길밖에 안되는 사람의 속이, 더구나 처녀의 속이 이렇게도 깊을수 있단말인가?...)

그날저녁 우리 옥천관광 제대군인탄부들은 옥천견방직공장 직포공처녀들과 함께 전진강앞의 버럭

산 꼭대기에서 농작같은 바위돌들을 굴러 내려다가 옥천강 여울목에 처음으로 든든한 징검다리를 하나 《건설》하였다. 그것 역시 그 녀자가 맨먼저 발기해나선것이였다.

힘이 장사갈던 그 시절에 우리 제대군인탄부들에게 있어서 그까짓 징검다리 하나쯤 놓는 일이 무슨 품먹일 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날밤 잠간동안이면 될줄 알았던 그 일을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끝낼수 있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였다. 때로는 흥겹고 즐거운 일이 힘겹고 고된 일보다 많은 시간을 요할수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그날밤 처음으로 알게 되였다.

일을 끝내고 각기 자기네 합숙쪽으로 헤어져 돌아갈 때 민청위원장 김은옥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래일부터 제가 이 강변에 나오지 못할것 같어요. 그동안 다른 일감이 수태 밀렸거든요.》

《아마 그럴테지요. 한데 뭐 이제야 더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동무로서야 그동안 나의 부락을 훌륭히 들어준셈이니 이제 됐지요.》

나는 어쩐지 서운한 감을 금할수 없어 약간 불만이 어린 소리로 통명스레 대꾸했다.

그러자 그 녀자는 빙그레 웃으며 한참동안 나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윽고 속삭이는듯한 어조로 나직이 말하는것이였다.

《진국동무, 언젠가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가까운 사람과는 될수록 멀리 떨어져있어야 보다 더 가까와질수 있다더군요. 전 그 말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싶어요. 호...》

×

《바로 여기다. 이제 그만 걸자.》 하고 나는 모래불우에 편안히 퍼터버리고 앉아서 담배를 한대 피워물었다.

《앉아라. 명심이 너도 앉고...》

이 다리가 바로 그때 우리가 놓은 그 《오작교》라는 다리다. 다리는 비록 변변치 않아도 이름이야 참 잘 지었지. 술한 처녀총각들이 이 다리를 건너가고 건너오며 서로 사랑을 속삭이다가는 가정을 이루곤했으니까...

우리도 바로 이 다리를 통해 서로 정을 나누다가 그 이듬해봄에 결혼을 했지. 우리의 부부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이었다는건 두말할것도 없지. 허나 날이 갈수록 나로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감이 들더구나.

명심이가 태어난 그해 가을부터 이에 어머니는 건방직공장 당비서로 사업하게 되었는데 그때문에 나보다 퇴근이 늦곤했었지. 하지만 이에 어머니 내가 집안일에 손을 대는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단다. 하루는 내가 일찌기 들어와서 저녁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애 어머니가 돌아오더니 절

혼후 처음으로 나한테 막 성을 내더구나.

《당신이 밥을 지으셨단말이지요? 정말 당신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군요.》

《그게 무슨 힘든 노릇이라고... 군대에 복무한 사람이 아무럼 밥 지을줄도 모르겠소?》

《그만하세요. 당신이 석탄을 많이 켜다고 자랑하는건 언제나 기쁘게 웃으며 들어줄수 있지만 그런 엉터리없는 자랑은 단 한번도 들어줄수 없어요. 그리구 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당신이 지어준 밥은 한술도 입에 안넣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그날저녁 입을 꼭 봉하고 《단식투쟁》을 했지.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주었던말이지. 허허...

한데 그후에 나는 그보다 더 엄중한 《오유》를 범하게 되었지. 그게 아마 이애의 남동생 명진이가 태어난 그해여름에 있는 일일거네. 자네도 알다싶이 우리 탄부들의 작업복이 빨리 뒹군하지 않나?

게다가 우린 지하막장에 들어가 일하는것만큼 그까짓 작업복이 좀 뒹은들 큰 일이 있겠나만 우리 집사람은 그 작업복을 늘 깨끗이 빨아입히느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막무가내더군.

그게 너무 딱하고 민망스러워서 하루저녁엔 내가 빨래감을 쯤저안고 슬그머니 여기 이 강변으로 나왔었지. 한데 어떻게 알았던지 그 사람이 허둥지둥 내 뒤를 쫓아나왔더군. 안해는 무작정 나의 손에서 빨래방치를 뺏어들었다. 그리고는 눈물이 글썽하여 부르짖었네.

《당신은 뭐예요? 누가 당신더러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요? 네?》

《허허... 당신 뭘 그러우? 이게 뭐 못할짓이요? 우린 군대때 노상 제손으로 빨래를 해입군했는걸 뭘, 나도 당신만큼 빨래를 할줄 안단말이요.》

말없이 빨래돌앞에 쪼그리고있는데 안해는 이윽고 나를 돌아보며 떨리는 어조로 말하더군.

《물론 당신이 절 아끼는 그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자신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것이 가슴아파요. 당신은 달라졌어요. 총각시절엔 탄부가 된걸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더니 이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는군요? 탄이 귀하다는것도 잊어버리고...》

《아니 여보, 당신 그건 무슨 소리요? 내가 탄부가 된걸 부끄러워하다니? ...》

《생각해보세요. 총각시절의 당신은 꽃보자기에 석탄을 싸들고 다닐 정도로 탄부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랬던 당신이 지금은 탄가루에 덮은 작업복을 자기 안해앞에도 벗어놓고 부끄러워하고있으니 과연 당신이 그때처럼 그렇게 탄부가 된걸 자랑스럽게 여기구 탄이 귀하다는걸 알고있다고 할수 있어요?》

《?! ...》

나는 말문이 막혔다.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진 나는 황당히 안해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로선 할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난 어디까지나 당신을 생각해서...당신의 수고를 좀 덜어주자고 한 노릇인데 뭘 그렇게 심각해져서 그러우. 오죽하면 내가 내손으로 직접 빨래를 해입자고 했겠소? 제발 이젠 작업복을 자주 빨지 말아주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같이 깨끗한걸 입겠느냐말이요.〉

〈아니예요. 그럴수록 남보다 더 깨끗이 입고 일해야 해요. 전 이날이때껏 꽃보자기안에 석탄을 싸들고 찾아왔던 당신을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어요. 결혼하는날 제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한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이 석탄을 꽃보자기로 감싸준것처럼 나도 역시 일생동안 탄부인 남편을 비단으로 감싸드리겠다는것이 바로 저의 결심이였어요. 한데 그 비단천으로 작업복을 지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왜 그것을 자주 빨아드리지야 못하겠나요. 빨래같은거야 우리 녀자들이 응당 할일이 아닌가요? 당신은 아직도 저를 무슨 특별한 녀자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 그게 싫어요. 저도 우리 공장 동무들과 똑같은 탄부의 안해가 되고싶단말이에요. 제가 탄부의 안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무엇때문에 당신한테 시집을 왔겠나요. 여보! 정말이지 난 남들과 똑같은 탄부의 안해로 되고싶어요.〉

〈...!...〉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말았다.

무슨 말이든 한마디 꼭 하고싶었으나 뜨거운것이 목안을 짊 메어주어서 좀처럼 말을 할수가 없었다.
나는 담배를 또 한대 피워물고 옆에 앉아있는 영식을 슬며시 돌아보았다.

영식은 머리를 폭 떨어뜨리며 기여드는 목소리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너무 웅얼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만... 명심동무와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탄부가 어떤 사람이고 탄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단말이야?》

나는 버럭 성을 내며 그녀석의 등허리를 쿡쿡 쥐여박았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게 조련한 일이 아니야. 나두 그때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캐는 석탄이 어떤것인가를 잘 모르고있었던말일세. 내가 그것을 똑똑히 알게 된것은 그때로부터 몇해가 켜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그날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옥천탄광을 처음으로 찾아 주신 뜻깊은 날이었지.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뻐하신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나? 그이께서는 옥천견방직공장 당비서의 남편도 탄부이고 탄광병원 원장선생의 남편도 바로 탄부이며 옥천고등중학교 교장선생의 남편도 역시 평범한 탄부라는것이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셨네. 그이께서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탄부들의 사회적지위가 나라 없던 지난날과는 대비도 할수 없게 상당히 높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바로 이것이 자신께서 바라시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네.

〈진국동무, 석탄을 꽃보자기에 싸들고 견방직공장을 찾아간 동무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참으로 석탄은 꽃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귀중한것입니다. 탄이 있어야 그 비단천도 짜낼수있는것이 아닙니까? 석탄은 금입니다. 우리는 석탄을 검은금이라고 몇몇이 자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식이도, 명심이도 감격에 젖어 내 뒤를 따랐다.

《이젠 알겠나? 석탄이란게 진짜 무엇인가를말일세.〉

《예, 알겠습니다. 탄은 금입니다. 검은금이지요.〉

영식은 크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명심이도 감동에 젖어든 목소리로 조용히 속살거렸다.

《검은금! ...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탄전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전 이것을 꼭 이야기해주겠어요.〉

나는 설레설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그렇게만 알아선 안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수령님께서 무엇때문에 석탄을 〈검은금〉이라고 하셨겠는가 하는것이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석탄이 하도 금처럼 귀하니까 그렇게 불러주셨겠지-하고 단순히 생각할수도 있을거네. 내가 보기엔 영식이 차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있는것 같은데 똑똑히 알아두게.

검은금! -그것은 단순히 탄이 귀해서, 탄의 가치만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이름이 아닐세.

나라 없던 지난날에도 석탄은 어디서나 필요되었구 요구되었지. 하지만 그 세월엔 누구도 우리 탄부들이 캐내는 석탄을 금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네. 참으로 그 시절엔 탄부들은 사람값에 들수 없었으니 그때문에 우리 탄부들은 한생을 버럭처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구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없어 총각으로 늙어온 탄부들도 부지기수였다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로 그 뼈에 사무친 탄부들의 원한과 슬픔을 말끔히 가셔주시려고 크나큰 사랑을 불러주시었지. 검은금이라는 그 말속에는 바로 우리 탄부들의 사회적지위를 부쩍 높여주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이 담겨져있단말일세. 이젠 알았나? 탄이란 바로 이런것이구 탄부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말이네 !》

×

바로 이것이 내가 오늘 전국의 탄부동무들에게 하자고 맘먹었던 《검은금》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이다.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하고싶다.

전국의 탄부동무들 ! 석탄을 캐기에 앞서 우선 그 석탄이 무엇이며 탄부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꼭꼭히 알자고 ! 그리고 우리 다같이 보답하자! 우리 탄부들을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여겨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그 사랑, 그 믿음에 !...

창조의 숨결속에

박창균

여기선 고운무늬짜는
직기바다의 북소리도
백열을 안고 사름치는
쇠물의 뚝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산협엔
다만 새들의 지저귂소리뿐
허나 이 땅에 피어나는
온갖 창조의 동음율
날날이 헤아리는듯

웅-
순간도 멈춤없이
고동치는 맥박인양
언제나 숨쉬는
나의 산중변전초소

조용히 귀기울이면
너의 숨결속에 들려온다
수천만 기계들의 동음소리
두줄기 궤도우를 달리는
꼬리긴 열차의 차바퀴소리

저 멀리 수도의 푸르른 하늘가에
눈부신 이마를 얹으며
층층이 벽체들이 오르는 소리
유원지의 꽃숲을 흔드는

관성차의 즐거운 웃음소리

조용히 귀기울이면
너는 뜨거운 가슴으로 속삭인다
철의 거인 만톤프레스를 다듬어내는
위훈의 교향곡도
날바다우에 뛰어드는
밤하늘의 별무리인양
갑문의 언제우에서 쏟아지는
수천만 용접의 불꽃도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지리라

그때문이 아니더냐
승리자의 대축전장으로 달리는
그 마음과 마음들을 안고
헛됨이 없이
공간이 없이
언제나 만부하를 거는 너

동음소리는 높지 않아도
너는 정녕 이 땅우에
모든 창조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울려주는 선창자
이름없는 산중의 가수

너의 그 궁지찬 노래속에
너의 그 뜨거운 숨결속에
지금 온 조국땅이 숨쉰다

별무리 흐르는 밤

김형집

두단오리공장 정문으로 들어서는 김병남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후리후리한 키에 흰칠하게 트인 이마밑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굳센 턱이 유표한 그의 얼굴은 수척한 빛으로 물들어있었다.

그는 이 공장에 파견되어 몇달째 사업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원이었다.

공장 《4.15기술혁신돌격대》의 앞길에 가로놓인 빨대류동의 기술적문제를 풀어보려고 무궤도전차사업소에 가서 방조를 받으며 며칠간 고심하다가 이렇다할 소득이 없이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두단오리공장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소식에 부닥쳤다. 《4.15기술혁신돌격대》에서 사료혼합공급기를 개조하던것을 중도에서 일단락지었다는것이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 사료혼합기와 공급기 개조안을 내놓은 설계원 리동무가 먼저 두손을 들고 물러났었다는것이였다.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다.

소조원 김병남은 급히 《4.15기술혁신돌격대》 전투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8월의 폭양이 쏟아지던 하늘은 재빛을 띤 장마구름이 물려들어 몽긔몽긔 타래를 짓고있었다. 공장 구내의 나무들은 고요속에 잎새들을 축 내리드리웠다.

돌격대성원들의 화기와 숨결이 넘치던 작업장은 피피한 정적속에 숨죽인듯했다.

며칠전에 조립해놓은 전동차는 한켠구석에 외롭게 서있는데 뜯어내어 쌓아놓은 레루장들우에서는 설계원 리동무가 쭈그리고앉아 담배연기를 굴뚝처럼 날리고있었다.

《아, 소조원동지 …》

설계원 리동무는 반색을 하였다.

《갓던 일은 어떻게 되였습니다까? 빨대문제는…》

《풀지 못했소…》

《역시 풀지 못했군요. 그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말이요?》

김병남은 쓸쓸하게 물었다.

《혼합기 개조는 끝내지 않았습니까. 공급기를 완성하는건 차츰 형편을 봐가면서 내밀어보자구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만세를 부른셈이군. 1단계 성과로 체면이나 유지하자는거요?》

《저라고 별수 있습니까.》

리동무는 그를 외면하며 중얼거렸다.

《빨대에 걸려 공급기를 개조할 전망이 보이질 않는데다가 지금까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석달째나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술한 자재까지 랑비하고… 더우기 〈기술혁신돌격대〉 일에서 전진이 없다고 뒤소리까지 생기는데는 정말 꼴이 아깝니다. 소조원동지까지 말발에 오르게 하고싶지는 않더군요. 그럴바엔 차라리 혼합기를 개조한 1단계에서 일단락을 짓자고 제기하는 편이 나을것 같았습니다. 공급기 문제는 후에 차츰…》

《그래서 리동무가 손을 들었구만! 그것도 이번 기술개조안을 내놓은 동무가?!…》

《내편에서 그만두자고 제의하는것이 한결 자연스럽지요.》

《기술혁신의 발기자에게는 그것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그거요?》

리동무는 결에서 한숨을 토했다.

《저라고 속이 편한줄 압니까. 자기가 착안한 기술개조안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의 기술자의 심정을 다는 모를잡니다…》

리동무는 섭섭하다는듯 움쭉 일어나 자리를 떴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소조원의 얼굴은 컴컴하게 흐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오리고기와 알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안겨지도록 하며 사양공들의 일손을 더 흥겹게 해주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였다.

그런데 리동무는 이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3대혁명의 길에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있으며 자기 본위의 울타리속에서 맴도는것이였다. 창안자의 명예를 스스로 《단념》하는것으로써 지기를 위안하며 난관앞에서 쉽게 물러선것이 아닌가.

걸린것은 단순한 기술문제가 아니였다…

(지금까지 나는 리동무를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어떻게 사업하였는가?

그가 고심하는 기술적문제를 안고 함께 모대기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쓴것뿐이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어째서 이때껏 깨닫지 못했을까. 더 크고 중요한것은 리동무의 정신적

높이가 3대혁명의 영예로운 기수들의 경지에 올라서도록 하는것이다.)

밤은 깊어갔다.

3대혁명소조원 김병남의 가슴은 새로운 결의로 높뛰었다.

장마는 며칠째 계속되었다.

《4.15기술혁신돌격대》는 다시금 2단계기술개조안을 추진시켜나갔다.

설계원 리동무는 소조원의 격려와 열정에 이끌려 점차 힘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전동차의 빨대가 여전히 애를 먹었다.

빨대시험은 비내리는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시험조작을 자칫 잘못하는 경우에는 감전될 위험이 있었으나 불리한 날씨에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전동차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니 별수 없었다. 소조원 김병남은 시험에서 안전대책을 취하면 벌일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김병남은 리동무에게 전원 스위치를 넣으라고 신호하였다.

리동무는 한동안 갑자리며 주저하였다.

《리동무, 아직도 무엇이 우려되요?》

소조원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그렇게 아니라...빨대밑에 서있는 소조원 동무가 위험...》

《난 도리어 리동무가 걱정스럽소. 그렇게 조마조마해가지구서야 어떻게 시험과정을 제대로 지켜 보겠소? 하하...마음을 놓소.》

잠시후 허공에 매달린 로라와 전선줄 사이에서 파란 섬광이 일며 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같은 불덩이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빛은 짧은 비줄기속에서 번개불처럼 명멸하였다. 소름이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바람에 엉덩방아를 찢은 김병남은 엇가락처럼 녹아떨어진 빨대와 로라를 지켜보며 물창속에

《리동무, 다시한번 해보자구. 이번엔 빨대류동반경의 최대치를 확정할수 있을것 같소. 방전하는 순간에 한가지 시사를 얻었다니까.》

그러나 다음 시험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갑자기 소조원의 얼굴이 검푸르게 질리며 오한을 만난듯이 툭툭 맞췄던것이다. 몇달간의 과로가 덮쳐들며 뼈속까지 스며드는 비줄기속에 서있던 그를 쓸어늘치고말았다.

김병남은 병원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나 독감도 그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전선줄과 빨대로라 째에서 튀어나던 방전의 섬광을 눈앞에 되살리며 그 불꽃의 최대치에 정비례하는 빨대류동반경을 확정하려고 애썼다.

그는 병문안을 온 리동무를 만나자마자 먼저 빨대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런데 리동무는 락심한 기색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소조원동지, 시험에선 여전히 앞이 보이질 않습

니다.》

《그 고충을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리동무가 물려서지 않는다면 아직 희망은 있소.》

《나는 이미 지쳤습니다...》

리동무는 한숨을 지었다.

《며칠전에 내가 그만두자고 제기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게 후회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소조원동지까지 이렇게 입원하게 만든게 다 내 탓이었지요. 그때 이미 포기했더라면 내 체면은 깎일지 모르지만 모든 일은 무난하게 되었을건데...》

《!...》

소조원 김병남은 눈을 감으며 어금이를 아프게 깨물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채 주먹으로 자기가슴을 쳤다.

《난 그래도 정열을 잃지 않은 리동무를 만나게 될줄 알았소. 인민들의 식탁에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놓아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생각할 때 이만한 난관이 다 무엇이겠소. 남편앞에서 벌써 패배감에 사로잡혀 뒤걸음치면서도 그 어떤 위안을 찾을줄은 몰랐소. 당에 기쁨을 드리는 중대한 과업을 두고 지금까지도 자기 한사람의 체면같은것을 생각하는 웅졸한 동무를 볼줄은 몰랐단말이요.》

창밖에선 대줄기같은 비발이 대지우를 휩쓸고있었다.

《그런 관점을 인젠 극복했을거라고 믿었던 내가 잘못이요...》

《...》

리동무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다가 비뿌리는 문밖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어지러운 비소리만이 입원실창가를 울렸다.

(내가 너무도 아픈 말을 던졌을가? 폭신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세울 자격이 있는가? 현장에서 애를 쓰다가 문병을 온 사람을...)

김병남은 피로운 생각을 이기지 못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리동무가 두고간 우산이 눈에 띄우자 그것을 들고 문밖으로 나섰다.

《리동무! -》

몽몽한 비발속에서 맨머리바람으로 걸어가던 리동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병남은 비척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두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김병남의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말은 다르게 나왔다.

《우산을 반소...》

그들은 한우산속에 서있었다.

《리동무, 난 방금전에 그 빨대로라에서 방전하던 불꽃을 상기했소. 내 생각엔...》

《소조원동지, 그만하십시오...나를 아직도 못믿겠습니까?》

《원 사람두...》

소조원은 리동무의 어깨를 쳤다.
 비소리는 여전히 소연하게 울렸다.
 40도계선에 올랐던 체온표의 곡선이 머리를 떨
 구자 김병남은 서둘러 병원문을 나섰다.
 침대우에서 계산해낸 뿔대류동반경을 설계원 리
 동무에게 한시바삐 알려주고싶었다.
 김병남은 공장이 가까와오자 우산을 접었다. 비
 발이 점차 설퍼지더니 없어진 구름사이로 석양이
 비쳐내렸다.
 어느덧 땅거미가 공장구내에 기여들기 시작하였
 다.
 《4.15기술혁신돌격대》성원들이 일하는 현장은
 활기를 띠고있었다. 전기선과 전동차의 뿔대끝에서
 푸른 섬광이 병긱병긱 일어났다.
 설계원 리동무가 기사장에게 도면두루말이를 퍼

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고있었다.
 《리동무 !》 소조원은 그를 불렀다.
 《소조원동지 !》
 리동무가 마주 다가오며 두팔을 벌렸다.
 《소조원동지, 뿔대의 류동반경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이 띄었구만!하하하...》
 김병남은 놀라움과 기쁨을 참지 못해 꺄꺄 웃었
 다.
 그러나 더 반갑고 보고싶었던것은 웃음으로 환히
 빛나는 리동무의 얼굴이었다.
 그날밤, 소조원 김병남은 리동무와 함께 오래도
 록 공장구내를 거닐었다.
 비구름이 걷힌 8월의 하늘에서는 찬란한 별무리
 들이 웃고있었다.

졸업사진

조문갑

밤새운 초소
 해쑈는 전호가에
 중학교 졸업사진 펼쳐드니
 나를 보며 웃고있구나
 어깨를 맞대고 앉은
 나의 동창 서른세동무

 사진찍던 그때에도 책을 놓지 않던 너는
 새로 창안한 기계과 함께
 얼마전에 신문에도 크게 났었지
 야영지의 호수가 그 유람선에서도
 멀미를 잘하던 너는
 갑문건설장의 손꼽히는
 잠수공이라지

동창들아
 우리 그때는 자리비좁게 모여앉았었다만
 오늘은 넓고넓은 일터들에 자리잡고
 청춘의 위훈을 떨치고있구나
 어데가도 한생을 빛나게 살자던
 희망에 부풀던 그 시절의 약속을 지켜

우리 한자리에 다시 모여앉는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우랴
 넓어진 어깨들을 맞대이고

조국에 바친 가슴벅찬 나날들을
 밤새워 이야기한다는것이

 모교의 창가에서 속삭이던 그 꿈
 위훈으로 꽃피가는 동창들아
 그날에 다진 맹세 빛내가는
 그대들의 장한 모습
 나에겐 더없이 소중하고 긍지로워

고향에서 먼 방선의 전호속
 언땅에 가슴 맞대이고 밤 밝히며
 그대들의 아름다운 희망과 영예를 지켜가는
 수호자 나의 삶도 위훈으로 이어지는것 아닌가
 그네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
 순간에도 생을 내뎌
 그런 나날이 나에겐 레사로운것 아닌가

아, 그때문에
 땀배인 내 병사수첩에
 소중히 끼워서 품고있다네
 그때문에 훈련의 실참에도 때없이
 수호자의 가장 깨끗한 삶을
 량심의 거울처럼 비쳐본다네
 이 졸업사진을

성격론리의 생활적타당성에 대한 생각

-단편소설 《살구꽃 필무렵》을 읽고-

리상복

인간의 사상과 감정세계는 반드시 일정한 정황속에서 구체적인 계기에 기초하여 산생되고 발현된다. 작품에서 정서와 감정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해야 한다. 정서와 감정이 적극적일수록 작품의 감동은 더욱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살구꽃 필무렵》(《조선문학》 1985년 6호 차순명)에는 분명 생활이 있고 독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안겨오는 그러한 것이 있다.

주인공 옥임이의 성격은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있으며 꽃분이의 행동 역시 생활적으로 타당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못잊어하는 꽃분이를 옥임이는 마치도 봉긋이 웃드는 꽃망울을 소담하게 피워가는 원예사의 심정으로 키워간다. 꽃분이를 잘 키우는것이 그의 생활의 전부였고 긍지였다.

작품에서는 옥임이와 꽃분이와의 관계를 생활적으로 맞물려놓고 그들의 심리세계를 진지하게 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생활의 본질은 구체적인 형상을 거쳐나와야 생동한 정서적힘을 가지고 안겨올수 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려면 생활과정에 체험하고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파헤쳐야 한다. 사실상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데서 창작가는 인간의 심리세계의 섬세한 움직임울 체쳐놓고는 아무것도 진실하게 보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세계가 드러나는 세부를 골라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옥임이가 처음에 꽃분이와 친숙해지려고 애쓰면서 그림공부도 도와주었으나 그의 행동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일요일에도 시험생산때문에 애써야 할 은석이지만 딸 꽃분이때문에 집에 있어야 하였다. 이것을 알

게 되는 옥임이는 꽃분이와 함께 일요일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꽃분이는 세차게 도리머리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겠다고 하는것이다. 이때 옥임이의 마음 한구석은 몹시 허전했다.

더구나 은석이 딸 꽃분이와 약속한 털신을 사주지 못했다는것을 알고 옥임이가 먼 상점에까지가 신을 사서 밤길을 걸어와 꽃분이에게 주었을때 그는 그것을 밀어놓으며 이제 우리 아버지도 사온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는 꽃분이를 보는 옥임이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으랴.

그때 옥임이의 심장은 그냥 그대로 얼어붙는듯싶었다. 야속스러운 생각으로 눈물이 쏟아질것 같았던것이다.

하지만 꽃분이를 돌보는 옥임이의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루도 아이들의 곁을 떠나본적이 없었고 그의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아이들속에 있었다.

총각들에게 던지는 옥임이의 차갑고 엄한 눈빛을 두고 동무들은 대학교수나 이름난 과학자가 나타나면 변할것이라고 놀려주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스하였다.

옥임은 어머니를 못잊어 그림을 그리는 꽃분이의 세계를 깊이 리해하고 그가 그림을 더 잘 그리도록 도와주었으며 일요일을 리용하여 그의 집을 알뜰히 거두어주는것이였다.

하기에 이제는 꽃분이도 자기 선생님과 떨어지기 몹시 서운해하는것이였다.

들놀이때에도 선생님을 친어머니처럼 믿고 함께 갔고 거기서 《우리 선생님》이라는 그림을 그려 옥임이뿐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을 기쁘게 하였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보여주는 열

죄가 있다.

인간들의 미묘한 내면세계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생동하게 표현된다.

창작가들이 창작에서 자그마한 생활세부라도 소홀히 하면 작품전반의 진실성에 돌이킬수 없는 큰 손상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것을 찾아볼수 없다.

옥임이가 도에 소환되어 떠날 때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더우기 꽃분이로 인한 그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다. 꽃분이는 아직 자기 선생님이 소환되어 여기를 떠나는줄은 모르는것이였다. 그러던 그가 선생님이 영영 떠난다는것을 알았을 때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울면서 발버둥친다.

렬차가 떠나자 그는 차를 따라 달리면서 옥임에게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다가 그만 어루러지면서 애처롭게 《엄마야!》 하고 소리치는것이였다.

옥임이는 정녕 떠날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도로 내려 꽃분이를 껴안는다. 그리고는 《가자요》 한다. 《어딜 가나요?》 꽃분이의 겹에 질린 물음.

??...

단순치 않은 이 물음에 옥임이는 꽃분이뿐아닌 온 사회앞에 대답해야 하는것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우리 시대가 높이 자랑하는 한녀성연구사가 한개의 종자를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모습이 떠오른다.

옥임이는 꽃분이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자기와 결부시켜야 한다는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때 그는 꽃분이와 그의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자기 마음속에 굳건하다는것을 깊이 느낀다. 하기에 그는 꽃분이를 다시 그리안으며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한다.

이 얼마나 감명깊은 이야기인가. 무한히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 인간의 성격이 소설에는 감동적으로 천명되고있다.

성격의 론리란 다름아닌 현실생활의 론리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생활적으로 추구한다는것은 바로 그것이 현실생활의 본질과 일치하도록 진실하게 그려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옥임이와 꽃분이와의 관계를 튼튼히 맺어

놓고 이야기하고있지만 은석이와의 관계는 추구하지 않고있다. 만약 옥임이와 은석이 관계를 파고든다면 그것은 벌써 문제설정이 달라지며 옥임의 성격적높이를 담보할수 없다.

제기한 문제성의 독창적인 해명, 이것이 바로 이 단편소설이 달성한 성과의 하나이다.

재삼 이야기하건대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이 흔히 이러저러한 생활현상을 집계하고는 도식적인 선언으로 종자를 해명하려는 편향이 이 소설에는 없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소환되게 된 옥임이가 떠나는 렬차에서 도로 내려 꽃분이의 집으로 가는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고. 생활적인 믿음이 안간다는 소리다.

옥임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녀성들이 생활에 더러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런 녀성들은 지지를 받을수가 없다. 왜냐 하면 우리생활은 그런것과는 너무나도 멀리 앞으로 나아가고있기때문이다.

더구나 옥임이의 성격형상이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성격론리의 생활적타당성에 맞게 흐르는데야 무엇을 더 이야기하겠는가.

이 작품이 하나의 감동적인 미담으로 엮여진것인가?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며 사고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 대한 리상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것을 로동계급적관점에서 보여주려면 그들의 보람찬 생활의 혁명적내용을 강조하여야한다.

생활을 참답게 사랑하는 창작가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생활을 리해할수 있으며 생활을 깊이 아는 창작가만이 생활을 뜻깊고 자연스럽게 그려나갈수 있다는것을 이 단편소설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되고있는것은 간단한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 시대 녀성들이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짚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이 소설의 필자의 앞으로 창작활동은 기대된다.

출장길에서

리광선

때없이 새겨듣는 그 목소리

내 어릴적
밖에서 뛰놀 땐
어머니의 다정한 그 말뜻 더 모르고있었네
-넘어지지 말아!

내 다 자라
로동의 첫발자국 떼던 날
부락하듯 말하는
사려깊은 그 말귀를 다 새기지 못했네
-실수하지 말라!

인생에서 한번밖에 없는
내 장가드는 날
대견해 내 등을 어루만지며 하던
사랑의 젖은 그 목소리 다 알아듣지 못했네
-년 이젠 혼자몸이 아니다!

아, 조국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나날
귀밑머리 희여진 오늘에도
때없이 새겨듣는 그 목소리
내 곁에 떠나지 않는 그 어머니!

(청진에서)

《급행열차》

나는 항시 바쁜 사람
출장길에서도
조금도 여유시간을 얻지 못해
오늘도 《급보》로 《급행차》로
덤벼치며 바쁘게
떠나는 열차로 날아오르다
그만에야 쓰고온 털모자를 떨궜네

차창밖에 내리던 눈 더해지고
바람소리 높아도
나의 마음속엔 훈훈한 봄바람!

아, 래일에 또 모자를 잃은들 어찌리
인생의 끝은 급행열차를
제시간에 탈수만 있다면야

기차는 달려
모자는 저만치...

(고원에서)

마음의 발걸음

사람들은 나를 붙들었네
거기에는 정말 못간다고
거기를 가자면 열두고개를 넘고
술한 벼랑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엔 얼음이 짙 깔렸다고

오, 허나 나는
마음속에 결심을 품고 용단을 내렸네
그런 길 안가고야
무슨 삶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으랴!

기자선생이야
가야 할데 많겠는데
눈오고 바람부는 험한 날
왜 그런 길 가겠는가
차마 그 길을 알고있는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허락지 않아 못보내겠다고

꽃피는 봄날 같순 있어도
당의 기쁨안고 사는 그 길에
마음의 발걸음은 멈출수 없었네

(조막산에서)

소 득

눈오고
바람부는 추운 겨울날
내가 주저했다면
내 어찌 이런 시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하기에 나에겐
늘쌍 하는 어머니의 그 말이 고맙고
쉬여가는것보다
항시 바쁜 그 길이 더 활기로왔고

아지랑이 피는 봄길보다
눈보라이는 그 길이 더 즐거웠네

아 우리 가는 길에
비바람쳐도 눈보라 사나와도
귀중한걸 얻었네
천금취도 못살
인생의 큰걸

(화성에서)

시에 대한 생각

시란 무엇인가?

책상머리앞에서 마른 머리를 짜며
또한 남의 말을 듣고
딱딱한 붓을 들어
밤새껏 모대기며
제만이 알아주던 시를 쓰던 일
얼마나 많았던가
내 지난날

우리 걸어보는 논둑길
우리 뚫여보는 쇠물폭포
우리 달려보는 푸르른 바다
평지보다 높은 언덕길-
그리고
그것들에 조금도 보탬과 꾸밈이 없이 솔직한것!

이것이 진정이 담긴 우리 시가 아닐가

(북변의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며)